금주의 법구-〈법구경〉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욕망의 숲을 잘라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0월 27일)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지역복지 양극화 줄일 교구법인 설립 가속화

지역복지 살리는 교구 복지법인
1. 교구 복지법인 설립현황
2. 교구 복지법인 의미와 전망
3. 교구 복지법인 모범사례와 과제

고운사, 백양사 年中 설립
용주사 등 7곳은 추진 중
중앙집중서 교구중심 개편
'관리 · 운영효율 강화' 기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어 불교계 복지 네트워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교구본사 복지법인의 잇따른 설립은 그동안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과도하게 집중된 전국 복지시설이 이관 및 분산으로 이어져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펴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에 따르면 늦어도 올해 말 조계종 제16교구 고운사와 제18교구 백양사서 (가칭)고운사복지재단과 (가칭)백양사복지재단을 설립한다. 재단이 설립되면 조계종유지재단 지점 형태로 운영된 고운사 요양원(2006년 개원)과 백양실버타운(2008년 개원) 소유권이 교구본사 복지법인으로 이관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12월 중 개최할 제 223차 임시회서 '조계종 유지재단 재산 증여 동의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운사와 백양사를 포함해 현재 법인 설립 추진 중인 교구본사는 총 7곳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사찰은 용주사, 은해사, 봉선사, 해인사, 화엄사 등이다. 만일 해당 본사 복지법인 설립이 완료될 경우, 전체 25곳 교구본사 중 21곳이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불교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각 교구본사들이 지역별 사회복지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복지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사회복지재단이 산하시설 운영체계를 기존의 중앙 집중 형태서 교구본사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 분산된 복지시설 관리에 따른 중앙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밀착적인 복지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2018년 배포된 불교사회복지 편람에 따르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산하시설은 총 184개에 이어 2020년 기준으로는 200개소를 넘어섰다. 재단 종사자 24명 중 3분의 1인 8명이 산하시설 운영을 담당하지만, 시설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동안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특히 수탁시설인 경우 해당 지역사찰을 운영지원사찰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지만,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중앙의 복지재단이 떠안게 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재단 규모의 비대화와 함께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공존함에 따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그동안 불교계가 위수탁 받은 시설 및 기관 등을 교구본사가 설립한 법인 산하로 순차 편입시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당시 복지법인 운영 교구본사가 절반에 불과한 데다, 사실상 시설 수탁 경쟁서 우위 선점 법인이 소수에 불과해 적극적인 시설 이관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설립 과정을 살펴보면, 1957년 제 23교구 제주 관음사 불교자비원을 시작으로 30여 년간 중단됐다가 1990년대에 법인 설립이 활성화됐다. △제15교구 양산 통도사 △제9교구 대구 동화사 △제3교구 속초 신흥사 △제14교구 부산 범어사 △제13교구 하동 쌍계사는 1990년대에 복지법인을 설립한 본사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다시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제17교구 김제 금산사가 금산사복지원(2000년)을 설립한 이후 2007년이 돼서야 제4교구 월정사서 월정사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이어 2008년 제8교구 직지사가 직지사복지재단을 설립했지만 그 이후 한동안 그 맥이 끊겼다.

지지부진한 교구 법인 설립은 다시 10년이 지난 2018년, 보인 스님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현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전환점을 맞았다. 2018년 제 11교구 본사 경주 불국사에 불국사복지재단이 설립을 지원했고, 2019년 신년간담회에서도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사회복지 균형 발전 기반 구축을 강조하며, 불교사회복지 인프라를 교구본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피력했다.

현재 25개 교구본사 중 사회복지법인을 운영중인 교구본사는 제3교구 신흥사를 포함해 14곳이다. 복지법인 설립 추진 중인 7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아직 추진 계획이 없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미법인 교구본사의 설립 참여를 지원 독려해 각 교구본사를 거점으로 하는 불교사회복지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김남국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운영사업본부장은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설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만큼 종국에는 모든 교구본사가 산하의 복지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의 사회복지재단은 재단법인 고유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며 "지역교구 복지법인들이 중앙의 사회복지재단과 더불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1년 불교언론 발전 주역들 불교언론 발전을 이끌어 온 언론사와 원로 언론인을 상찬하는 제29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광삼 본지 초대사장(창간 발행인 · 사진 두번 째 줄 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불교언론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교역직 스님들과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들의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차별금지법, 부처님 가르침과 같다"

조계종, 11월 24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성명

"국민 90% 찬성…외면 안돼"

조계종이 정기국회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1월 24일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21대 국회는 10만 명의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청원한 것에 대한 국회 청원심사를 2024년으로 연기했으며 4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례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한 조계종은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다수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0% 가까이 찬성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와 같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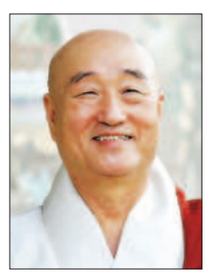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겠지만 그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차별금지법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종단 스님들은 그동안 국회와 정당 앞 정기 기도회, 30㎞ 오체투지 등을 비롯해 수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조계종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존엄하고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뜻과도 계합돼 있음을 밝히며,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 장애 · 성적지향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을 포함한 국민청원 5건의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 미루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임은호 기자

제33회 포교대상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

오는 12월 3일 시상식 개최



한해 동안 활발한 포교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되는 포교대상 대상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불암사 회주, 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은 11월 23일 제33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로 △대상 일면 스님(불암사 회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공로상 종오 스님(호국무열사 주지), 진명스님(시흥 법련사 주지,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방창덕 포교사단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원력상에는 동련 사무총장 미수 스님, 화성 신흥사 주지 선관 스님, 조길문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김명숙 동국대의료원 기획처 대외협력홍보팀장, 김화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회장, 조한영 수덕사 신도, 정홍임 국제선센터 신도, 김나연 포항 관음사 신도 등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 일면 스님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며,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등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은 12월 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된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대구동화사 말사
거제 신광사
신광사 수목장은…
첫째, 가깝습니다.
| 거제대교에서 5분, 거가대교에서 2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둘째, 믿을 수 있습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신광사에서 운영하고 있어 안심하고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습니다.
셋째, 영구 안치해 드립니다.
| 한번 안치로 영구적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넷째, 다양합니다.
| 개인목부터 가족목까지, 총 8종의 다양한 수목을 추모목으로 구성하고 있어 유가족의 형편과 실정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855-0494 직통 010-2094-0580
경남 거제시 사등면 오랑2길108



조계종 종정 추대절차 착수…누가 거론되나

〈사진 법랍 순〉


천호월서 대종사


학산대원 대종사


수봉세민 대종사


중봉성파 대종사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월서 · 대원 · 세민 · 성파 스님
12월 13일 종정 추대회의 소집
10년만의 새 종정에 관심 집중

조계종이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종정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차기5대 종정에 누가 추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원로회의는 12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5대 종정 추대회의를 연다.

조계종 종정은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법통을 승계한다는 점에서, 종단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 종헌에 따르면 종정의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으며, 현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는 연임해 2022년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된다.

원로회의법에 따르면 종정 추대회의는 종정 임기 만료 3개월 전 혹은 유고시 원로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추대회의에는 원로회의 의원 전원과 총무원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장이 참여하며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원로회의 인원은 의장 수봉세민 대종사를 포함해 21명이다.

종헌에 따르면 종단 최고 어른으로서 상징성과 권한을 가진다. 전계대화상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 또는 종단 징계에 대한 사면, 경감, 복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종단 비상시에는 원로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

무엇보다 이번 종정 추대회의에서 결정될 제15대 종정은 진제법원 대종사의 중임 이후 10년만에 새로운 종정이 추대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법주사 조실 천호월서 대종사,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학산대원 대종사,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수봉세민 대종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중봉성파 대종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이하 법랍순)

천호월서 대종사는 종단 개혁과 청정수행 가풍을 세운 금오 스님의 상좌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56년 금오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59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동화사, 해인사, 봉암사, 제주 영주선원 등에서 수선안거 했으며, 조계사, 불국사 주지와 조계종 제4·5·6·8·10·12대 중앙종회의원, 제8대 중앙종회의장, 초심호계원장과 호계원장 등 종단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9년 금오선수행연구원을 설립해 금오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는 한편, 2012년 국제개발협력단체 천호월서희망재단을 설립해 라오스와 캄보디아, 네팔 오지마을의 학교 설립 및 교육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며 세계일화를 통한 실천행을 이어가고 있다.

학산대원 대종사는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지낸 불교계 대표 수좌다. 2001년 재가자를 위한 오등시민선방을 개원해 참선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56년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8년 사미계를, 196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2013년 해인총림 서당, 고암문도회 회주에 추대, 원로의원에도 위촉됐다. 2017년 조계종 종정 자문위원 소임을 맡았으며 현재 원로회의 수석부의장이다.

수봉세민 대종사는 원로회의 의장이자 '염불' 대가로 유명하다. 해인사 주지 소임을 맡은 당시 '팔만대장경'의 현대적 계승을 목적으로 동판 팔만대장경 조성사업을 펼쳤고 전쟁으로 소실된 경기도 연천군 원심원사 복원을 이끌었다. 수봉세민 대종사는 조계종 前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1956년 사미계, 196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일본 경도불교대학을 졸업했고 제8~10대 중앙종회의원, 동국대 선학과 강사, 조계사 · 선암사 ·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다. 2012년 원로의원으로 선출됐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종정 후보로 거론되는 스님들 중 유일하게 문중 차원에서 공식적인 종정후보추대위원회가 구성됐다(11월 25일 현재). 중봉성파 대종사는 30안거를 성만한 수좌인 동시에 시조시인이자 예술가다. 선사상을 서예와 선화, 옻칠 등 예술로 승화해 대중에게 전해 왔다는 점에서 인지도가 높다.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비구계를 수계했다. 1998년 봉암사에서 수선 안거한 이래 30안거를 성만했다, 조계종 제5·8·9대 중앙종회의원과 통도사 주지, 영축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 3월 영축총림 방장으로 추대됐다.

'사과' 온 정청래 의원, 관람료 인식 왜곡 여전

11월 25일 뒤늦은 조계종 방문
공분여전…사과 진정성에 의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25일 오전, 사과를 위해 조계종을 방문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올해 10월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폄하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25일 오전, 사과를 위해 조계종을 방문했다. 하지만 추후 일정을 잡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라는 조계종 측의 요구에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사과 방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날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는 오랫동안 국민 불편사항"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한 데에 따른 편견과 문화재를 향한 왜곡된 인식을 재차 드러내 사과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들게 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 조계사 일주문 앞에 도착한 정청래 의원은 "성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표현상 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계종은 문제의 발언 후 51일 만에 찾아온 정 의원에 대해 명확한 거부 입장을 보였다. 조계종 기획실장 삼혜 스님은 조계종을 대표해 "상황 상 여러 차례 방문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찾아온 것에 대해 불편하다"며 추후 정식으로 약속을 잡고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부처님께 삼배라도 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일주문 앞에서 합장 반배로 인사 후 발길을 돌렸다.

이날 정청래 의원은 사과 차 방문했다고 했지만 "문화재 관람료는 오랫동안 국민 불편사항"이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정청래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정안은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을 규정한 문화재 보호법 제49조 3항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의 지역주민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등을 위해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개정안 역시 사찰이 소유재산에 따른 비용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들이 국립공원 내 부지로 사실상 강제 편입되면서 빚어진 문제이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불교계가 재산권을 침해당한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청래 의원의 사과는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자들의 공분을 뒤늦게 진화하기 위한 표면적인 사과라는 여론이 적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은호 기자

'탄중위' 난항 속 도움 요청한 정부

황희 장관, 11월 25일 7대 종교간담회

'2050탄소중립' 실천 운동 등
협조 요청 · 협력안 의견 교류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과 관련,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대 종교지도자들에게 캠페인 등 실천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앞서 정부 주도로 출범한 민관협력기구 탄소중립위원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종교위원들이 방향성과 실효성 등 문제로 전원 사퇴한 상황에서, 정부와 종교계간 협력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7대 종교 지도자 초청간담회'를 열고 '2050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교계 협조를 요청했다.〈사진〉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황희 장관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가 시작된지 4주째 접어들었다. 그동안 종교계의 협조와 노력 덕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기에 재차 감사를 전한다"며 "더불어 우리가 직면한 또다른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인사말 직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종교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협력에 나서면서, 그동안 각 종교가 분산적으로 진행해 온 기후위기 관련 활동들도 연대를 통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고 '탄소중립위원회' 종교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종교계의 이번 협력이 단순한 정책홍보에 그칠 수 있다는 도우려도 나온다. 송지희 기자

소유자 배제한 지자체간 '대청봉' 논란 "유감"

조계종 재무부, 11월 24일 입장문
"신흥사 동의 없다면 불법"
논쟁 즉각중단 · 참회 촉구



속초시와 인제군, 양양군 등 3곳 지자체가 설락산 국립공원의 상징인 '대청봉'의 경계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토지소유권자인 신흥사가 배제된 논쟁은 어떤 결과든 법적하자를 가지기에 무의미하다"며 중단을 촉구했다.〈사진〉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탄하)는 11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소유 설악산 대청봉의 소유권을 둘러싼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다툼을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대청봉 소유권 논란은 해당 토지 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신흥사'와 어떠한 협의나 승낙 없이 진행된 경계 정정으로 촉발됐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위법적 행위이자 타인의 재산권을 두고 제3자가 논쟁을 벌이는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논쟁"이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설악산 대청봉(표지석)의 소재지는 지금까지 '속초시 설악동 산 41'로 인정돼 왔다. 경계 정정이 필요할 경우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강원도 역시 이번 논란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신청과 승낙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3개 자치단체는 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신흥사'를 배제한 채, 대청봉의 상징성을 두고 경쟁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계종은 "토지 소유자를 배제한 자치단체들만의 무의미한 논란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논란을 촉발시킨 관련 당사자들은 반드시 신흥사에 참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청봉의 상징성을 활용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경계 정정과 같은 비이성적, 비상식적 논란을 접하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청봉 소유자인 신흥사와 무관하게 논쟁중인 이번 사안은 어떠한 결론이 내려진다하더라도 그 결론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 내 사찰 소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각 지자체들의 행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설악산 국립공원은 그 상징인 대청봉과 주요 경관지인 토왕성 폭포, 권금성, 흔들바위, 백담계곡 등을 포함한 1200만평 가량이 신흥사 등 사찰 소유지다. 그러나 1970년 토지 소유자인 사찰의 동의 없이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 것은 물론 각종 규제로 인한 고충을 감내해야 했다.

조계종은 "이런 상황에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자치단체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소유권 다툼을 벌이거나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작금의 현실과 정책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사무처장에 진경 스님

원행 스님, 11월 23일 임명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신임 사무처장에 진경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진경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과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원행 스님은 11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경 스님에게 사무처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은 그동안 사무처장 직급 없이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 한일불교계 교류 등에 관한 실무역할을 보다 확대키로 하고 진경 스님을 처음으로 임명했다. 이날 임명식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이사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와 사무총장 향운 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원경 스님이 참석했다.

원행 스님은 "2022년 예정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지난 40여년간 지속됐던 한일불교간 관계를 다시금 원만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사,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주도한다

서울마을센터 수탁기관 선정…10년만의 재구조화

신규수탁기간 2022년까지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새롭게 주도할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11월 21일부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수탁하고 마을센터 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이끌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서울마을센터)' 운영주체를 (사)마을에서 조계사로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서울시와 조계사는 11월 12일 운영 위 ·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까지 1년간 조계사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마을센터 운영주체가 바뀐 것은 10년만의 일이다. 운영주체가 조계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실효성 여부 등 각종 논란이 야기됐던 마을공동체 사업이 구조 재편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계사 즉은 1년간 서울마을센터 기능의 효율화와 사업 실효성 확대,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지난 3년간 종로구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해오면서 마을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주민과 함께하고 나누는 것이 불교의 지향점인 만큼 협약기간동안 서울시와 신뢰를 기반으로 충실히 광역 마을공동체 사업을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문화재 지정번호 폐지…각계 의견 '분분'

오랜 국보·보물 서열화 지적에
지정번호 폐지…11월19일 시행

동일名 문화재, 보물만 108건
"지정년도 병기해 구분" 고시
학계 "연구 불편해 번호 용이"
단체 "환영하나 표기 어려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전시된 국보 금동미륵반가사유상(1962-1)·(1962-2)의 모습. 앞으로는 78·83호 대신 이 같이 표기된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사용하던 지정번호가 사라진다. 1962년 지정번호제 시행 이후 5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동일명 문화재 표기 문제 등 개선해야 할 숙제는 적지 않아 보인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공포됐다"고 11월 19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시 부여된 번호(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국보 제1호 숭례문은 앞으로 '국보 숭례문'으로 표기가 변경된다.

숭례문VS훈민정음 '1호 논쟁'

1962년 시행된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로,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국보 1호 논쟁은 1995년부터 시작됐다. 지정번호제도가 일제가 지정한 문화재 순번을 그대로 지정했으며, 숭례문이 국보 1호로서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국보 1호 대체 문화재로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것은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지만 더 좋은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재지정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 결국 무산됐다.

이번 지정번호 폐지에 대해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이라며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돼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일명 문화재 표기 어떻게?

하지만, 문화재 행정과 연구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일명 문화재다. 지정번호 폐지에 따른 혼동을 줄이고자 국보 제78·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의 애칭을 공모했던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민공모사업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사 결과, 동일명 불교문화재는 국보 7건·보물 108건에 달한다. 주로 금동불입상 등 출처가 불분명한 불상과 〈금강반야바라밀경〉과 같은 동일한 명칭의 불경류가 대부분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혼선을 막기 위해 11월 19일 고시를 통해 동일명 문화재의 경우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지정년도를 표기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지정년도마저 같다면 지정순서를 표기키로 했다. 일례로 국보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제78·83·118호가 있다. 지정번호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금동미륵반가사유상(1962-1)·금동미륵반가사유상(1962-2)·금동미륵반가사유상(1964)로 표기하게 된다.

종단·학계·단체 입장 상이

이 같은 동일명 표기에 대해 종단·학계·시민단체는 입장이 갈린다. 조계종의 경우 사찰 소재 국보·보물 문화재는 출처가 명확해 행정에는 큰 혼선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종단은 사찰명 표기가 중요해서 박물관 등에 있는 동일명 문화재까지는 신경쓰지 못했다"면서 "보물의 경우 지정번호가 2000번대까지 가면서 새로 지정된 불교문화재가 후순위로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지정번호 폐지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학계는 반대 입장이다. 연구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원로 불교미술학자인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지정번호는 그냥 순서일 뿐이다. 동일명 문화재에 지정번호 대신 지정년도를 붙여서 구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금동보살상만 해도 그 수가 적지 않다. 지정번호는 바로 구분이 되지만 지정년도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교과서, 안내판 등의 표기도 변경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소연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는 "불교문화재의 경우 동일명 문화재들이 상당수다. 오랫동안 사용하며 정착한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앨 경우 가져올 혼선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반가사유상 78·83호는 구분과 관리를 위한 표기였지 서열을 표기한 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 시민단체는 지정번호 폐기는 찬성하지만, 동일명 표기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지정번호로 순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일제 잔재다. 지정번호 폐기는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동일명 문화재에 대한 지정년도 표기는 안일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보 제78·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의 경우 화관 모양이 다르다. 이 같은 특징을 부각시키는 명칭으로 문화재명을 달리하는 게 구분도 쉽고, 대중들의 이해도도 높아진다"면서 "현재 문화재 관련 학술용어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이를 쉽게 풀이하는 용어를 개발하고 문화재의 특징을 살리는 명칭으로 변경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승려복지 성과 고무적 주거·의료 강화 '과제'

승려복지회, 11월 25일 토론회
최영신 교수, 10년 성과 진단
덕문스님, 재원마련 방안 모색

조계종 승려복지의 지난 10년 성과를 딛고, 향후 국민연금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노력과 주거보장 방안 모색, 스님 전용 요양시설 건립 등 의료보장 강화, 재원 마련방안 모색 등을 과제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승려복지 안착의 성과가 크다"고 평가한데 이어 분야별 과제를 짚었다.

최영신 중앙승가대 교수는 '종단 승려복지 10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발제에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에 따른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 가입시 보험료지원 정책은 큰 성과지만, 2020년 12월 기준 전체 스님의 25.8%인 2963명만이 보험료지원을 신청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며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의 소개 및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특례가입 사업장 적용 검토, 기초연금제도 안내, 수행연금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모색 등 구체적인 방향성도 언급했다.

최 교수는 또 승려복지회의 운영체계 강화도 요청했다. 종단 조직의 강화는 물론, 승려복지 운영매뉴얼의 제작 보급, 통합관리정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중앙과 교구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자들이 익숙한 공간과 동네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개념을 승가공동체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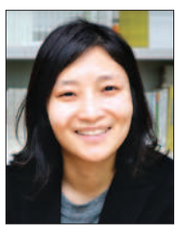
최 교수는 "고령자 스님을 위한 거주공간은 단순한 거처를 넘어 돌봄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며 "계단·문턱 제거, 욕실과 주방 개보수, 응급 비상벨과 안전손잡이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님 전용 병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만큼, 향후 종단 차원에서 요양원 및 요양병원 건립을 통한 시설 확충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최 교수의 발제에 이어,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의 '승려복지에 대한 교구본사의 역할', 최효진 직지사 복지재단 과장의 '승려복지에 대한 교구본사의 역할',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의 '승려복지 재원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발제가 이어졌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기협 기자상 기획부문에 송지희 기자

'해외교구법 10주년' 기획
오는 12월6일 시상식 개최



한국불교기자협회(협회장 신성민, 이하 불기협)가 선정하는 2021한국불교기자상 기획해설부문에 본지 송지희 기자〈사진〉의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10년'이 선정됐다.

불기협은 11월 23일 2021년 한국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관규)를 열고 2021년 한국불교기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기획해설 부문에 본지 송지희 기자의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10년'을 비롯해 대상에는 김내영 기자(법보신문)의 '가톨릭 순례길 사업에 대한 비판 보도 및 백지화 성과', 취재보도 부문에는 이성진 기자(불교신문)의 '조계종 승려복지회 공동 승보공양운동 보도'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기획해설 부문과 취재보도 부문에서 다양한 출품작이 나왔으며,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며 "기획해설 부문에서 우수한 작품이 많이 나왔다.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이웃종교나 종단에 대한 강한 어조의 보도로 다소 우려가 됐지만, 취재 분석 등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고 총평을 했다.

올해 한국불교기자상 심사는 김관규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 김시열 도서총판 운주사 대표가, 심사위원장은 김관규 교수가 맡았다. 시상식은 12월 6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 장소는 추후 공지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전쟁 육군병원 통도사, 현충시설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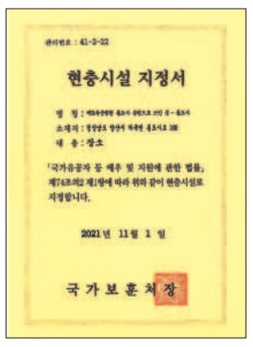
국가보훈처, 11월 1일
'현충시설 지정서 전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국가보훈처는 11월 1일 '현충시설 지정서'를 통도사에 전달했다.

통도사는 2019년 9월 경내 용화전 미륵불소조좌상의 복장유물 내용을 발견했다. 용화전 미륵존불 조성연기문에는 구하 스님이 작성한 내용 '경인년 6월 25일 사변 후 국군 상이병 3000여명이 입사해 불기2979 임진년 4월 12일 퇴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통도사는 유가족 및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에 입원한 생존자의 증언을 청취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등 객관적 자료 취합하여 국방부를 비롯해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등 관련 기관에 현충시설 지정을 요청했다.

울산보훈지청은 "'영축총림 통도사 제31육군병원' 현충시설 지정(통기 제2021-227(2021.5.4.)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2021년 제4회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충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알린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국가보훈처에서 전달한 '현충시설 지정서'.

통도사 기획국장 광우 스님은 "통도사의 현충시설 지정은 국난 속에 활동한 호국불교의 역사를 밝힌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현충시설 지정을 시작으로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위령재를 봉행하는 등 호국도량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최대 화엄법석인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가 12월 4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설법전에서 열린다.

입재법문은 오전 10시 불공에 이어 방장 성파 스님의 법문으로 진행되며 이후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과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 등 30명의 국내 화엄법사의 법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축 복합문화공간 KUmuda 명상문화센터 개관

불자님들의 원력과 정성이 모여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쉬어 가는
풍성한 문화예술의 도량 KUmuda 명상문화센터 건립 불사를 원만 회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벽산 원행 큰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여법한 회향의 법석을 마련하여 사부대중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운사 주지·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합장

KUmuda 명상문화센터

Opening Ceremony

12 09

점심 공양은 낮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명상센터 3,4,5층에 준비되어 있으며
주차는 쿠무다명상문화센터와 라온호텔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KUmuda 명상문화센터 개관식

일시_ 2565(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_ KUmuda 명상문화센터

KUmuda
문화를 넘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1 전화 051)702-1300

“열암곡 마애부처님이시여, 일어나소서!”

11월 22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원법회





조계종은 11월 22일 경주 남산 열암곡 인근 특설무대에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은 11월 22일 경주 남산 열암곡 인근 특설무대에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는 백만원력 결집불사 사업 일환으로 ‘한국불교를 일으켜 굳건한 반석위에 올린다’는 의미를 담아 2019년부터 시작한 불사다.

기원법회는 1부 헌향과 헌등, 헌다, 예경순으로 진행됐으며 경과보고 및 법어,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2부는 마애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직접 부처님을 친견하고 헌향하며 마애불 부처님을 바로 세울 것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기원법회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마애불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것은 한국불교의 중흥의 상징이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한국불교를 세워 올리는 것과 같다”며 “우리가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고자 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은 경주시가 2007년 5월 열암곡 석불좌상 발굴조사를 진행하던 중 석불좌상에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바닥을 향해 넘어진 상태였으며 바닥과 불과 5cm 간격으로 형태를 유지 하고 있어 ‘5cm의 기적’으로도 불린다.

열암곡 마애불은 전체 높이 5.6m(불상 4.6, 연화대 1.0m)인 대형 불상이며 문화재청은 조사를 통해 진도 7규모의 대지진과 홍수로 넘어졌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11월 21일 제33회 수계법회

수계 293명, 연비 5175명 등 총 5468명 발원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사진 오른쪽)이 어린이불자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1월 21일 안양본원서 제33회 한마음선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새롭게 수계를 받은 인원은 293명으로, 연비 5175명 등 총 5468명이 불자로서 다시 발원했다. 수계는 안양본원서, 연비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국내외 25개 각 지원에서 진행됐다.

수계법회는 예불을 시작으로 삼보를 찬탄하며 수계를 고하는 ‘거향찬’, 삼보를 청하는 ‘청성’, 청법삼배, 청법가, 입정, 대행 스님 영상법문, 수계사를 청하는 ‘청사’, 오계 설법, 연비, 수계자 발원, 수계첩 수여, 이사장 혜수 스님 말씀, 일체제불의 마음 합송, 사홍서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우바새들은 ‘본연 자(自)’, 우바이들은 ‘참나 아(我)’라는 법명을 받았다. 연비의식 후에는 진주지원 아함 이희영 불자의 발원문 낭독과 광명선원 자벽 이상배 거사의 수계첩 대표수여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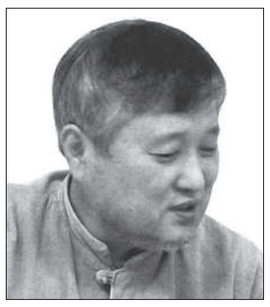
수계법회에는 위드코로나를 맞아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동안 한마음선원을 방문하지 못한 불자들이 대거 찾았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오늘 처음 수계 받으신 분들은 큰 스님 법문 내용대로 모든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나와 남을 위한 자비 실천행을 생활속에서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33회 수계법회는 안양본원과 전국 지원에서 동시에 유튜브 방송으로 중계됐다. 노덕현 기자

5.18 광주 항쟁 주역 스님의 쓸쓸한 죽음

전두환사망 당일 11월23일 5.18 항쟁 주역 진각 스님 저수지서 자살로 生 마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했던 전두환 씨가 11월 23일 사망했다. 전 씨의 사망 당일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된 한 시민이 저수지에 몸을 던져 유명을 달리했다. 그의 이름은 이광영(68, 사진) 씨.

유서에는 “계속 아팠는데 요즘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다. 5.18에 대한 원한, 서운함을 모두 잊고 가겠다”는 내용이 쓰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4시간마다 통증을 이기기 위한 진통제 주사를 맞을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렸다.

본래 이 씨는 스님이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진각 스님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며 인생의 변곡점을 맞는다.

당시 나주 다보사에서 수행하고 있던 진각 스님은 도반인 성연 스님이 준비하는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돕기 위해 광주 증심사에 왔다가 항쟁에 참여하게 됐다.

헬리콥터 기총사격으로 쓰러진 여학생을 적십자병원에 후송한 것이 계기가 돼 적십자 대원으로 합류하게 된다. 스님은 다른 대원들과 함께 약국과 개인병원에 약품을 조달하고 시내 병원에 시민들이 헌혈한 혈액을 보급했으며, 부상자들을 후송했다. 그러던 중 계엄군의 총격으로 부상당한 시민을 구하려다 척추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대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이 마비가 된 진각 스님을 계엄군은 ‘폭도’로 분류해 1981년 1월 강제 퇴원시켰다. 반신불수가 된 진각 스님은 사찰로 돌아가지 못했다. 결국 속퇴해 결혼을 하고 속인 이광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

하지만 스님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반신불수의 고통과 경찰의 탄압에도 진각 스님은 1982년 8월 5.18부상자회 결성에 참여하고 총무를 맡아 5.18 진상규명과 부상자 치료·보상,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다.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전 씨가 사망한 날, 사문으로 민중과 함께 하다가 총상으로 평생을 후유증으로 살았던 진각 스님 이광영 씨도 삶을 달리했다. 그의 죽음은 아픈 우리 현대사의 단면을 보여주기에 더욱 쓸쓸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생명나눔, 노래·춤으로 희망 전달

11월 19일 광진나루아트센터서 마하무용단 다양한 주제로 공연 배수지 씨, 생명나눔 대상 수상

불교계 장기기증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난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와 이식대기자 치료비 모금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1월 19일 서울 광진나루아트센터에서 ‘제12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나눔, 기적을 만들다’를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도후 스님,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 박종우 홍보위원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환자치료비 전달식으로 막을 올렸다.〈사진〉 이사장 일면 스님은 중증 질환으로 동국대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소정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전달식에 이어 올 한 해 생명나눔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를 치하하고자 마련한 생명나눔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생명나눔대상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더 밝고 깨끗한 사회 구현에 구현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제2회 생명나눔 대상은 가수 겸 배우 배수지 씨가 선정됐다. 나눔상에는 도후 스님, 홍보상에는 BBS불교방송 ‘거룩한만남’, 생명상에는 주석 스님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나눔은 주는 이에게도, 받는 이에게도 축복”이라며 “가슴속 벅찬 감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미얀마 코로나 극복에 보탬이 되길”

국제불교연합, 11월 25일 미얀마에 마스크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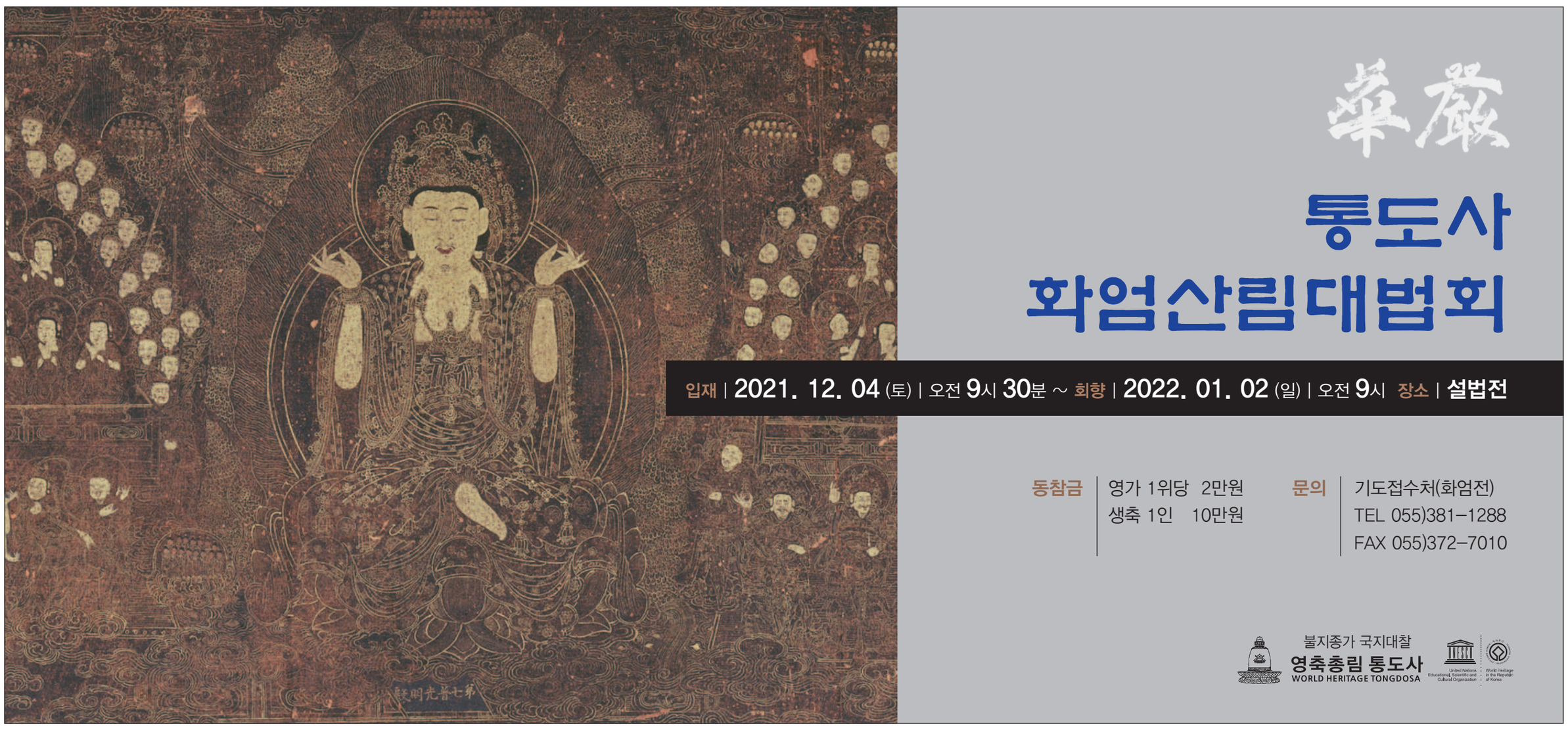


국제불교연합은 11월 25일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서 마스크 전달식을 개최했다.

국제불교연합(공동이사장 재원·법일)은 11월 25일 미얀마대사관 무관부에서 미얀마 고아원과 초등학교, 불교대학 등에 사용되는 어린이와 성인용 마스크 10만장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마스크는 5000만 원 상당의 ‘싱그라미’ kf94형과 어린이용 마스크로 불자기업인 에스제이파워, 대성울트라소닉, THL네트웍스, 참이누리 등이 지원했다.

전달식에는 국제불교연합 공동이사장 법일 스님을 비롯해 국제불교연합 NGO대표 현오 스님, 홍을선 국제불교연합 사무총장 등 국제불교연합 관계자들과 신항철 에스제이파워 대표, 정상진 THL네트웍스 대표, 방기상 등불 대표, 최병환 동원푸드 대표 등 기업·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했다. 미얀마 무관부 측에서는 딴 타익 주한미얀마무관(육군 준장)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기도 성취, 1500여건 가피·영험담이 증명

안심정사 창건 30주년

1. 한국불교 새 바람
2. 행복을 일구는 기도
3. 신심의 회향과 나눔
4. 운명을 바꾼 불자들
5. 법안 스님의 인터뷰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안심정사 논산본찰에서 봉행한 영산재. 영산재에 참여한 불자들 중에는 현몽 등 특별한 체험을 한 사례가 적지 않다.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


안심정사 창원도량 심원사에서 봉행한 철야 불공.

전국 수많은 사찰 중에서도 유독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은, 소위 '기도발 잘 받는 사찰'이다. '기도발'이라는 단어에는 곧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존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불자들의 염원이 담겼다. 바로 소원성취다. 소원성취는 기복불교의 핵심이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 가피담이나 영험담이 불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유는 누구나 경험하는 흔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도를 한 모든 이들이 소원을 이룬다면 '기도발 잘받는 사찰'을 향한 불자들의 관심도 특별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이 "기복불교의 핵심은 성취에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안심정사(회주 법안)는 불자들 사이에서 손꼽히는 소원성취 도량이다. 대부분의 '기도발 잘받는 사찰'이 산중사찰인 것과 대조적으로, 안심정사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사찰이다. 서울과 부산, 창원 등 6개 지역의 가장 중심지에 각각 자리한 안심정사 도량은 6곳 증 어느 하나 빠짐없이 '기도발 잘 받는 사찰'로 인지도가 높다.

사찰터나 도량의 기운에 따른 '기도발'이 아니라, 맞춤형 상담을 통한 기도법이 핵심요인이라는 점에 특별함이 있다. 개별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기도처방'을 내리고, 이를 통해 소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끄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착됐다.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지 명확한 매뉴얼을 제시해,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의심이나 고민 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끈다. 기도를 하고 싶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거나, 기도를 하면서도 맞는 방식인지 확신하지 못해 혼란스러운 불자들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셈이다.

그 중심에 회주 법안 스님이 있다. 법안 스님은 불자들이 명확한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처방을 내릴 때 일종의 '기도매뉴얼'을 함께 제시한다. 그리고 "걱정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한다. 기도에 대한 의구심과 정확하지 않은 지식으로 인한 불안감을 버리고, 경전에 근거한 방식대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보면 가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운명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기에 스스로가 바뀌어야 운명도 바뀝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고, 간절한 기도의 가피는 그 끝이 없습니다. 걱정 말고 일단 기도하세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매개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안심정사는 가피담과 영험담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전국 각지에서 안심정사를 찾아 기도로 삶을 변화시킨 체험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더 유명세를 탔다. 안심정사 홈페이지에 가피담만을 게재하는 별도 게시판이 운영될 정도다. 게시판은 전국, 혹은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일상을 살아가는 불자들이 기도의 과정과 이로 인한 변화를 자발적으로 작성해 게재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영된다.

수많은 사연들은 무엇 하나 겹치는 내용이 없다. 각양각색 인간사가 가피담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또는 간절한 발원을 위해 안심정사를 찾은 불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 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열독률도 상당히 높다.

영험담 중에서도 특히 건강과 치병, 사업성공, 학업성취, 취업, 결혼에 대한 사례가 압도적이다. 세간에 발 딛고 살아가는 재가불자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고 성취를 발원하는 '소원'이기 때문이다.

도심사찰임에도 '기도발'로 입소문
전국 6개 도량·온라인서도 '주목'
구체적이고 확실한 기도법이 핵심
고통서 행복으로 운명바꾸는 기도

시작은 소원성취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발심해 자신의 마음자리가 바뀌면서 가족 모두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례도 수없이 많다. 간절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것만으로도 고민이 해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가피담은 불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웃종교를 믿다가 안심정사에서 소원을 성취한 뒤 불교로 개종했다는 체험담도 적지 않다.

교회집사로 활동했다는 A씨는 남편이 집 근처 연무대에서 법안 스님을 만난 후 안심정사 신도가 되면서 인연을 맺었다. 처음 3년간은 남편이 법회에 참석하는 동안 차에만 머물렀다. 동행은 했지만 개신교 신자로서 법회는 물론, 점심공양조차 하지 않았다. A씨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동안 항상 꿈자리가 뒤숭숭했기 때문에 밤을 싫어하고 무서워했다"며 "어느날 꿈에 돌아가신 친정아버님 산소가 나왔는데 주변에 부처님이 많이 서계셨다. 이를 계기로 법안 스님을 한번 뵀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법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점차 불공과 기도에도 참여했다. 안심정사의 여러 일들을 도맡아 봉사하면서 안심정사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 때쯤, 아들이 입대를 했다. 아들은 군대에서 병을 앓아 청력을 잃었다. 충격을 딛고 법안 스님과의 상담을 통해 산신각에서 '산왕대신' 정근을 시작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가물가물 아들의 뒷통수에 어떤 손이 지나가면서 하얀 옷자락이 나풀대는 듯한 모습을 봤다. 그리고 아들이 전화를 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청력이 기적처럼 돌아온 것이다. 이어서 딸과 시아버지, 조카까지 연이어 가피를 입었다.

"절에 다니느라 바쁜 저희들을 보고 주변에서 '절에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면서 농담도 해요. 그럴 때마다 ' 정말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뭐든 다 나오더라 '고 말하죠. 부처님의 은덕을 체험했고 은덕을 믿을 수 있도록 힘이 되주신 법안 스님 덕분에 인생이 정말 확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B씨는 척추협착증으로 고생하던 어머니를 기도를 통해 치유한 경험으로 눈길을 끌었다. B씨의 어머니는 노령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으로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고통이 컸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던 어느날, 어머니와 함께 안심정사에서 법안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약사여래불 정근기도'를 권했다. 매일 약사여래독경을 틀어놓고 생활했고 입으로도 쉼 없이 명호를 굴렸다. 그리고 어느순간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졌다.

B씨는 "신경치료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고 진단했던 의사도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며 "믿고 기도한 덕분에 어머니는 안심정사 일요법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C씨는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직장도 다니지 못할 만큼 피폐해진 상황에서, 지인의 소개로 안심정사를 찾았다. C씨는 "첫 만남에서 법안 스님께서 '왜 이제 왔냐' 고 하시며 〈지장경〉 49일 독송기도를 하라고 하셨다"며 "사실 믿지 않았지만 지인부부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나서준 덕에 새벽마다 절에 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3일째부터 약을 먹지 않아도 숨이 쉬어지더라"고 전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고, 슬럼프에 빠져있던 아들도 기도 중 현몽 후에 생각지도 못한 기회로 특기를 살려 취업에 성공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남편을 봤습니다. 생전 과일도매업을 했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씩 웃고 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요. 내가 49일 기도한 힘으로 이생에서의 습을 버리고 편히 떠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사업실패로 벼랑 끝에 내몰린 순간 〈지장경〉 기도를 시작해 기적처럼 회생하거나 합동천도재 봉행 이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대박'난 사례, 가족과의 오랜 불화가 재수불공 이후 우연한 계기로 눈 녹듯 해소되거나 대인기피·우울증을 기도로 극복한 사례, 시한부 선고를 받고 기도하던 중 현몽해 건강을 되찾은 사례까지. 1500여건에 달하는 가피담들이 때론 감동을, 때론 웃음을 전한다.

법안 스님은 "안심정사에 깃든 체험담들이 지금 현재 고통에 빠진 또다른 이들이 불연을 맺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꾸는 매개가 되길 바란다"며 "기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다보면 어느 순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단단해진 마음, 행복으로 향하는 인생의 방향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인재양성의 메카

안심불교학술원

안심불교학술원은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의 교화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대승불교 정통교리와 실용불교의식, 상담기법을 비롯한 체계적인 사찰경영 노하우를 교육하는 전문기관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 불교인재양성을 목표로, 안심정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지난 30년 간 응집된 포교노하우를 무상으로 공유합니다. 재가불자와 범종단 스님, 불교에 관심이 많은 비불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02)577-4557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18
홈페이지 | http://www.ansimacademy.com/

안심불교학술원 교과과정

구 분	과 목
사찰경영	사찰경영과 상담비법 사찰경영과 종무행정 세법과 사찰의 세무관리 사찰경영 사례연구 불교커뮤니케이션
불교의례	실용불교의식 불교의례의 구조와 이해
불교교학	대승불교교학체계 불교와 사회 바로보기 비교종교학 불교학 특강
명 상	명상과 심리상담
사찰교양	사찰예절 꽃꽂이 안심다례 서예 사찰음식

친환경적 공원 수목장으로 새 장례문화 열어

거제 신광사, 수목공원 문 열어

명부전에 옆 3000여 평 대형 규모
수목장 운영 쌍계사 이어 두 번째
친환경적 공원처럼 운영 새 모델
경내자리해 '혐오시설' 시각 없애

성낙두 경남지사장 snakdu@daum.net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 말사 거제 신광사(주지 선안)가 경내에 수목공원(수목장)을 열었다.

신광사는 11월 15일 경내 수목공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불교 임종의식과 장례문화를 새롭게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불교문화로서 수목장을 연다고 밝혔다. 아울러 늘어나는 묘지로 인해 훼손되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무덤이란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친환경적 공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신광사 회주 현근 스님은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화장을 한다. 하지만 수목장은 우리의 몸이 물과 불과 바람과 흙 등 4가지 요소로 이뤄진 것으로, 자연 본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며 "화장하는 것이나 수목장하는 것이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남는 뼈는 흙의 성분이라 가장 자연스럽게 돌려보내는 것이 수목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무와 자신의 몸을 흙 기운으로, 본래대로 돌려주는 과정이라 공해도 없어 가장 좋은 장례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지 선안 스님은 수목장이 죽음을 설명하고 불교적 윤회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도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장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선안 스님은 "먼저 영리목적이 아니다. 누구나 함께하는 공원과 같이 운영될 것이며 혐오시설이 아닌 도량 속의 일부분이 되도록 관리하고 제공할 것이다"며 "이런 의미에서 수목장이라 하지 않고 수목공원이라 부른다. 공원처럼 운영해 유가족들이 언제나 찾아와 고인을 추모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고 관상용 나무를 팔지 않는 곳은 신광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거제 신광사에 수목공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회주 현근 스님과 선안 스님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신광사 수목공원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허가한 두 번째 수목장으로, 신광사 명부전 옆에 위치하며 약 3천여 평의 대형 규모이다.

신광사는 2020년 8월 수목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목장 인허가를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2021년 5월 거제시에 종교단체 수목장을 신청했으며 7월에 이행통보를 받았다. 4개월간의 조성공사 기간을 거쳐 2021년 11월 3일 수목장 허가를 취득했다. 현재 조계종 수목장 운영 사찰은 하동 쌍계사와 거제 신광사 두 곳이다.

선안 스님은 "죽음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다. 마지막 임종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바른 장례문화를 불교가 새롭게 '문화'로 가꿔야 하는 과제이다"며 "수목장을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잡음이 없었고 원만히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 모범적으로 운영해 좋은 문화를 일구는 선구자로 자리 잡고자한다"고 말했다.

광명사, 지역주민 위한 자비나눔 실천

11월 21일 김장김치 등 전달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11월 21일 경내 대중공양실에서 '부산 금정구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광명사는 전달식에서 지역 내 다문화가정 및 복지관에 직접 담은 김장김치와 라면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주지 춘광 스님, 금정구불교연합회 회장 고담 스님, 백종헌 국회의원, 정미영 금정구청 구청장, 최봉환 금정구의회의장은 신도들과 함께 직접 김장 김치를 담갔으며 추운 겨울에 소외 이웃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들과 봉사에 앞장서 주신 신도들에게 감사한다"며 "오늘 광명사에서 직접 담근 김장김치로 모든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대한불교대승조계종 창종법회

11월 20일, 경주시 대원사서 개최
총본산 울산 마하사, 42개 사찰 등록



대한불교대승조계종(총무원장 석자운)이 11월 20일 경주시 내남면 대원사에서 '(사)대한불교대승조계종 창종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창종법회에는 종정 석원정 스님, 총무원장 석자운 스님, 부산 금화사 남월 스님, 부산 미타사 선재 스님, 승정원장 석보경, 원로의장 석선학, 종회의장 석월암 외 종단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종정 석원정 스님은 "마음의 6근은 마음도둑이다"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한 것이 모두 본인이기에 불법을 공부를 해서 6근과 12처를 깨우치고 화두를 지니고 성불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석자운 스님은 "연꽃은 불교의 진리를 상징한다. 진흙 속에서 솟아나와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트리듯이 대한불교대승조계종 또한 그동안 많은 산고(產苦)의 아픔 속에서 오늘 이 영광된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비록 본 종단이 아직은 미약한 힘으로 출발하지만 앞으로 끝없는 자성의 노력으로 내부를 정화하고 사회적 활동으로 불교 본연의 존재성을 구현해 나아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부산 금화사 남월 스님은 축사를 통해 "어두운 곳에 있는 보배는 등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듯이 남을 위해 불법을 설하지 않으면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알 수가 없다"며 "창종을 축하드리며 무량한 성불잡초의 근원지가 되고 호법성신의 등신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승조계종은 총본산인 울산 마하사를 중심으로 42개 사찰이 등록했으며 현재 추가 사암등록을 받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신뇨엔, 사랑의 김장김치 담기 후원

주관 봉사회에 성금 300만 원 전달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이사 정경) 부산정사가 어려운 지역민을 위한 보살행을 이어갔다. 신뇨엔 부산정사는 11월 23일 부산 연제구청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의 주관단체인 연제구 여성자원봉사회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정경 국원을 비롯한 대중은 사랑의 김장 1500포기 담기 봉사에도 동참했다.

정경 국원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사랑의 김장김치 담기 행사를 통해 이웃과 따뜻함을 같이 나누며, 서로가 위로받는 좋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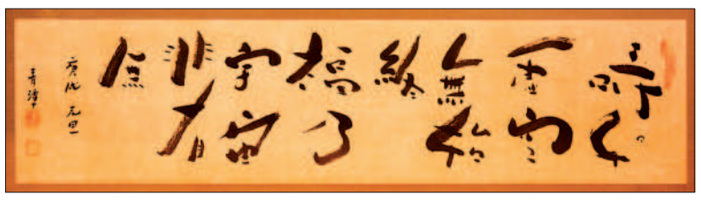


이성문 연제구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잊지 않고 한결같이 나눔을 실천해준 신뇨엔에 감사하다"며 "신뇨엔은 지역을 위해 8년 동안 꾸준히 후원해준 단체로 알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뇨엔은 2014년 부산정사 건립 전인 2012년부터 지역을 위한 보살행을 실천했다. 신뇨엔은 불우이웃돕기, 봉축행사 지원금 및 장학금 후원 등 나눔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한·일불교문화 교류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청담선사 열반 50주년 특별전 '인욕 佛 청담'

옥천사성보博 내년 2월 3일까지
청담선사 유묵 등 30여 점 전시


청담선사 유묵.

옥천사성보박물관(관장 종성)은 청담선사 열반 50주년을 맞아 11월 24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2층 전시실에서 특별전 '인욕 佛 청담'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청담선사의 법향을 느낄 수 있는 유묵전과 사진전으로, 연화산 옥천사를 포함하여 삼각산 도선사, 수원 봉녕사, 지리산 화엄사가 소장한 청담선사의 유묵 및 기록자료 30여 점을 선보인다. 청담선사의 불(佛)자, 백운정사 편액, 이차돈 순교도, 꿈의 인생, 대도무문 등 처음으로 공개되는 다양한 작품들도 선보인다.

청담선사의 선필은 초월적인 정신성에 있으며, 사회개혁과 정신혁명을 동시에 실천해낸 구도자이자 혁명가였던 선사의 수행의 깊이가 잘 녹아있다. 일상과 예술,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물아일체의 살아있는 예술로서 이번 전시를 통해 청담선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청담선사(1902~1971)는 인욕보살로서 봉암사결사 및 불교정화운동을 통해 청정승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초석을 다지며 역경사업과 포교 그리고 도제양성이라는 3대 과제를 통해 조계종단에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한국 불교의 선지식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서장사 개금불사·동안거 입재



울산 서장사(주지 불성)가 11월 19일 대웅전에서 개금불사 및 동안거 수행 입재식을 봉행했다.

서장사는 석가여래불,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개금불사를 진행하며 동안거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2시에 경전 독송 및 명상으로 수행을 돕는다. 서장사는 이번 개금불사 및 동안거 수행을 통해 불자들이 공덕과 수행 성장 두 가지를 함께 성취하도록 돕는다.

주지 불성 스님은 "개금은 부처님의 낡은 옷을 새롭게 갈아 입혀드리는 의식이면서 불보살님을 예경하고 따르기 위해 불제자가 서원하며 올리는 공양이다"며 "그러나 가장 큰 불사는 자신의 마음의 번뇌를 소멸해 본래 부처를 뵙는 것이다. 동안거 기간 동안 정진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성룡사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공동 주최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학술대회

대한불교천태종 성룡사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불교 유 · 무형문화재가 한국의 전통문화 속에 나타나는 의미와 가치를 규명하고 포교의 활용성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2021. 12. 25(토) 9:30 ~ 18:00시

장소 서울 성룡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7길 30
종무소 전화 : 02)336-2052 팩스 : 02)323-2607

※ 이 학술대회는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봉행되며, 학술대회 전체 진행과정은 'YouTube 세운스님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주최 성룡사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후원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 · 금강신문 · 법보신문 · 불교신문 · 현대불교신문 · 불교방송

■ 학술대회 진행 순서

시 간	행 사	내 용	사 회
09:30	등록	접수 및 방명록 작성	
10:00	개회식	삼귀의 및 반야심경 봉독 환영사 : 김세운 (성룡사주지) 개회사 : 권기현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축 사 사홍서원 기념촬영	이필원 (동국대)
10:30	제1발표	주 제 : 불교문화의 사회적 · 문화적 가치 인식과 그 의미 발표자 : 류호철 (안양대) 논평자 : 장용철 (안양대)	
11:15	제2발표	주 제 : 천태사상의 불교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활용 발표자 : 이병욱 (고려대) 논평자 : 정상교 (금강대)	
12:00	오 찬		
13:00	제3발표	주 제 : 실담장의 한국 정신문화적 의의와 적용 발표자 : 강대현 (위덕대) 논평자 : 이석환 (동국대)	지미령 (한예종)
13:50	제4발표	주 제 : 연등문화축제의 문화재적 가치와 포교활용 발표자 : 성청환 (동국대) 논평자 : 이재수 (동국대)	
14:40	제5발표	주 제 : 불교 의례 의식과 재난 극복 발표자 : 홍태한 (전북대) 논평자 : 최명철 (위덕대)	
14:40	Break Time		
15:00	제6발표	주 제 : 정신문화로서 신행 · 수행의 의미와 치유 발표자 : 오용석 (원광대) 논평자 : 염중섭 (자현, 중앙승가대)	김 희 (신라대)
16:50	종합토론	좌장 :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16:50	폐회		



광주 빛고을포교원 문 열다

화엄사, 11월 20일 광주 광산구 현장서 개원식

광주 광산구 상업지구 위치
덕문 스님 "시대변화 반영"
개원식 500여 명 참석, 성황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는 11월 20일 광산구 현장에서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광주지역 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사찰이 문을 열었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11월 20일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 을 개원하고, 열악한 광산구 지역 포교에 나섰다.

이날 개원한 빛고을포교원은 하남3지구 아파트 등 주거전용 단지와 하남산업공단이 경계로 있는 광산구의 신흥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대형 쇼핑몰의 입점이 예정된 중심지다.

도심포교를 염원하는 이날 개원식에는 화엄사 조실 명선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화엄사 말사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과 광주지역 100여 스님들이 참여했다. 또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송광사 자공 스님, 백양사 무공 스님, 대흥사 법상 스님 등 스님들과 500여 불자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명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은 참으로 환희심이 나고 기쁜 날이다. 빛고을포교원은 앞으로 광주시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진하는 도량이 될 것"이라며 "법당이 하나 생기면 복전이 생기는 것이다. 스님이나 신도들이 기도를 통해 '복을 만드는 전당' 이 되어 앞으로 광주 발전을 이끄는 도량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덕문 스님은 개원 인사말에서 "빛고을 광주에 화엄세상 법음을 전할 '빛고을포교원' 을 개원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화엄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문화재 보고이기도 하지만 현재 변화한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 도심포교당을 세우게 됐다. 불교 가치와 사상을 현대문화로 재해석하는 활동을 광주 각 가정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엄사 도심포교는 11월 4일 부산 해동용궁사가 화엄사 말사로 등록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화엄사는 향후 순천, 여수 등 전남 중부권 도시에 포교당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빛고을포교원은 30여 년 전 종원 스님 원력으로 광주 서구 금호동 토지 매입을 시작했지만 불사는 이어지지 못했다. 2019년 본격적인 개원불사가 시작돼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당당한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전체 720평의 공간에는 전통미를 살린 현대적 공간이 구성됐다. 지하 147평 공간에는 카페처럼 차를 마실 수 있는 입식 공양실과 대청마루, 잘 꾸며진 화계마당이 자리한다. 1층은 종무소와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삼존불과 삼천불을 모신 대웅전, 삼성각, 신도회 사무실 등이 150평 규모의 2층에 마련됐다.

해동용궁사, 상생 도량으로 성장

지역 독거 어르신 및 그룹홈 아동 위해 쌀 전달



해동용궁사가 11월 24일 경내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봉행했다.

화엄사 말사 해동용궁사(주지 연규)가 이웃을 위한 나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동용궁사는 11월 24일 경내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봉행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 500kg, 전북지역본부 500kg 등 총 1000kg으로 그룹홈에 위탁된 아동들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전달됐다.

전달식에는 해동용궁사 성오 스님, 안정하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장, 김경환 전북지역본부장, 이현민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 과장, 강양숙 부산 그룹홈 지원센터 팀장 등이 참석했다.

해동용궁사 주지 연규 스님은 "위기가정 어린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따뜻한 겨울나기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해동용궁사는 주지 연규 스님 취임 후 나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6일에는 기장군 동암마을 노인회관에서 독거어르신을 위한 백미 600kg을 전달했다. 연말을 맞아 부산시와 기장군 소외 이웃에게도 쌀을 전달하기 위해 보시를 받고 있다. 주지 연규 스님은 '상생' 을 사찰 운영 중심으로 삼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마이산에 펼쳐진 불교전통예술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전북 무형문화재 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가 11월 18일 제2회 태고영산문화재전을 봉행했다. 마이산 탑사 특별무대에서 불교전통의식으로 봉행된 이날 행사는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이 동참해 대령, 관욕에 이어 천수바라, 사다라니로 이어지는 상주권공, 영산작법보유자 영산스님의 도량게 작법, 범패 보유자 혜정스님의 화청, 종사영반, 성흥사 주지 보위스님의 승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원암당 혜명 대종사 49재 추모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에 이어 헌화, 추모사, 팝페라 그룹 '카르페디엠' 의 추모공연, 살풀이, 지전 춤, 극락무, 가수 김승환의 추모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마이산 탑사의 천지탑을 배경으로 설치된 특별무대의 상단은 영산작법 지화장엄 명인 도홍 스님이 49일간 제작한 보상게, 돈(금,은)전,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 국화 등 50여종 4900송이의 지화로 장엄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원암,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및 봉안

대한불교승가공동회 증명, 사리탑 제막 및 법요


대한불교승가공동회가 11월 14일 울산 대원암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및 사리 봉안식' 을 봉행했다.

울산 대운산 대원암(회주 도안)은 11월 4일 '석가세존 진신사리 이운 및 5층 사리탑 제막식' 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불교승가공동회가 증명하며 범패의식을 전담했고, 대한불교 무량회와 대한불교 일불회 등 스님들과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대원암 회주 도안 스님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이 도량에 나투심을 찬탄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대운산하 대원암에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식 및 사리탑을 건립하게 된 것을 무한한 부처님 가피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승가공동회 회장 도연 스님은 "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참된 보살행자가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원암에 봉안한 진신사리는 2007년에 스리랑카 D.B. 문화부장관이 밀양 사천왕사 주지 대풍 스님에게 전달한 진신사리이다. 당시 대풍 스님은 진신사리 25과를 받았으며 그 가운데 9과를 분과해 대원암에 이운 봉안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창건 1212주년을 기리며

영천 은해사 11월 21일 개산대재



영천 은해사(주지직무대행 혜안)가 11월 21일 템플스테이관 육화원 앞 특설무대에서 창건 1212주년 은해사 개산대재 법요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산대재 법요식에는 은해사 조실 법타 스님과 회주 돈명 스님, BBS대구불교방송사장 법일 스님, 은해사 주지직무대행 혜안 스님 및 정홍규 천주교대구대교구 원로사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최기문 영천시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박봉규 은해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도솔암 7차 지장기도 반환점 돌아

1029일간 천도재 중 490일 천도



해동제일 지장성지 고창 선운사 도솔암이 제7차 1029일 기도 중 490일째가 되는 10번째 기도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 도솔암(감원 성본)은 11월 21일 도솔암 대웅전 앞 마당에서 도솔암을 찾은 불자들과 관광객들이 동참한 가운데 1029일의 7차 지장기도 중 10번째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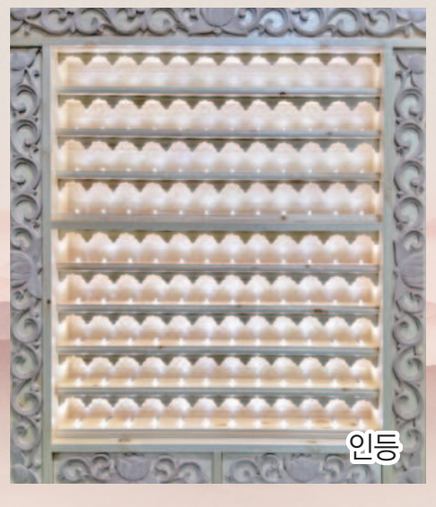
도솔암의 1029일 지장기도는 2023년 5월 20일까지 1029일간 매주 일요일마다 천도재를 봉행하고 매 49일마다 21번의 천도재를 봉행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사용품 전문기업
금륜사
30년 축척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애프터 서비스로
맞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수미단 · 닫집

영단

윤장대 · 인등

인등

인등

인등 시공사례

명조체와 원고지 기원 '대장경'

日'황벽판 대장경' 재주목

명나라의 글씨 '명조체' 양각
400자 원고지 토대로 추정돼
경판보존 모금프로젝트 진행

박영빈 객원기자

서적이나 문서 등에 주로 쓰이는 '명조체' 와 글쓰기의 기본으로 이용되는 원고지의 기원은 일본의 사찰에 있었다. 17세기 일본에서 개판된 '황벽판 대장경' 과 경판을 보존하기 위한 '테츠겐 프로젝트' 에 대해, 지난 11월 19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이 특별 보도했다.

교토의 호조인(寶蔵院)에 소장된 〈황벽판 대장경〉은 일본에서는 세 번째로 개판된 목판대장경이다. 1669년 일본의 테츠겐 도코(鐵眼道光)선사의 발원으로 시작된 개판불사는 테츠겐 선사의 스승이었던 은원 융기(隱元隆琦)선사가 명에서 가져온 7334권의 〈가흥대장경〉을 저본으로 판각됐다. 17년간 이어진 개판불사는 테츠겐 선사 개인의 원력으로 모두 진행됐다. 모든 불사비용을 테츠겐 선사가 직접 일본 전국을 돌며 모았다고 전한다. 당시의 화폐로 6만 냥, 현재 가치로 18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호조인의 수장고에서 경판을 들어보이는 스님. 사진출처=아사히신문

테츠겐 선사는 개판불사 중에도 가장 중요한 중생구제를 잊지 않았다. 호조인의 주지 모리이 코도스님은 "개판불사 중, 사찰이 있는 지역에 2차례 홍수와 기근이 들었다. 테츠겐 선사는 당시 불사금을 풀어 어려운 대중들을 구호했다. 2번을 멀리 돌아 완성된 소중한 대장경" 이라고 말했다.

〈황벽판 대장경〉은 개판된 이래 수차례 인쇄되고 일본 전국에 보급되면서 일본불교의 교학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완성된 경판은 너비82cm, 폭 26cm로 모두 산벚나무로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양면에 책의 한 면이 새겨지는 경판들과 달리, 한 편에 2면씩 총 4면의 내용이 새겨져 있어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다. 경판들의 상태는 대부분 양호하여 지금도 전문장인들의 손에 의해 인쇄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경판에 쓰인 글씨체가 타 지역의 경판이나 일반 서적의 기본자체로 널리 이용되면서 근대에 이르러서는 활자로까지 만들어졌다. 〈황벽판 대장경〉의 글씨체는 저본인은 가흥대장경의 글씨체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명나라 때의 글씨체라는 뜻인 '명조체' 로 불렸다. 이것이 현대 명조체의 기원이다. 또 각 면은 20자씩 10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역시 명조체와 함께 400자 원고지의 기원이 된 것으로 전한다.

호조인은 경판의 보존을 위해 1961년 철근 콘크리트로 수장고를 신축하고 경판을 이운했으나, 현재 시설의 노후화와 온습도 조절 등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경판들을 서로 겹쳐 쌓아 보관하는 현행 보관법으로는 경판 자체의 뒤틀림과 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존하는 경판은 6만 장 이상이며,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4만 8275장이다.

이에 호조인 측은 2020년부터 경판의 보존을 위한 모금활동인 '테츠겐 프로젝트' 를 시작했다. 호조인은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곤 하지만, 먼 미래에 이 대장경들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아이들 공부방으로 변신한 사찰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

불자 감소 따라 유휴 공간제공
교육 공간 활용에 만족도 상승
아동·청소년포교 자연히 연결

불교인구의 감소에 따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일본 불교, 법회와 기도시간을 제외하곤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 법당과 전각들을 주민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개방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일본의 '교토신문' 은 열린공간으로 제공되는 사찰들에 대해 보도했다.

올해 4월 사찰의 본당을 공부방으로 개방한 정토진종 메이카쿠지(明覺寺)의 주지 하시라모토 쥰쿄 스님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신도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에 있어서 절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찰을 개방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쥰쿄 스님은 10여 년전 주지로 취임하면서부터 사찰을 개방할 생각을 해왔다고 전했다. 스님은 "옛날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육시설인 '테라코야(寺子屋)' 가 각 사찰마다 있었다. 사찰은 학습과 놀이의 장소"라며 사찰을 공부방으로 개방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메이카쿠지는 한 학원 프랜차이즈의 공부방으로 등록되어 매일같이 아이들이 드나들며 활기가 넘치고 있다. 쥰쿄 스님은 "도반스님들이나, 타 종단의 스님들로부터도 '어떻게 열 수 있는가' 라는 문의가 들어오는 등, 교계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사찰의 본당에 모여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 사진출처=교토신문

메이카쿠지와 함께 같은 학원의 공부방으로 본당을 개방한 교토의 임제종 사찰인 쥬쇼인(壽聖院)의 주지 니시다 에이테츠 스님도 "가벼운 마음으로 절에 올 수 없다면, 정말 절이 필요할 때 문을 두드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아이들이 절에 드나드는 것으로, 부모나 보호자인 어른들도 편하게 절에 올 수 있게 된다"며 사찰을 개방한 이유를 전했다. 사찰과 함께 공부방을 운영 중인 학원 측은 "조용하고 청결한 사찰의 환경이 학생들의 집중도 향상에도 뛰어나다. 또 사람이 모이는 사찰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문화교육적인 면에도 도움이 된다"며 장점을 설명했다.

현재 교토 시내에서는 공부방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육이나 공용사무실로 사찰을 개방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찰을 개방한 한 스님은 "공간대여료나 사용료 등으로 사찰의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의 손길을 타면서 사찰의 유지에도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 흐름에 맞춰 종단 차원에서 종단의 시설을 개방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정토진종 오타니(大谷)파는 교토시내에 종단이 소유한 회관을 공부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종단에 소속된 타 지역의 사찰이나 회관을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오타니파 측은 "어린이 법회 등,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불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단의 문도에 한정되고 있었다. 이번 기회로 더 많은 대중들에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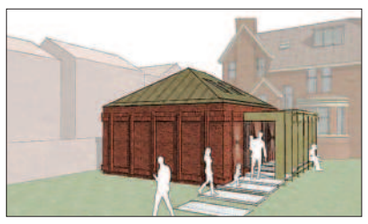
방공호, 불교 명상 공간으로 탈바꿈

영국 레딩 자치구, 카담파 명상센터 인근 방공호 개발 승인

영국 남동부 레딩(Reading) 지역에 위치한 한 방공호가 불교 명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영국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구의회는 현재 카담파 명상센터 인근에 위치한 방공소를 명상실로 사용 변경하고, 인근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의 '카담파 명상센터 운영 계획' 을 승인했다. 기존 명상실은 강사들을 위한 사무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된다.

카담파 명상센터는 이 지역에 본부를 둔 서양 불교 명상의 중심지로 꼽힌다. 해당 매체는 "지난 15년 간 지역민들에게 휴식과 평화를 선사하며 심리적 피난처 역할을 했다"며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주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발 계획의 주요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명상 수업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한편, 최첨단 시설을 도입하기 위함이다. 약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화장실, 케이터링, 정원 공간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출처=willhealthy.com

카담파 명상센터 관계자들은 "이번 개발로써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 약자들을 위한 독서 커뮤니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개발 계획도 중요하지만 인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거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예민하고 신중하게 설계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자치구의회 도시계획부서는 같은 날 카버샴, 타일허스트, 콜리 지역에 대해 주거지역 계획 변경을 추가로 승인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인도 춤추는 스님들 SNS에서 화제

비구 스님들 넷플릭스 영화 수록곡 맞춰 춤추는 영상 공개


사진출처=monks_himalayan 인스타그램

최근 방영된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로 인해 국내에서 '스트레트 댄스'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인도 승려들이 단체로 춤을 추는 영상이 SNS에 유포돼 큰 화제다.

인도 매체 리퍼블릭월드(republic world)는 지난 11월 22일(현지시간) "연일 인터넷에는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여러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려 자신의 춤과 노래 등 다양한 끼를 분출한다"며 "그중에서도 최근 인도 영화 수르야반쉬(Sooryavanshi, 2021)의 수록곡 에일라 르 에일라(Aila Re Aila)에 맞춰 춤을 춘 승려들의 영상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르야반쉬는 인도 영화 '모범경찰 싱감' 으로 유명한 로힛 쉐티 감독의 액션대작으로, '넷플릭스' 를 통해 개봉했다.

해당 영상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사용자 'Monks_himalayan' 이 자신의 계정에 게재하며 대중에 알려졌다. 영상에서 승려들은 에일라 르 에일라 노래에 맞춰 군무를 춘다. 전문 댄서들 못지않은 리듬감과 쇼맨십이 대중의 눈을 사로잡아 1만 5천 명 가량이 '좋아요' 를 눌렀다.

네티즌들은 댓글에서 "에너지틱한 댄스다" "스님들이지만 너무 대단하다" "내가 아는 스님들 중 가장 춤을 잘 춘다"며 찬사를 보냈다.

박정현 객원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4~11/3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스님	불교신문사
2	성자와 범부가 함께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7	선불교의 뿌리	김성철	오타쿠
3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현진 스님	불광출판사	8	딱돌 해설서	중암선해	금빛소리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스님	정토	9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5	죽기전에 꼭 읽어야할 법화경	손종호	운주사	10	진리와 자유의 길	법정 스님	자식을만드는지식

책세상

붓다 원음인 '근본불교'를 말하다



근본불교
이중표 지음
불광 펴냄/1만7천원



근본불교, 잘 정리된 수행 체계 저자, 놓치기 쉬운 맥락 짚어줘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사진 오른쪽>는 '근본불교(Fundamental Buddhism)'와 대승불교의 연결고리를 연구해 온 한국 불교학계의 석학이다. 대승불교 전통인 한국에서 〈아함경(阿含經)〉 〈니까야〉가 소승, 남방불교 경전으로 치부돼 주목받지 못한 시기부터 그는 이 분야 연구에 매진해 왔다. 이유는 명쾌하다. 〈아함경〉과 〈니까야〉를 모든 불교의 뿌리인 '근본불교'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불교 최초기, 붓다의 원음이 가장 잘 간직된 근본경전 〈아함경〉 〈니까야〉의 바른 이해는 곧 대승불교의 바른 이해로 이어진다. 대승불교 전통인 한국에서 이 분야가 더욱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때 '원시불교', 또는 '초기불교'라고도 불린 이 분야에 관해서 이중표 명예교수는 분명히 말한다. "근본경전을 통해 전승되는 붓다의 가르침을 모든 불교의 근본이라는 의미에서 '근본불교'라고 불러야 한다."

저자의 바람대로 이 책 〈근본불교〉는 불교의 원류를 찾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중도(中道)·연기(緣起)·열반(涅槃) 등 불교 핵심 교리를 왜곡 없이 붓다의 원음으로 통찰할 수 있다.

붓다가 살았던 시대는 도처가 죽음이었다. 질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전쟁으로 죽고, 차별받아 죽었다. 짐승과 곤충 같은 생물까지 시야를 넓히면 상황은 더 참담하다. 대부분 살이 찢겨 잡아먹히며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생명 있는 존재가 천수를 누린다는 것은 기적이었다.

사방은 죽음으로 넘쳐나는데 본능은 끊임없이 삶을 추구한다. 살기 위해 두려움 속에서 이리저리 날뛰어 보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붓다는 출가했다.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의 괴로움을 너무나도 잘 안 붓다는 남의 괴로움도 잘 알았다. 계급, 인종에 따라 고통의 강도가 다를 리 없다.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 것 따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체감했을 것이다. 붓다 당시에도 인도는 신들의 나라였다. 이름을 모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신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신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돕지 않는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 예상컨대 신들을 부정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다. 정말 신은 있을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스스로 되뇌었겠는가.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핵심은 '마음'이었다. 마음의 껍질을 벗기고 잘게 쪼개보았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고도의 집중력과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음식만 있다면 한계비용은 제로였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죽을 각오도 되어있다.

드디어 그는 깨달았다. 마음속에는 자아(自我)라는 생각, 분별심이 사라졌다. 그를 옭아매던 번뇌는 적멸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리라 결심했다. 대상은 무차별이었다. 인종, 성별, 계급을 따지지 않았다. 태반이 글씨조차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중생들을 대상으로 붓다는 대화하기를 꺼리지 않았다. 끊임없이 대화했다. 상대를 살피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내심 같은 건 없었다. 참고 견디는 인내라는 아량은 '내가 인내하고 있다'라는 번뇌에 빠진 자들이나 떠올리는 생각이다. 붓다는 그렇게 45년 동안 차별 없이 자신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만나주었다. 근본경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담백하고, 뼈를 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승불교가 성립하고 중관(中觀), 유식(唯識) 같은 정밀한 교학 체계를 보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붓다가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근본불교를 접하면 이러한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불교의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붓다는 그 방법을 잘 정리된 수행 체계로 제시했다. 수행의 대상은 본인의 마음이다. 마음에 관해서는 지겨울 만큼 많은 비유와 설법으로 제자와 중생들에게 설명했다. 이 내용이 원음으로 담긴 것인 근본경전이고, 이를 바탕으로 삼은 것이 바로 '근본불교'이다. 이 맥락을 놓치면 근본불교는 물론 대승불교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 책은 불교를 공부할 때 놓치기 쉬운 이러한 맥락을 정확히 짚어준다. 저자의 30년 불교 내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붓다의 애절함이 가슴에 와 닿는다.

불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정밀한 답

초기불교와 근본불교는 같을까 다를까? '근본불교'는 석가모니 붓다 가르침이 불교 역사서 단순히 초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전 역사를 통해서 전개된 모든 불교의 근본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불교는 언제, 무엇이 왜 곡되었는가? 붓다 입멸 이후 여러 교단으로 나뉘면서 가르침이 달라졌다. 그 과정에서 대승불교는 왜곡된 불교 이해를 바로잡고, 불교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났다. 근본불교를 통해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을 잘 계승하여 발전시킨 대승사상을 확인한다.

무아·중도·연기·열반의 원류 좇다

불교 최초기 내용이 담긴 〈아함경〉과 〈니까야〉는 불교의 '근본경전'이다. 근본경전을 통해 전승되는 붓다의 가르침으로, 중도·연기·열반 등 불교 핵심 교리를 왜곡 없이 붓다의 원음으로 통찰한다. 붓다는 형이상학적 문제에 정말 무관심했을까? 붓다는 세계의 유한성과 무한성, 영혼의 존재 유무 등에 대해 침묵했다. 이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붓다가 형이상학적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근본경전을 면밀히 살펴 붓다의 침묵은 중도(中道)를 드러낸 것으로, 불교 이해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저자 **이중표 명예교수**는?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서 불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정년 후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소장, 범한철학회 회장,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불교 신행 단체인 '붓다나라'를 설립하여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외도가 이야기하는 '일체는 무상하다'는 말은 '모든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존재하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이고, 붓다가 이야기하는 '일체는 무상하다'는 말은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므로 잠시라도 지속하고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말하는 존재는 '인식된 것'이다. 우리가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보이면 있다고 말하고, 들리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존재의 근원은 인식이다."

"근본불교의 교리는, 12입처(十二入處)는 18계(十八界)로 발전하고, 18계는 5온(五蘊)로 발전하며, 5온은 12연기(十二緣起)로 발전한다. 이와 같이 불교의 사상적 특징으로 이야기되는 연기설은 12입처에서 시작되어 12연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가 생사의 세계에서 윤회하는 것은 식(識)이 사라지지 않고 머물면서 커감으로써 '나'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식은 이렇게 생사윤회의 근본이다. 불교에서 윤회의 주체를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식이라는 존재가 죽지 않고 생사윤회를 거듭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불교를 오해하는 것은 이렇게 식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화엄철학으로 해석한 사찰 벽화 순례기"



사유를 쏟아, 붓다
강호진 지음
철수와 영희 펴냄
1만8천원

이 책은 흥국사 범어사 보광사 선운사, 통도사 등에 있는 사찰 벽화를 화엄 철학으로 살펴본 '그림으로 보고 소설처럼 읽는' 24가지 불교철학 이야기를 담았다.

한국 사찰 벽화는 불교적 가르침을 담은 동시에 그 이외의 것들까지 포용하는 거대한 문화적 용광로이다. 도교와 유교, 그리고 〈서유기〉와 〈삼국지〉 등의 고전이 사찰 벽화 속에서 날줄과 씨줄처럼 교차해 독특한 한국문화의 무늬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사찰 벽화가 지닌 잡스러움의 미학을 가장 온전하고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의 화엄철학이다. 화엄철학은 들판에 핀 꽃들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아 하나의 거대한 연화장세계로 펼쳐내는 불교교학의 정점으로 흔히 잡(雜)화엄이란 말로 불린다. 화엄은 잡스럽다는 말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유일한 불교사상인 것이다.

화엄철학은 고독한 개별 존재자 사이의 근원적 연관성과 연대의 불가피성을 꿰뚫는 통찰(多卽一)인 동시에 전체적 질서 속에서 함몰되어가는 존재자의 개성과 자유를 회복시키는 실천(一卽多)을 담고 있는 원융(圓融)의 철학이다. 따라서 화엄의 인식론은 근대적 학문체계 속에서 분리되어버린 불교 수행과 불교철학, 그리고 불교미술을 하나로 통합해서 읽어낼 수 있는 도구이자, 호교론과 종교적 폐쇄성을 벗어나 존재 각각의 개성과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실천적 기반으로서 역할도 한다.

불교 도상학 넘어 일상에 맞닿은 사유와 비판

이 책은 화엄의 사상을 기반으로 사찰 벽화를 단순히 도상학적으로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과 현실에 대한 해석학으로 나아가려 애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어와 깨달음의 단절, 앎과 실천의 분리, 종교적 배타성, 종교계 내의 남성우월주의, 타자에 대한 수용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다. 나아가 불교계나 학계에서 그동안 통용되었던 권위적 해석들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독자들에게 드넓은 이해의 지평으로 나아가길 권유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 **강호진**은?

부산에서 태어나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했다. 불교와의 인연은 3천배를 하고 성철 스님에게 일각(一角)이란 불명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오직 일체중생을 위해서 살라'는 성철스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지금껏 별달리 일체중생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 저서로는 〈한 방울의 물을 마르지 않게 하는 법〉 〈10대와 통하는 사찰 벽화 이야기〉 등이 있다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 빙의치유 , 천도 / 전문상담 합니다! ▣ 신기운 제거및 차단, 벗어나기 최고! 전문상담 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악몽자주꿈,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빙의천도. 신기운 다스림은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 올바른 신심(信心), 부처님 법에 대한 확고한 법력(法力)을 갖추어 정법(正法)으로 영가 중생 제도 원력(願力)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부감’과 ‘시점’ 미학 山景에 더해져

이종송 초대전 ‘부감시점(俯瞰時點)’

공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12월 18일까지

‘Mountain in Motion’ 시리즈 30여 점

흙바른 캔버스 천연 안료 흙벽화 기법

동 · 서양, 전통 · 현대 등 경계 허물어

6년 동안 전국 고찰 돌며 사찰 스케치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공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3층에서 12월 18일까지 43번째 개인전을 여는 이종송(건국대 미대 교수) 화가가 이번에 전시할 그림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Mountain in Motion(움직이는 산), 화가 이종송의 30년 테마이다. 그가 또 한 번, 자신의 산으로 초대한다. 이종송 화가는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공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3층에서 초대전 ‘부감시점(俯瞰時點)’을 개최한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동안 그려왔던 ‘산’에 ‘부감(俯瞰)’이라는 ‘시점(時點)’의 미학을 더했다. 오대산 비로봉에서 현실과 상상의 힘을 더해 바라본 설악산 대청봉 등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흙벽화기법에 천연안료’

이종송의 ‘산’은 많은 것들을 품고 있다. 많은 것들이 들어와 쌓였다. 이 작가는 30년 동안 ‘이종송의 산’으로 많은 것들을 불러들였다. 그렇게 이종송의 산으로 들어와 쌓인 유무형의 미학적 모색들은 그의 그림의 출발점인 벽화의 체계처럼 걷어낼 때 드러날 수 있는 쌓임의 미학을 전개하고 있다.

“저는 재료적인 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재료인 종이나 캔버스 말고 내 작업을 특화시킬 수 있는 형식을 찾던 중에 가장 오래된 회화기법이 무얼까 생각했죠. 그것이 서양의 프레스코, 그리고 동양의 사찰 벽화를 포함한 고대 벽화 기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종송 그림의 시작은 ‘벽화’였다. 정확히 말하면 ‘흙벽화 기법’에서 시작됐다. 이 작가의 작품 대부분은 ‘흙벽화기법에 천연안료’이다. 그의 선과 점, 색채, 생각과 움직임은 흙을 바른 캔버스에서 완성된다. 지금은 원형에서 진화하고 변화된 자신만의 독특한 벽화기법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그의 그림의 뼈대가 된 것은 사찰의 벽화다. 당연히 이 작가는 사찰의 벽화와 가까워야 했고, 사찰과 가까워졌다. 이종송의 ‘흙벽화기법에 천연안료’는 무위사의 금당벽화를 비롯한 우리 고찰의 벽화에서 배운 것이다.

이 작가는 2000년 대 중반부터 6년 동안 시인 유명종, 사진가 전성영과 함께 전국 사찰을 여행했다. 6년 동안의 기록은 〈남자의 여행〉으로 출간됐고,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찰벽화 관련 작업을 해왔던 이 작가는 흙벽화기법을 이용한 ‘움직이는 산’ 시리즈를 선보였다. 영주 부석사, 강진 무위사, 여수 신륵사 등 주관적 해석을 통해 다양한 시점으로 대상을 바라보며 자연과 사람, 동물들을 함께 담아낸 작품 20여 점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다.

Mountain in Motion

그동안 이종송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사실과 추상 등 서로 마주보는 요소들의 경계를 허물면서 보이는 풍경의 단순한 재현이 아닌 풍경을 대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주관적 경험에 의한 풍경을 그려왔다.

Mountain in Motion, 가장 먼저 그의 산을 움직인 것은 바람이다. 움직이는 산의 시점에 의한 동적인 표현의 산 그림에 바람이라는 요소가 추가되어 다른 느낌의 풍경이 그려졌다. 제주의 바람을 맞으며 오름의 풀들과 나무들, 바람에 의한 동적인 표현을 볼 수 있다.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다. 이 작가는 그것을 자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본다. 이종송의 산은 이러한 에너지가 흐르는 산이다. 그렇게 바람이 흔들어놓은 산은 춤을 추기 시작한다. 산의 뼈대와 살은 숲이다. 거시적 구성의 거대산수에서 숲의 나무로 집중되어 나무가 춤을 추는 듯한 형태가 등장한다. 나무가 스스로 움직일 리 없다. 나무를 흔들고 숲을 움직인 것은 바람이다.

“언젠가 저녁 무렵에 오대산 상원사에 갔는데, 스님께서 저녁예불 타종을 시작했어요. 타종하는 그 순간에 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고,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산을 흔들었어요. 산이 움직였어요.”

이종송의 산에는 ‘소리’가 있다. 그 소리는 ‘음악’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종송의 그림(산)에는 음악이 들어 있다. 절정은 2019년의 ‘Mountain in Motion-Concerto’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을 통한 청각적 경험이 그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산으로 들어온 바다의 블루

이종송의 그림은 미술적 규칙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종송의 그림에 이름을 짓기가 쉽지 않다. 동양화? 서양화? 전통? 현대? 추상? 사실? 등 그의 그림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디에나 속한다. 이를 위해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점과 선적인 표현을 이용한다. 공간과 시점도 자유롭다. 필요에 따라서 ‘투시’도 자유롭게 적용한다. 오직 대상의 본질에 집중한다. 이 작가는 현장에서 대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감동’을 꼽는다. 작가가 풍경을 보고 느끼는 감동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관람자와 소통한다. 바람을 느끼고 공간을 느낀다. 극도의 긴장감과 느슨함이 풍경에 담긴다. 이런 요소들을 흙이라는 자연 위에 다시 풀어놓는 것이다.

이 작가는 최근에 동일 계열의 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천연안료의 색상과 풍경이 주는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고 있다. 단순히 색의 사용이 아닌 깊고 명상적인 색의 ‘적용’이다. 일반적인 색의 의미는 이 작가에게 의미가 없다. 대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같은 즉각적 색상을 깊이 있게 사용하여 풍경의 추상적 단순화 과정에 적용한다. 천연염료인 쪽의 깊고 푸른색을 사용해 하늘과 우주, 바다를 포함할 수 있는 깊은 느낌을 준다. 이 작가에게 푸른색은 초월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깊은 심연의 ‘색’이다. 이종송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산 그림은 대부분 ‘블루’다. 산 전체가 블루다. 다양한 블루가 숲이 되고 숲을 흐르는 바람이 되고, 움직이는 산의 빛깔이 된다. 그런 이종송의 블루는 바다에서 온 블루다. 바다를 산으로 불러들이면 어떨까. 이종송은 어느 날 바다를 산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이종송의 산은 바다의 블루로 완성됐다. 경계 없는 이종송의 그림이 또 한 번 경계를 허문다. 아니, 경계의 문제가 개념과 인식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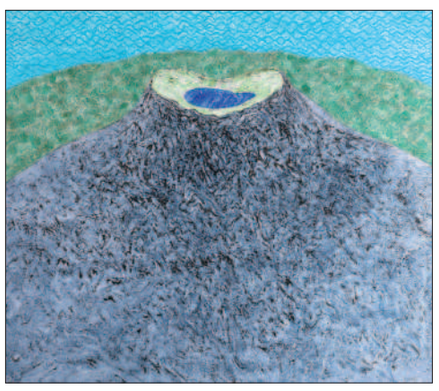
“제가 앞으로 그리고 싶은 그림은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개인전 중간에도 떠오르는 작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립니다. 그 그림들을 근간으로 또 변화하는 작업을 시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 자신을 비워내려고 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요즘 들어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이번 전시는 43번째 개인전이다. 숫자의 의미가 무색해진 지 오래다. 그런 그는 아직도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있다. 바다를 산으로 불러왔던 것처럼 앞으로 그가 그의 산에 무엇을 불러들일지 궁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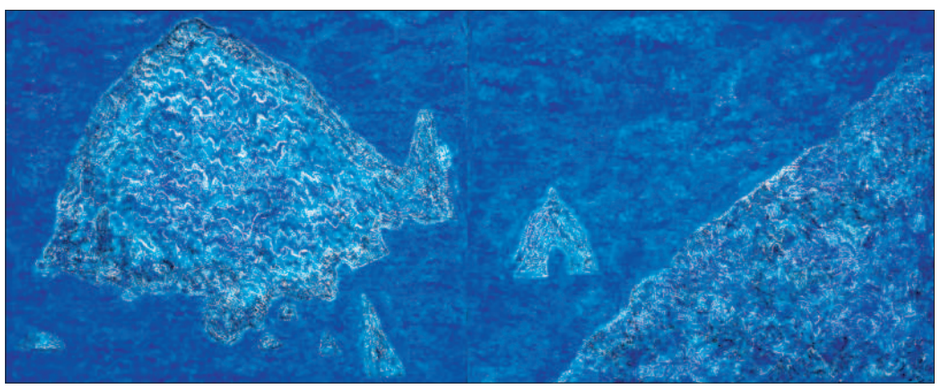
이종송 작가는…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건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0, 1991, 1992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및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천연안료와 벽화기법에 관한 논문이 다수 있다. 차마고도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경기도 미술관, 박수근미술관, 캐나다 한국대사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초 · 중 · 고 미술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되어있다. 국내외서 42회 개인전을 열었으며, 200여 회의 국내외 단체전 및 초대전에 출품했다.



Mountain in Motion 116.5x 91cm 2021



Mountain in Motion 117x91cm 2021



Mountain in Motion-Concerto 320x130cm 흙벽화기법에 천연안료 2020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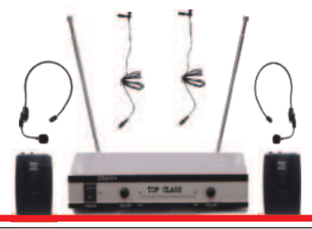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89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증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불상 방사선 조사, 法 강화로 어려움 많다”

문화재청 · 불교문화재硏, 불상기록화 심포지엄 개최

2010년 시작된 사업 성과 망라
방사선 통한 비파괴 검사 ‘대세’
기법·목재수종…연구범위 넓어
원자력안전법 강화로 조사 난맥
사찰의 특수성 고려한 협의필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에 산재된 불상들의 원형을 기록하는 ‘중요동산문화재(불상) 기록화 사업’ 이 올해로 11주년을 맞았다. 그간의 사업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1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원형을 찾아가는 시간, 불상 기록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그간의 사업 현황과 성과를 살피고 향후 과제를 고찰했다.

2010년부터 문화재청 주관으로 진행된 ‘중요동산문화재(불상) 기록화’ 사업은 국보 · 보물로 지정된 불상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록화를 통해 훼손 · 멸실을 대비한 불상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안전진단을 통해 보존관리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중요동산문화재(불상) 기록화’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총 47건 135점의 불상 정밀기록화 조사가 진행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과 함께 2015년부터 해당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성과 중 눈길을 끌었던 것은 3D-CT와 X-선 검사를 활용한 문화재 조사였다. 비파괴, 비접촉이 요구되는 문화재 조사에서 3D-CT와 X-선 검사 활용은 일종의 혁신이었다.

‘불상 기록화 사업’에서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8년 9월 처음으로 3D-CT와 X-선 검사를 통해 불상을 분석했다. 대상 불상은 보물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이었고, 조사는 동국대 일산병원 방사선실에서 이뤄졌다. 조사를 통해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좌측 어깨와 팔 △불신 앞과 뒤 △우측 어깨와 팔 △무릎에 사용된 5개의 주부재로 구성돼 있음이 확인됐다. 불신에는 금속제 못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모든 부재는 옻이나 아교 등의 접착제를 사용했다. 정상계주, 중간계주는 나무로 조각해 접합됐으며 나발의 목재 재질은 2가지 종류가 혼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과학적 기록화를 통한 불상 제작기법 연구’ 를 발표한 정지연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은 “불상 기록화 사업은 원형이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 객관적 데이터를 생성하고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며, 학술연구나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디지털 기록화를 비롯해 다양한 조사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X-선 또는 X-선 CT촬영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는 한 번의 조사로 세 가지의 사업 목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X-선 또는 X-선 CT촬영 조사는 고려 · 조선시대 불상들의 제작기법을 밝혀내 미술사 연구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목재 횡단면의 나이테 · 나무결을 관찰할 수 있다”면서 “X-선, 3D-CT 데이터를 활용하면 수리 복원 작업 이전에 문화재 원형과 보수 부분의 크기 위치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수리 복원의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 해당 조사는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조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X-선, CT 촬영 조사는 방사선을 활용하기에 제약도 적지 않다. 강화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 조사가 가능한 기관에 불상을 이운해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상 기록화 사업의 경과와 표준화 방법’을 발표한 최훈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은 “기록화 사업 초기에는 봉안처인 사찰 전각에서 조사가 가능했지만, 이후 강화된 원자력보호법에 따라 현장 촬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사선 투과가 가능한 장소로 불상을 이운해 촬영하는 방법이 대안이지만 예배대상으로 봉안된 불상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녹록하지 않은 작업”이라고 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방사선 조사가 가능한 병원의 기기가 불상에 비해 작게 설정돼 전체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경우도 있다는 게 최 팀장의 설명이다.

향후 과제로 최 팀장은 “원자력안전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불상이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문화재인 점과 사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앞으로 진행되는 기록화 사업에서는 방사선 조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물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사진 왼쪽)’ 과 X-선 촬영 합성 사진(사진 오른쪽)의 모습. 이 같은 조사를 통해 불상의 제작기법과 목재 수종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별처럼 많았던 경주 사찰을 만난다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 ‘불교사원실’ 신설…24일 개관

황룡사 찰주본기 등 530점 공개
분황사 등 경주 출토 유물 망라
지진 대비한 면진 진열장 설치해
저반사 유리로 관람 환경 개선도



경주 황룡사 사리기 외함. 표면에 ‘찰주본기’ 가 새겨져 있다. 이는 7세기 탑 건립과 9세기 중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라벌(現 경주)에는 17만 8936호가 모두 기와집으로 줄지어 있었는데 별을 뿌려 놓은 듯 절이 많았고, 기러기 줄 지어 가듯 탑이 많았다.”

〈삼국유사〉에서 일연 스님이 묘사한 신라시대 경주의 모습이다. 남산을 중심으로 줄 지어진 사찰과 탑을 가진 경주의 모습은 찬연했던 신라시대의 불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별처럼 많았던 신라 경주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전시실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은 11월 24일 새로운 전시실인 ‘불교사원실’ 을 개관하고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불교사원실’ 은 신라미술관 2층에 있던 기존 황룡사실을 공간과 내용 면에서 크게 확장한 것으로 신라 최초 사찰인 흥륜사부터 9~10세기 사리기까지 아우르는 풍성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한 지진에 대비한 면진 진열장 설치, 전면 저반사 유리 도입으로 문화재 안전과 전시관람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신라미술관 중층의 환경을 개선하고 2층 계단홀 공간을 전시의 일부로 편입해 관람객들이 중층을 거쳐 2층 불교사원실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전시실은 신라 왕경과 지방의 주요 사찰 유적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탑 장식, 불상, 기와 등을 활용해 신라 사찰의 역사 전반을 조망할 수 있게 구성됐다.

특히, 황룡사 구층목탑과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발견된 다종다양한 사리기와 공양품은 불교 공인 이후 사찰에 투입된 왕실의 막대한 정치 · 경제적 지원을 엿볼 수 있다. 황룡사 사리기 외함 표면에 새겨진 ‘찰주본기(刹柱本記)’ 는 7세기의 탑 건립과 9세기 중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탑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상황을 전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삼국통일 직후의 대표 사찰인 사천왕사 ‘녹유신장상벽전’ 과 감은사 서탑 사리장엄구에서 볼 수 있는 한층 정교해진 도상과 높은 조형미를 통해 통일이라는 대업을 달성한 신라의 정치, 종교, 예술적 역량을 느낄 수 있다.

통일신라 후반기의 봉화 서동리, 창녕 술정리, 함양 승안사, 포항 법광사의 사리기는 당시 지방 사찰에서 전개된 불교신앙의 일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유행이 가져온 사리장엄구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이외에 신라의 최초 사찰인 흥륜사를 비롯한 주요 사찰의 기와와 전돌 180여 점이 전시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이번 전시실 신설은 2018년 이후 국립경주박물관이 진행해 온 전시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관람객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신라의 사찰문화를 접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람객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거장 장욱진 불교 작품 한자리에

장욱진문화재단, 12월 15일 ‘장욱진 발원’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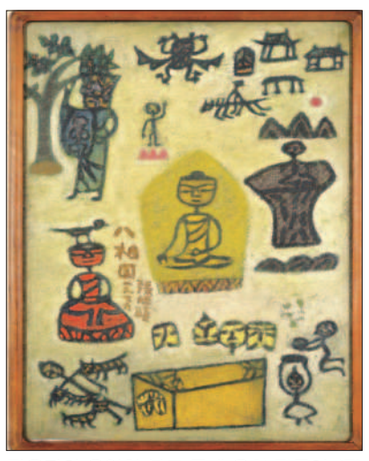
금강경 독송회 보시 작품들
올해 6월 전량 재단 재기부
110점 중 전시서 44점 공개

이중섭, 김환기 등과 함께 한국현대미술사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장욱진은 불교와 깊은 인연을 가진 작가다. 장욱진은 불심이 깊은 가정환경에서 자랐으며, 사춘기에 만난 스님을 통해 인생관과 예술관에 영향을 갖게 된다.

자신의 불심을 작품세계에 투영시켰던 장욱진의 불교 주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장욱진미술문화재단(이사장 김동건)은 12월 15일까지 장욱진 가옥 양관 1층 전시실을 개방하고 ‘장욱진의 발원’ 전을 개최한다. 재단이 전시실 개방하고 전시회를 여는 것은 2년만이다.

이번 전시회는 장욱진의 부인인 이순경 여사가 오랫동안 참여한 ‘금강경 독송회’ 수행도량 여시관(如是觀) 법당에 틈틈이 보시했던 작품 110점을 김강유 · 이광옥 씨가 지난 6월 전량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기증자인 김강유 · 이광옥 씨는 동국대 총장을 지낸 백성욱(1897~1981) 박사의 제자로 이 여사의 오랜 선생님이기도 하다.



장욱진의 유일한 불교 주제 유화 작품인 ‘팔상도(1976)’

전시는 기증된 작품 중 불교적 주제의 유화와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는 먹그림, 매직그림, 도자기화 등 44점이 선보인다. 불교적 주제를 다룬 유일한 유화인 팔상도(1976년 作)와 진진묘(좌상)(1973년 作)는 주말에만 공개된다.

신성민 기자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사리탑 새 조명

태화문화진흥원 12월 3일 제1회 학술대회

(사)태화문화진흥원(이사장 산옹)은 12월 3일 오후 2시 울산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을 보는 새로운 시각’ 을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연다.



보물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울산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은 태화사터에 묻혀 있던 것을 1962년에 발굴해 일시적으로 부산으로 옮겼다가, 다시 울산의 학성공원으로 옮겨왔고, 현재는 울산박물관으로 이전해 보존하고 있다.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이 일반적인 사리탑들과 다른 것은 널따란 바닥돌 위에 종 모양의 몸돌이 놓인 간단한 구조를 가진 것이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에 왕릉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조각된 12지상들이 사리탑에 새겨지는 것도 드문 예다. 이 같은 이유로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은 1966년 보물로 지정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태원 영산대 화쟁연구소장의 ‘신라시대 울산불교’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며 △자장과 울산 태화사의 창건(남무희, 국민대) △태화사지 위치에 대한 비판적 검토(홍병화, 건축사사무소 상상재) △십이지사리탑의 양식과 제작 시기(홍대한, 국립농업박물관) △십이지사리탑의 역정과 활용방안(한욱빈, 한국건축안전센터) 등이 발표된다.

태화문화진흥원 이사장 산옹 스님은 “태화문화진흥원 개원 기념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학술대회를 통해 울산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이 모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보물 지정

문화재청, 11월 23일 공고

통일신라시기 당간지주 중 유일한 귀부형 간대석이 보존된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 를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 지정했다”고 11월 23일 밝혔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는 분황사 입구 남쪽과 황룡사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신라 시대 분황사 가람의 규모와 배치 등을 고려하면 분황사에서 활용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문화재명을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당간지주는 당을 걸기 위한 당간을 고정하는 지지체로 통일신라 초기부터 사찰의 입구에 본격적으로 세워진 조형물이다.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는 일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 지정된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강점기에 촬영된 사진 속 모양과 현재의 모습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지주 사이에 세웠던 당간은 남아있지 않지만, 조영 기법과 양식이 같은 두 지주와 당간을 받쳤던 귀부형 간대석이 원위치로 보이는 곳에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다. 귀부형의 간대석은 남아있는 통일신라 당간지주 중에서는 유일하다.

좌우 두 당간지주는 같은 조영 기법과 양식, 가공 수법을 보인다. 전체적인 형태는 사각 기둥모양인데, 상부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 정상부는 안쪽 면에서 바깥 면으로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도록 가공했다. 당간지주의 안쪽 면에서 바깥 면으로 관통하는 원형 간공(竿孔, 지름 15cm)은 상중하 3곳에 마련돼 당간을 고정토록 했다. 이처럼 당간지주의 상중하 3곳에 간공을 마련하여 당간을 고정하는 수법은 통일신라의 당간지주에서 많이 적용된 기법이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경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요 사찰의 당간지주와 유사한 조영 기법과 양식을 보이고, 현존하는 통일신라 당간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귀부형 간대석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유사 당간지주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아시아 불자들 시대 인식 조명

금강대, 첫 온라인 국제세미나

한중일 불교학자들이 동아시아 불교도의 시대 인식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고승덕)은 12월 3일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동아시아 불교도들의 시대인식’ 을 주제로 제1회 온라인 국제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선시대의 배불정책과 호국불교 사례연구(김응철, 중앙승가대) △대한불교 천태종의 애국불교와 시대정신(광도 스님, 금강대) △불교와 고대 중국국가들(광싱, 홍콩대) △불교에서 수행도의 변천(미노와 겐료, 동경대) 등이 발표된다. 사회와 통역은 고승덕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이 맡았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줌에 접속해 회의 아이디 ‘638 610 2061’ 과 비밀번호 ‘ggu123’ 을 입력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4

▶ 45회 예고
아쇼까를 만난 데비는 아들을 낳는다. 아쇼까는 며칠 전에 아들이면 마핸드라(마힌다), 딸을 낳으면 상가미트라(상가밋따)라고 지어 놓았을 만큼 데비의 출산을 기뻐한다. 마핸드라는 마하와 인드라의 합성어로 데비도 아주 좋아한다.



다르마, 아쇼까가 돌아오길 원하다

담마팔 사문은 꾸날라를 데리고 강가강으로 나갔다. 다르마 왕비 별궁에서만 꾸날라를 가르치다가 최근에는 강가강 강변으로 내려가서 수업했다. 강변에서는 브라흐민들이 강물을 몸에 끼얹으며 기도하고 있었다. 담마팔 사문은 꾸날라와 함께 사람들이 없고 아침햇볕이 잘 드는 한적한 강변으로 갔다. 자라 서너 마리가 강변 모래밭까지 올라와 몸을 말리고 있다가 꾸날라를 보더니 강물 속으로 달아났다. 꾸날라가 말했다.

"사문이시여, 자라는 왜 사람을 보고 도망칩니까?"

"사람들이 자라를 잡아서 죽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저는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왕손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요. 자라탕을 한 번이라도 먹었거나."

자라 두 마리가 강변으로 다시 올라왔다. 담마팔 사문이 자라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도 자라는 도망치지 않고 긴 목을 내밀면서 두리번거리기만 했다.

"자라는 자신을 해칠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꾸날라가 도망치지 않는 자라들을 보고 신기해했다. 담마팔 사문이 덤덤하게 말했다.

"저 자라를 잡아먹는다면 자라가 원수로 환생해서 복수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꾸날라가 자세를 낮추고 엉금엉금 기어갔지만 자라는 또 강물 속으로 도망쳐버렸다. 담마팔 사문이 좌선 자세를 취했다. 그러자 꾸날라도 옆에 앉아 담마팔 사문을 흉내했다. 담마팔 사문은 언제나 좌선한 뒤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은 질문을 유도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아침햇살이지만 목덜미가 금세 따가웠다. 담마팔 사문은 좌선을 짧게 하고 끝냈다. 부드러운 강바람을 느끼면서 담마팔 사문이 먼저 일어났다. 잠시 후 꾸날라가 담마팔 사문에게 물었다.

"사문이시여, 브라흐민들은 왜 아침마다 강가강에서 목욕을 합니까?"

"목욕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는 할머니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강물에 들어가면 거짓말한 죄가 씻어질까요?"

담마팔 사문이 꾸날라에게 되물었다.

"그럴까요?"

"사문이시여,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꾸날라 왕손님, 사문은 고타마 붓다께서 브라흐민과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담마팔 사문이 붓다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한 토막을 꺼냈다. 꾸날라는 담마팔 사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침햇살은 점점 따가워지고 있었지만 강가강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견딜 만했다. 강바람에 꾸날라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운 갈대 잎처럼 나풀나풀 날렸다.

고타마 붓다께서 꼬살라국 순다리까강 주변의 작은 숲속에 머물 때였다. 깊지 않은 순다리까강은 강가강의 한 지류였다. 어느 날 강변 움막에 사는 한 늙은 브라흐민이 붓다를 찾아왔다. 그 무렵의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지 오래 되지 않았으므로 브라흐민들이 잘 알아보지 못했다.

늙은 브라흐민은 고타마 붓다에게 다가와 자기와 함께 순다리까강에 들어가 목욕을 하자고 권유했다. 붓다는 그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그에게 물었다.

"브라흐민이여, 강에서 목욕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소?"

그러자 브라흐민이 대답했다.

"고타마 붓다여, 순다리까강은 구원의 강이요, 상서로운 강입니다. 만약 누구나 여기서 목욕하면 모든 죄업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에 붓다는 다음과 같이 설하여 늙은 브라흐민을 놀라게 했다.

"어떤 강물도 사람의 죄업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강물에 목욕을 해서 죄업이 사라진다면 그 강물 속의 물고기는 죄업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사람이 물고기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소. 죄업을 깨끗이 하고 싶다면 오직 청정한 행을 닦는 것이 옳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 것이며,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 것이며,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 것이며,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우물물에 목욕해도 깨끗할 터이므로 굳이 강에 들어가 목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정한 행을 닦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주 강에 들어가서 목욕한다 해도 죄업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브라흐민은 차분하게 설득하는 붓다에게 감동했다. 강물과 물고기의 비유에 브라흐민은 붓다를 찬탄하면서 재가제자가 되었다. 브라흐민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청정한 행위만이 죄업을 닦아준다는 것을 깨닫고 붓다께 귀의한 것이었다.

담마팔 사문이 고타마 붓다와 브라흐민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꾸날라에게 물었다.

"꾸날라 왕손님, 이제 왕손님은 강물에 목욕을 해서 마음이 청정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청정한 행을 닦아서 마음이 청정해지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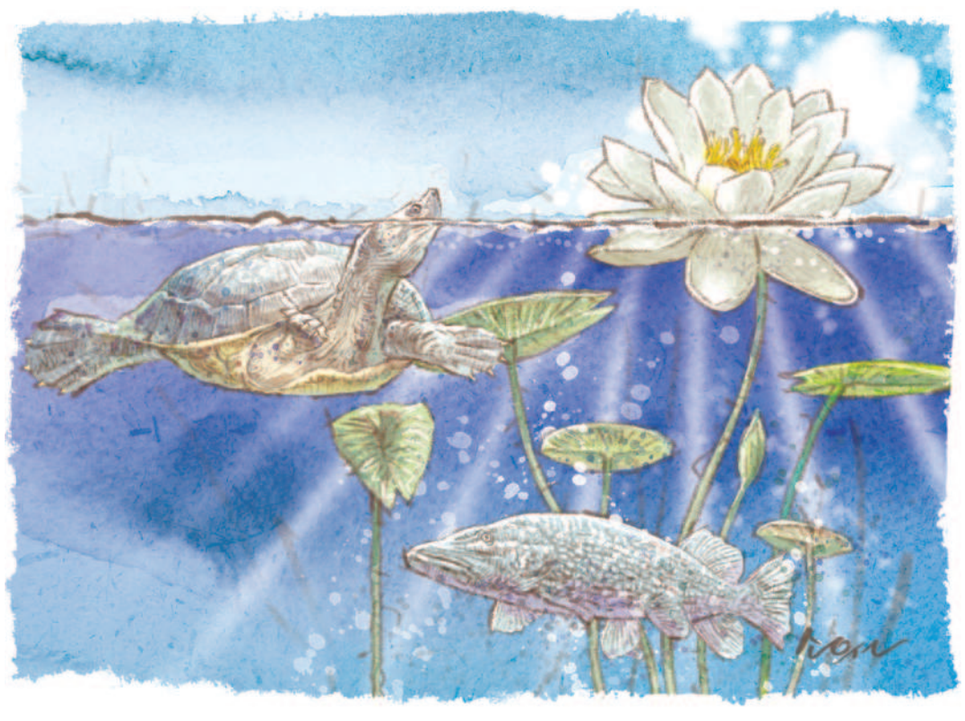
"강물에 목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다르마 할머니와 아상디밋따 작은어머니께서 강물에 목욕하는 날이거든요. 오시면 제가 못하게 하겠어요."

"하하하. 한 번 그렇게 해보세요."

꾸날라의 말대로 궁중의 왕실 가족들이 강가강 강물에 몸을 적시는 날이었다. 그들 모두 브라흐민이기 때문에 오래 된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왕실 가족들이 강물에 목욕하는 날이 되면 강가강 강변은 군사들이 경계를 서며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저녁에는 제관들이 강가강 시바신과 불의 신인 아그니를 위해 뿌자를 치렀다.



아무튼 꾸날라가 담마팔 사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아주 빨랐다. 산스크리트어 기초는 이미 끝났고, 담마팔이 가르칠 수 없는 승마나 검술 등을 배울 수 있을 정도였다. 꾸날라 자신도 왕손으로서 무술을 배우고 싶어 했다. 꾸날라가 말했다.

"다르마 할머니 얘기인데요, 아버지는 무술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승마나 검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오겠지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기도 하구요."

꾸날라의 큰 눈이 슬프게 변했다. 어머니 빠드바마띠나 아버지 아쇼까의 얼굴이 가물가물 기억나지 않았다. 어머니 빠드바마띠는 꾸날라를 낳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죽었고, 아버지 아쇼까는 꾸날라가 자라는 동안 탁실라와 웃자인에 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르마 왕비님께 아쇼까 부왕님이 보고 싶다고 말씀해 보았습니까?"

"가끔 했어요. 할아버지 대왕님께 말씀해 본다고 하셨어요."

"왕손님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담마팔 사문은 문득 라다굽따의 부탁이 떠올랐다. 수년 안에 아쇼까 부왕이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르마 왕비를 설득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담마팔 자신이 다르마 왕비에게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꾸날라가 성장하면서 차츰 그 일이 풀리고 있다고 예견했다. 꾸날라가 말했다.

"다르마 할머니께서 말씀했어요. 사문께서는 미래의 일을 보시는 분이라구요."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아버지가 언제 오시는지 알고 싶어요."

"왕손님, 아쇼까 부왕님께서는 반드시 빠딸리뿌뜨라에 오실 것입니다."

"아, 다르마 할머니께서 이쪽으로 오시고 있어요!"

꾸날라가 소리쳤다. 아상디밋따와 락슈미밋사도 담마팔 사문이 있는 강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비가따쇼까는 락슈미밋사가 안고 있었다. 담마팔 사문이 다르마 왕비에게 다가가 합장했다.

"왕비님이시여, 산책을 나오셨습니까?"

"목욕하러 왔지요, 오늘이 강물에 목욕하는 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담마팔 사문은 락슈미밋사에게 다가가 비가따쇼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잠시 축원해주었다. 자애롭고 지혜로운 왕자가 되라는 축원이었다. 다르마 왕비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문이시여, 이곳에 오랫동안 계시어 꾸날라뿐만 아니라 비가따쇼까의 스승도 되어주세요."

"소승을 인정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왕실 가족 중에 여인들 일부는 벌써부터 강가강에 들어가 목욕을 했다. 두 손으로 강물을 떠서 얼굴에 끼얹다가 사리를 걸친 채 몸을 풍덩 강물 속으로 담그기도 했다. 어린 왕자들은 푸우푸우 자맥질하며 물장구를 쳤다. 꾸날라가 도리질을 하며 다르마 왕비에게 말했다.

"할머니께서도 목욕하실 거예요?"

"그럼, 죄업을 씻어야 다음 생에는 극락에 태어난단다."

"극락은 어떤 곳인데요?"

"슬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란다. 천녀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1년 내내 연꽃이 피어 있는 향기로운 곳이란다."

꾸날라는 담마팔 사문이 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도리질했다. 다르마 왕비와 담마팔 사문의 말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꾸날라는 스승이 된 담마팔 사문의 말을 믿었다.

"할머니, 강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시키더냐?"

"강물에 죄업이 사라진다면 물고기들은 죄업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는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그럼 너는 죄업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죄업을 깨끗이 하고 싶다면 오직 청정한 행을 닦으라고 했어요."

다르마 왕비가 담마팔 사문을 보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다르마 왕비가 담마팔 사문에게 미안해하며 말했다.

"사문이시여,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그런지 꾸날라가 버릇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군요."

"왕비님, 꾸날라 왕손님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쇼까 부왕을 빨리 불러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함부로 말하지는 않겠지요."

"꾸날라 왕손님은 소승이 가르친 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오, 사문은 브라흐민들과 달리 죄업을 씻는다는 말이군요."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소승이 말한 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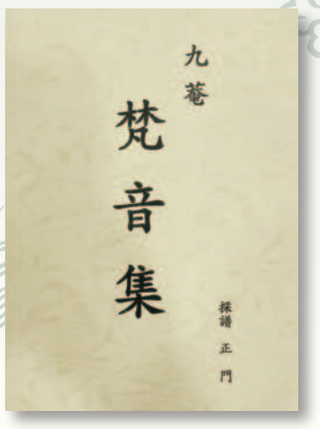
다르마 왕비는 더 이상 꾸날라를 꾸짖지 못했다. 꾸날라가 스승 담마팔 사문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르마 왕비는 머쓱해하며 화제를 돌렸다.

"비가따쇼까를 위해서도 아쇼까 부왕을 빠딸리뿌뜨라로 오게 해야겠어요. 아쇼까는 그동안 대왕을 위해서 헌신해왔으니까 이제는 돌아와서 동생을 돌보고 아들과 함께 살아야 해요. 대왕님도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어요."

다르마 왕비는 마음속의 말을 담마팔 사문에게 하소연하듯 다 고백했다. 담마팔 사문은 아쇼까가 반드시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르마 왕비는 물론이고 아상디밋따, 꾸날라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이었다.〈계속〉



구암스님 범음집



영남법음범패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보유자이셨던 구암스님의 염불소리를
배우기 쉽게 습득 할 수 있도록
음률 높낮이대로 채보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악보화 하였습니다…

경남 밀양시 초동면 덕산 2길 32-81 영원사
문의전화 010-3156-2211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22 대도무문大道無門



▶ 한줄 요약
본래성불, 본래부처의 또 다른 말이 대도무문.

들어가고 나갈 문 없는 '중도'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대도무문(大道無門)이란 말이 있다. 큰 도에는 문이 없다. 무슨 뜻일까? 대도무문의 뜻을 바로 알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알고 선(禪)의 지혜가 열리는 것이니 매우 중요한 말이다. 이 대도무문에 대하여 알아보자.

김영삼 대통령의 대도무문 일화

흔히 'YS'라 불리운 김영삼 대통령은 '대도무문(大道無門)'을 좌우명으로 삼아 붓글씨도 자주 썼다. 그는 교회 장로로 널리 알려졌는데, 개신교 신자인 그가 선어(禪語)인 대도무문을 즐겨 썼다니 재미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은 김영삼 대통령은 과연 대도무문의 뜻을 바르게 알고 썼을까?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도무문(大道無門) 휘호를 선물하면서 "대의를 행하는데 거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클린턴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통역자가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없다'고 하니 웃으면서 알았다고 한 일화가 있다.

기독인을 믿은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선어인 대도무문을 화제로 대화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대통령은 대도무문을 글자만 풀이했지 참 뜻은 몰랐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의 뜻

그렇다면 선에서 말하는 대도무문은 무슨 뜻인가? 대도무문이란 말은 송나라 후기 무문혜개(無門慧開, 1183~1260) 선사가 지은 '무문관(無門關)'에 나온다. 무문 스님은 선문의 대표적인 화두 48개를 소개하면서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부처의 말 중에 근본은 마음이다. 진리의 문에는 문이 없다. 문이 없는데 어찌 뚫고 갈 것인가? 듣지 못했는가? '문을 통해서 들고나는 것은 잡된 것이요, 인연으로 얻은 것은 결국 부서지고 말 것이다.' 실은 이런 말도 평지풍파요, 멀쩡한 살에 종기짜는 칼을 들이댄 것이니 하물며 언어문자에 집착하여 지혜를 구하는 짓이야…"

大道無門 千差有路 큰 도에는 문이 없다. 천갈래 길이 어디나 통한다.

透得此關 乾坤獨步 이 관문을 뚫고 간다면 천지에 홀로 걸어가리라.

무문 스님은 불교의 진리를 깨치는 길은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없는 무문(無門)이라 한다. 만약 문이 있어 들어가고 나감이 있다 한다면 상대분별에 떨어져 양변이 되니 잡스럽다. 또한 얻을 것이 있다 한다면 상(相)이니 결국 허망할 것이라 한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여래는 오고감이 없다.' '모든 있는 바 상(相)은 다 허망한 것이니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여래를 보리라' 하는 말과 같은 이치다. 이런 말조차 옥상옥이고 긁어 부스럼이다. 그래서 게송을 하나 지으니 "큰 도에는 문이 없다"는 대도무문이고 이 관문을 뚫으면 천지에 가장 고귀한 존재인 것이다.

선사의 법문이나 부처님의 〈금강경〉이나 중도와 무상(無相) 도리를 말하는 것은 똑같다. 우리가 '나'가 있다는 분별에 떨어지면 오고 가는 나도 있고, 들어가고 나감도 있으니 결국 생사윤회하는 괴로움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무아, 중도의 정견을 세우면 '나'라고 한 실체가 없으니 오고 감도 없고, 들어가고 나감도 없으며, 안과 밖이 중도불이로 존재함을 알게 된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친 불교의 진리다. 이 불교의 진리에는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없는 무문(無門)이다. 그래서 불교의 진리인 큰 도는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없는 대도무문이라 한다.

대도무문, 선(禪)의 본래성불을 말한다

불교는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 생사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 불교의 진리에 대도무문이라 하니 수행도 필요 없고 깨달음조차 없다는 말인가? 참으로 알쏭달쏭하다.

혜개선사 지은 '대도무문' 의미
〈금강경〉 가르침과 일맥상통해
분별망상 없는 삶 속 수행 강조

이것을 禪과 敎의 입장에서 풀어보면 이렇다.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물이 연기로 존재함을 깨쳤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로 존재하니 '나'라 할 실체가 없다. 이것을 무아(無我), 무상(無相), 공(空)이라 한다. 우주 만물이 연기, 무아로 존재하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中道)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부처님의 제자인 조사들도 부처님처럼 이것을 깨달아 생사의 괴로움을 여의고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준 것이 불교이고 선이다.

그런데, 禪은 이 불교와 깨달음에 대하여 독특한 입장을 보여준다. 부처님이 우주 만물이 중도연기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우주 만물은 모두 본래 완전하고, 본래 청정하며, 본래 깨달아 있다고 본다. 〈화엄경〉에 "일체 중생이 여래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건만 분별망상에 가로막혀 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부처님 말씀이 그것이다. 이처럼 일체 중생이 중도연기로 존재하니 본래 완전하여 깨달음의 성품이 보편되어 있다. 이것을 불성(佛性), 법성(法性)이라 한다. 즉 깨달음의 성품이 일체 중생에게 본래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불교 교리적으로는 이것을 중도연기, 진여연기라 하고 禪은 본래성불, 본래부처라 한다.



김영삼 前 대통령이 쓴 '대도무문' 휘.

禪의 본래성불(本來成佛), 본래부처를 무문스님은 대도무문이라 달리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본래 깨달음이 다 완성되어 갖추고 있으니 '내가 있다' '내가 중생'이라는 분별망상만 찰나간에 깨치면 되는 것이다. 지금 나 이대로 중도연기로 존재하니 본래 완성되어 있고, 온갖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는 본래부처이다. 그래서 6조 혜능대사는 "반야 지혜는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법문한다.

대도무문, 본래성불에 수행과 깨달음이 필요한가?

혹자는 "우리가 본래성불해 있으니 수행도 깨달음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있다-없다'의 없다는 양변에 떨어져 삿된 소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원리인 중도연기는 깨달은 부처님이나 중생이 다 하나이지만, 부처님은 자기가 중도, 무아라는 것을 깨친 분이고 중생은 자기가 있다는 분별망상에 집착하고 있어 중도를 알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자기라 할 것이 없어 우주 만물과 더불어 중도연기로 존재하는데, '자기가 있다'는 양변에 떨어져 집착하고 살아가니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본래성불로 수행 불필요 주장
유무의 양변 집착과도 같아서
수행은 망상 완전히 비우는 것

6조 혜능대사는 〈단경〉에서 이렇게 말한다.

"선지식아! 스스로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성을 보는 것이다. 깨닫고 나면 본래 차별이 없지만, 깨닫지 못하면 긴 세월 동안 윤회하는 것이다."

우리가 본래 청정한 부처이나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미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자기 안에 망상을 비우는 수행과 깨달음이 없다면 영원히 생사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니 자기 안에 분별망상을 비우고 본래 마음을 보아 깨쳐야 한다.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이 필수적이다. 수행하여 깨쳐도 뭔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분별망상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다.

본래성불의 정견으로 수행하면 즐겁고 행복하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연기라는 것을 이치로라도 확실히 이해하면 대도무문, 본래성불도 알아 정견이 선다. 자기가 본래성불해 있는 부처라는 것을 알고 믿음이 서면 깨달아 부처로 살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난다. 이것을 화두선에서는 정견과 믿음, 그리고 발심이라 한다. 이 정견과 신심, 발심이 갖춰진 사람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조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정진하는 힘이 나온다.

현대인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하고 살아가야 한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도 있지만, 뒤져 낙오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시대에 자기가 본래 완전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자기 가치를 알게 되면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존감을 갖추게 된다. 자기가 부처님처럼 존귀하다는 것을 아는 불자라면 가난하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남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해도 스스로 자존감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과 조사들의 삶이 그러했다. 부처님은 깨친 후 평생 걸식과 무소유의 삶을 살아도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

자기가 본래성불해 있다는 정견을 세운 사람은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안의 분별망상을 부지런히 비워간다. 망상은 본래 실체가 없으니 집착하거나 머물지만 않으면 된다. 하지만, 착각이 깊은 사람은 망상을 걷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본래성불 알고 하면 깨달음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아니 두려움 없이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다. 만약 대도무문을 몰라 자기가 본래 부처인줄 모르고 중생이라 생각하고 믿고 수행해 나간다면 아마도 수행은 힘든 고행이고 부처가 되는 깨달음은 요원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래서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수행에서는 중생이 아라한과를 성취하려면 3아승기겁 동안 세세생생 닦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리라.

자기가 부처가 아닌 중생이라 생각하고 부처가 되고자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데 더 힘이 들고 주저앉기가 쉽다. 중생이 다 그렇지 뭐…하는 마음이 자기를 속박한다. 반대로 자기가 그대로 본래 부처이고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은 훨씬 힘이 나고 즐겁고 보람이 있다. 자기 안의 분별망상을 비운만큼 가볍고 밝고 행복하다.

그래서 禪, 화두선을 가장 빠른 수행이라고 최상승이라 한다. 그렇다고 선이 다른 불교 수행법보다 우월하다는 말이 아니다. 화두선이든 위빠사나든 염불 등 불교 수행법은 모두 평등하고 우열이 없다. 다만, 화두선은 본래부처가 부처되는 길이니 좀 빠르다고 하는 것이다.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길이니 선 수행은 고행이 아니라 행복한 길이다. 중도는 들어가고 나갈 문이 없는 대도무문이다.

〈불교인재원 교수〉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가지 고질병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을 연합, 사·암으로도 가능합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정 **지광** 합장
총무원장 **동진**

대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

국내최초·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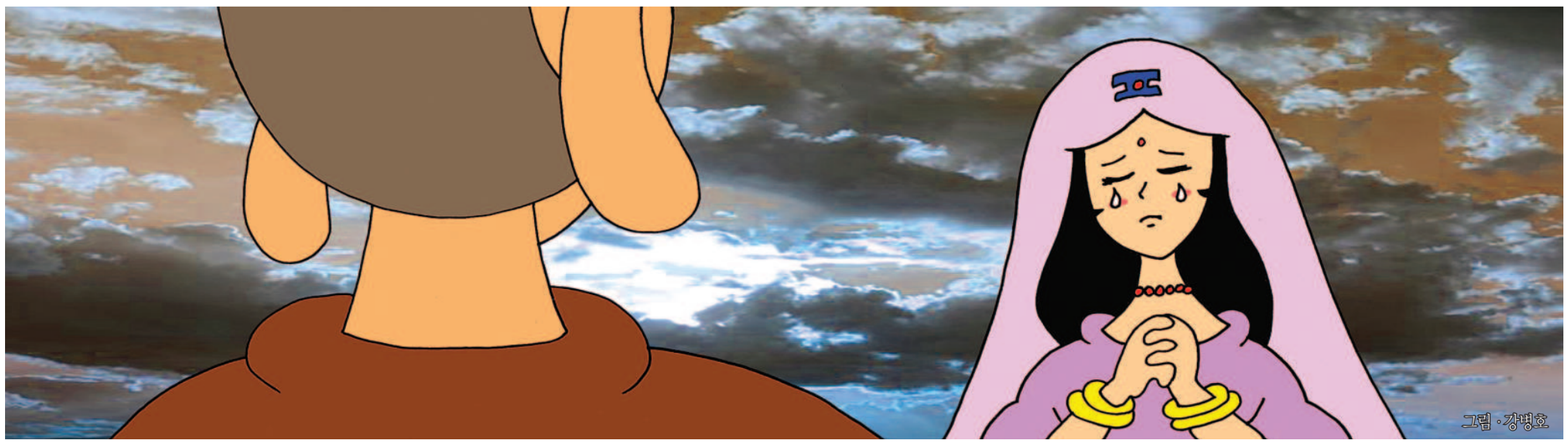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22 라후라 출가와 야수다라



▶ 한줄요약
야수다라가 아들 라후라의 출가를 막기 위해 "스스로 자비하라면서 어미에게서 아들을 여의게 하는 것이 자비냐"며 목련과 논쟁을 펼친다. 이내 석가모니 부처님은 야수다라에게 전생을 보여줬고, 결국 야수다라는 라후라를 출가시키기 위해 목련에게 보낸다.

아들 보내는 母情 애닳기만 하니…


그림 · 강병호

〈석보상절〉의 명장면을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오늘 야수다라의 심금을 울리는 이 장면에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야수다라의 진솔하고 논리 정연한 반박에 목련과 시어머니 대애도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지금 상황은 라후라를 출가시키게 데려오라는 석가모니의 명을 받은 목련이 대애도를 찾아가 설득하는 중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수다라의 대답은 이러하다.

야수다라의 완판승

야수다라께서 말씀하셨다.

"여래께서 태자 시절에 나를 아내 삼으셨을 때 내가 태자를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하여 한 번도 소홀한 일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된 지 3년이 못 차서 세간을 버리시고 성을 넘어 도망가서 마부 차닉이를 돌려 보내며 맹세하기를 '내가 도리를 이루어야 돌아오리라' 하셨습니다. 사냥꾼이 입는 사슴가죽 옷을 입고 미친 사람같이 산골짜기에 숨어 계시면서 여섯 해를 고행하여 부처가 되셨지만 나라에 돌아오셔도 나를 친근하게 아니 하셨습니다. 지난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시고 길 가는 사람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나는 어버이 여의고 시집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살되 우리 모자 외롭고 고달파 인생의 즐거운 뜻이 없고 죽음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목숨이 무거운 것이므로 손수 죽지 못하고 서럽고 애달픈 뜻을 머금고 가까스로 살아가니 비록 사람들 무리 속에 살아도 짐승만도 못합니다. 서러운 인생이 어디 또 이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또 내 아들을 데려가려 하시니 가족(眷屬)이 되어서 서러운 일도 이러할 수가 있습니까. 권속(眷屬)은 아내며 자식, 종, 집안사람을 모두 권속이라 한다.

싯달타 태자께서 도리 이루시어 스스로 자비하라고 하십니다. 자비는 중생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거늘 이제 도리어 남의 어미와 아들을 여의게 하시니 슬픈 일 중에도 이별 같은 것이 없거니와 이로 헤아려 보건대 무슨 자비가 있는 것입니까." 이별은 여의는 것이다.

야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련에게 이르셨다.

"돌아가서 세존께 내 뜻을 잘 말씀하십시오."

일백삼십구장

목련의 신통력을 야수의 눈 앞에 보이고 영세쾌락(永世快樂)을 힘껏 말씀드려도

야수의 자비심에는 먼 앞날을 헤아림이 없으시므로 일생의 서러운 마음을 모두 말씀하시니 〈월인51a〉

일백사십장

아내가 되어서 싯달타 태자를 하늘 같이 섬겼더니 3년이 못 되어 세간 버리고 출가하시니

차닉이 돌려 보내시며 맹세하시되 도리 이루어 돌아오겠다 하시니

야수의 말 중에 조목조목 어디 한 군데 틀린 말이 있는가. 〈월인천강지곡〉에서도 '일생의 서러운 마음을 모두 말씀하시니' 라고 하고 있다. 출가하여 도리를 이루면 돌아온다더니 길가는 행인처럼 대하고 자비를 하라고 설하면서 아내에게는 무자비한 남편이 무슨 부처라 하시는가. 아무리 신통제일의 제자 목건련이라 하더라도 야수다라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다.

본전도 못 찾은 목련

그때 목련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다시금 야수다라께 말씀을 드려도 야수다라 조금도 듣지 않으셨다. 목련이 정반왕께 돌아가서 이 사연을 사뢰었다. 정반왕이 부인 대애도를 불러 말씀하셨다. 〈釋詳6:6b〉

"야수다라는 여인이라 불교의 도리(佛法)를 모르기 때문에 애착으로 얽혀 아들 사랑하는 마음을 쓸어버리지 못하니 대애도 그대가 가서 알아듣게 이르시오."

대애도(大愛道)께서 오백명의 청의를 데리고 야수께 가서 갖은 방편으로 두 번 세 번 거듭 말씀하셨다. 야수다라가 오히려 듣지 아니 하시고 시어머니 대애도께 말씀드렸다.

"제가 결혼 전 우리 집에 있을 적에 나를 두고 여덟 나라의 왕이 서로 겨루기로 경쟁하였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신 것은 석가 태자의 재주가 뛰어나셨기(奇特) 때문입니다. 기(奇)는 신기한 것이요 특(特)은 다른 무리에서 따로이 다른 것이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태자께 시집가게 하시고 시어머님 대애도부인께서 며느리 얻으심은 우리 둘이 온화히 살아 세세생생 천만세에 대대로 자손이 이어감을 위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들인 태자가 이미 출가하여 나가시고 또 손자 라후라를 출가시켜서 이제 나라 이을 자손을

> "아들 여의는 것이 자비냐" 반박
> 라후라의 출가 막는 어머니 모습
> 〈석보상절〉 명장면… 묘사 압권
> 이내 부처님 나타나 전생 보이자
> 야수다라, 결국 라후라를 보낸다

끊어지게 하시니 어머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대애도께서 들으시고 한 말씀도 못하고 계셨다.

야수다라의 말솜씨야말로 어떠한가. 기실 이것은 야수다라 평생에 담아두었던 속마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여성이 결혼하자마자 출가에 뜻을 두고 기어이 떠나버린 남편을 이해할 것인가. 게다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서는 부처가 되더니 남처럼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물며 임신한 채 불구덩이 속을 뛰어들기까지 하며 지켜낸 금쪽같은 아들을 데려간다니…. 인간적인 면모로 보자면 석가모니는 최소한 야수다라에게 모질디 모진 남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야수다라가 불교의 법을 모르는 아녀자라서 라후라에 대한 애착을 끊지 못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그 왕실 가족 중 가장 용기있고 논리적 설득력을 갖춘 여성이라 그에 맞설 지원군이 필요했던 것이다. 신통제일의 목련도 시부모도 이기지 못한 야수다라의 완판승이다. 이것을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일백사십일장

태자 사슴가죽(鹿皮) 옷 입으시고 산골에서 고행하시어 6년만에 돌아오시되

은혜를 잊으시고 친근히 아니 하시고 길가는 행인(路人)같이 여기시니

일백사십이장

나(야수)는 어버이 여의고 시집와서 남에게 의지하고 살되 우리 모자 고달프게 사노이다

어찌 인생을 즐기리이까, 죽음을 기다리노니 목숨이 무거워 손수 죽지 못 하노이다. 〈월인52a〉

일백사십삼장

서럽고 애달픈 마음이여 누구와 비교하리오 사람일지라도 짐승만도 못합니다

인생이 이러하거늘 아들마저 여의리이까, 세존의 아내 되어 서러움이 이러할까

일백사십사장

서러운 일 가운데 이별이 가장 심하니 어미와 아들의 이별이 어떠하리

불교의 도리를 이루시어 자비를 펴시나니 이런 일이 무슨 자비이신가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배우자 야수다라를 석가모니 부처님이가 모를 리 없다. 결국 자신이 등장한다.

세존의 등장

그때 세존이 즉시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한 화인(化人)을 보내셨다. 화인은 세존의 신통력으로 부처의 모습 되게 하신 사람이다. 허공에서 야수께 말씀하셨다.

"그대 지나간 전생 시절에 맹세하고 발원한 일을 기억하는가 못하는가. 나 석가여래가 그때 보살의 도리를 하노라 하여 그대 손에 오백 닢 은화로 다섯 줄기 연화를 사서 연등불(정광불)께 바칠 때, 그대가 발원을 하되 세세생생에 아내(妻眷)가 되고자 하거늘 내가 말하였다.

'내가 보살이 되어서 겁겁에 발원행하겠노라 하여 일체 보시를 다른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어든 그대가 나의 말대로 다 듣겠는가' 하였다.

그대가 맹세를 하되 '세세생생에 태아나는 곳마다 나라며, 성이며 자식이며 내 몸에 이르기까지 보시하여도 그대가 하는 대로 좇아 뉘우치는 마음을 내지 않으리다.' 하였다. 이제 어찌 라후라를 아끼는가."

야수께서 이 말 들으시고 마음이 훤히 밝아지셔서 전생의 일이 어제 본 듯 하였다. 애착으로 얽힌 마음이 다 스러지거늘 목련이를 불러 참회하시고 라후라의 손을 잡아서 목련이에게 맡기시고 울며 이별하셨다.

참(懺)은 '차마' 하는 것이니 '내 잘못을 차마 버리소서' 하는 뜻이요 회(悔)는 뉘우친다는 것이니 과거의 일을 잘못이라 인정하는 것이다.

일백사십오장

정반왕 말씀을 대애도께서 전하시되 야수의 말듣고 오히려 할 말이 없어 잠자코 계시더니

세존의 말씀을 화인(化人)이 대신 말씀하시거늘 야수 즉시 알아듣고 눈물로 여의시니

차마 눈물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참회' 를 찾아보니 산스크리트 '크샤마(kṣam, 懺摩)' 의 음역으로 '용서를 빈다', '뉘우친다', '인(忍)' 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며, 회(悔)도 크샤마의 의역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 '차마' 는 정지용의 시 향수에 나오는 당시 표현인 그곳이 '참하꿈엔들 잊힐리야' 의 '참하' 로 읽어야 그 애틋한 정서를 조금이나마 음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토록 논리정연하던 야수다라도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나 '전생에 나와 약속한 일을 잊었는가' 라는 한 마디에 깨끗이 승복을 한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는가' 라고 후회해봤자 어제처럼 선명해진 기억을 되돌릴 수는 없기에 뉘우치며 라후라의 손을 목련에게 쥐어준다. 하염없이 울며 여읠 수밖에.

어찌 2,600년 전의 모자의 이별이 이토록 눈앞에 보듯 슬플까. 이것이 훈민정음 반포한지 10개월 만에 제작된 〈석보상절〉의 대사이다. 20대에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던 석보상절의 명장면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을 수 있어 두 배로 먹먹하다. 이 순간 또한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최재희의 인물로 본 미얀마 ⑫ 건축학도 쉐레에이



▶ 한줄 요약
한국의 건축을 배우기 위해 유학 온 쉐레에이 씨는 삶 자체가 곧 불교인 열정 넘치는 인재다.

K-건축 알리고 싶은 꿈 많은 소녀

한국에서는 부처님께 예경을 하기 위해서는 절에 가야한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절에 가는 것은 불자에게 큰 공덕이다. 하지만 집 근처에 절이 없거나 멀면 정신 없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다.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시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고 싶은데 절에 가려면 동네에서 최소 1시간은 가야했다. 그래서 늘 학교 정각원에 가서 삼배와 백팔배를 했다. 한 번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절에 꾸준히 다닌 도반에게 "집에 부처님을 모시고 싶은데 어디 가서 불상을 사야하지?"라고 물었다. 그는 "집에 불단 같은 거 모시는 거 아니야. 절에 가서 하면 되지. 집에 모시는 거 아니야"라며 절에 자주 가는 것을 권했다.

그 당시에는 '신성한 곳에만 부처님을 모시는구나' 라며, 절에 나보다 오래 다닌 도반의 말을 철썩같이 믿었다.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절에 불단을 모시는 것이 어색하고 보편화되지 않은 문화였다. 교리와 경전에 '불단을 가정에 모시면 안 된다' 는 근거는 없지만, 조선시대의 숭유억불 정책의 흔적이 현대까지 그대로 내려온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집에 부처님을 모시고 싶던 나의 꿈은 미얀마에서는 너무나도 보편화된 일상 중의 하나였다. 2012년 처음 미얀마에 방문해서 밥을 먹기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계산대 위에 불단을 조성해 놓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식당의 불단에는 일반 절과 비슷하게 불상과 물, 꽃, 초 공양이 올려져 있었다. 처음 방문했던 식당 주인의 불심이 유달리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디를 가든 불단을 볼 수 있었다.

유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미얀마 친구들 집을 방문하는 좋은 경험을 했다. 그 때마다 공통적인 것은 집 안에 있는 불단이었다. 미얀마에서는 이 공간을 페야칸(Pha Ya Khan)이라고 한다. 각자 경제수준의 맞게 방의 크기와 불상의 크기는 달랐지만 그들이 가진 불심의 크기에는 부(副)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미얀마 모기업 가문의 집에 갔을 때 부처님을 위한 방이 따로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더우실까봐 에어컨을 24시간 내내 틀어 놓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한 적이 있다.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에 돌아가지 못 하는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미얀마 집에서 하던 것처럼 집 안에 작은 불단을 조성했다.

미얀마에 유학 가기 전 많은 미얀마 유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산에 있는 미얀마 절에 가야 했다. 방학마다 미얀마 절에 방문해서 미얀마 스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미얀마 유학생들과 좋은 인연을 맺는 자리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2015년도 가을쯤 부산에 있는 미얀마 절에서 미얀마 유학생 한 명과 과일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 "언니 안녕하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한국인 중에 부산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텐데..' 라는 마음으로 뒤를 돌았는데 너무 귀엽게 생긴 미얀마 동생이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정말 한국인과 같은 발음으로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가까워졌다. 그 인연으로 2021년 2월 미얀마 쿠데타가 터지자마자 100일이 넘게 밤새도록 잠을 아껴가며 미얀마 현지의 소식을 한국 뉴스에 제보하는 팀을 만들어 활동도 함께 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쉐레에이.



한국 지역예술제에서 미얀마 전통의상을 입고 공연하기도 했다.



미얀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습.


예술제에서 공연 중인 쉐레에이.

쉐레에이는 한국의 건축을 배우고 싶은 꿈을 갖고 부경대 건축학과에 입학했다. 올해 여름에 졸업하여 부산에 있는 건축사무소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현재 열심히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일을 하고 있다. '언니, 저는 나중에 일을 몇 년 더하고 건축학과 석사도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언니 저 오늘 취업비자 나왔어요!!!' 라며 밝게 웃는 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라는 질문에 돌아온 답변은 그의 삶에 불교가 얼마나 깊이 스며있는지는 보여준다.

"언니, 인생에 힘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매일 부처님께 새로운 물을 떠서 올리고 (Thout Taw Yay, 따웃더이에) 출근길과 퇴근길마다 딴버데이(Than Bote Day)를 하면서 가요. 딴버데이를 일주일에 1000번이상 독송하면 자신을 방해는 것이 없어지고 수호신들의 가피를 입을 수 있어요. 저는 1000번이상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 기록 스위치를 갖고 다니면서 해요. 언니도 한 번 해보세요!"

그에게 '건축학도 관점에서 본 미얀마 불교문화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자 바로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대답을 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얀마의 대부분의 문화들이 불교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보름달이 뜨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전공자로서 미얀마에는 대부분의 집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 및 기도드리는 공간 (페야칸,Pha Ya Khan)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미얀마에서는 큰집이든 작은집이든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미얀마의 일상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불교문화입니다. 또한 아침에 사람이 밥을 먹기 전에 집에 있는 페야칸의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나서야 밥을 먹는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삶의 시작이자, 아침의 시작이고 삶의 마무리이자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언니 칼럼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신뿌의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언니에게 더 말씀 드리고 싶은게 있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아버지 빼고 남자아이가 없었었기 때문에 신뿌의식을 직접 경험하진 못했지만 사촌동생이나 친척들 집

> **한국의 건축 배우기 위해 유학**
> **부경대 경축학과 졸업 후 취업**
> **일상 속에서 기도 · 수행 매진**
> **좋은 운 · 자존감 비결은 '불교'**

의 신뿌의식을 치르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는 신뿌의식을 해야지만 좋은 남자 혹은 완전한 남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20 살 넘기 전에 보통 신뿌의식을 치르는데 신뿌의식을 20살전에 형편이 어려워 못 치르는 사람은 성인되고 나서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아들이 태어나서 신뿌의식을 치뤄야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미얀마에는 가난해서 신뿌의식을 못 치르는 아이들을 위해 단체로 마을에서 신뿌행사를 치뤄주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미얀마, 한국, 불교라는 큰 틀을 벗어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서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한 때 사람에 의해 힘들었을 때 그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일반적인 범주를 이야기하다 가도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회귀한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자주 해 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도 미워하지 말래요. 부처님 가르침인 '자비로 이겨라, 자비는 모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를 싫어하는 사람도 너는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보고 자비를 주라. 화는 뜨겁지만 자비는 마음에 평화를 준다. 그럼 너는 이기는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 해 주셨어요. 언니도 지금은 그 분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겠지만, 자비를 보내는 게 어때요?" 머리로는 자비가 중요한 걸 알지만, 실상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리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언니 꼭 기도랑 수행 많이 하세요. 저는 수행이나 기도를 꾸준히 드리면 좋은일이 생긴다고 믿어요. 제가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행이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 저를 싫다고 하거나 저에게 나쁘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자비경(Myitt Ta Thote)을 독송하면서 자비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더라도 결국에 저의 자비가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와 수행을 삶에서 자주해서 그럴까? 다른 미얀마 친구들에게 특별히 그 친구는 운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는 그것도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이 운이 좋은 이유를 설명해줬다. "우리나라에는 깡깡익아쪼(Kan Kan Ei Akyo)라고 해요. 운도 사실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운이 좋더라도 노력이 없으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없고 반면에 운이 안 좋아도 노력하면 운이 따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하는 일이면 순조롭게 끝나고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더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그의 목소리에서 높은 자존감이 느껴졌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자존감' 이라는 용어가 화두였다. 우리 모두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존재를 사랑해보는 것이 어떨까? 어려운 한국 살이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천천히 한 단계씩 성공하는 쉐레에이의 미래가 더욱 궁금해진다. 〈양곤대 박사과정〉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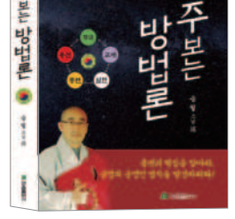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3-2212-8655-3 (예금주 : 윤순례)

자평 명리학의 통변 기법이다

사주보는 방법론



화제의 신간

통변의 핵심을 찾아라.
운명의 운명인 법칙을 발견하리라!

이번에 내 놓은 "사주보는 방법론"은 실전에서 긴 세월 얻어진 경험과 선배 제현(先輩諸賢)들의 소중한 문헌과 자료를 통하여 무엇보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많은 실전 자료로서 폭 넓은 통변에 대한 핵심의미를 살리는데 힘을 기울였다.

사주를 보는데 가장 놓치기 쉽고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알기 쉽게 요점을 간추려 보았다. 특히 십신과 육친 관계에서 고정화된 통변에서 벗어나 사주의 본의를 살려보려고 한 취지이다.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송월 스님 述 / 신국판 / 408쪽 / 정가 35,000원

송월스님의 완결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6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60,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김성진 지음 / 신국양장본 / 정가 45,000원

사주풀이의 법수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616쪽 / 75,000원

새로운 滴天髓풀이 1,2,3권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양장본 / 1,2권 40,000원 3권 50,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아들 도움으로 불법 믿은 '묘장엄왕'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㊹ 묘장엄왕 이야기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옛적에 한량없고 가없는 불가사의한 아승지겁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운뢰음수왕화지(雲雷音宿王華智)이었느니라. 그 부처님 시대 중에 묘장엄이라는 왕이 있었으며, 왕비의 이름은 정덕이었고, 두 아들이 있었으니 첫째는 정장(淨藏), 둘째는 정안(淨眼)이었느니라. 이 두 아들은 큰 신통력과 복덕과 지혜가 있고 일찍부터 보살이 행할 도를 닦아 왔으니, 이른바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방편바라밀과 자(慈), 비(悲), 희(喜), 사(捨)와 삼십칠조도법에 이르기까지 다 환히 통달해 있었으며, 또 보살의 정삼매와 일성수삼매 등, 대위덕장삼매 등을 얻어, 삼매를 다 통달해 있었느니라. 그때 그 부처님이 묘장엄왕을 인도하고 또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셔서 이 〈법화경〉을 설했느니라. 이때 정장, 정안 두 아들이 어머니에게 가 합장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원하옵건대 어머니시여, 운뢰음수왕화지 부처님을 찾아가 뵈옵소서. 저희들도 모시고 가 직접 공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께서 모든 천신과 사람들에게 〈법화경〉을 설하시니 마땅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아버지가 외도를 믿고 바라문의 법에 빠져 있으니, 너희는 마땅히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고 함께 가자고 하여라.'

정장, 정안이 열 손가락을 모아서 합장한 다음 어머니께 아뢰었다. '저희는 법왕의 제자로서 사견을 지닌 이 집에 방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마땅히 아버지를 걱정하여 신통 변화를 보여라. 아버지가 보시면 마음이 반드시 청정해져서 우리와 함께 부처님을 찾아가리라.'

이에 두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여 허공으로 7다라수 높이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데, 공중에서 가고 서고 앉고 눕기도 하였느니라. 상반신에서 물을 내뿜고 하반신에서 불을 내뿜으며, 하반신에서 물을 내뿜고 상반신에서 불을 내뿜으며, 혹은 큰 몸을 나타내어 허공에 가득하다가 다시 또 작아지며, 작아진 몸이 다시 큰 몸이 되기도 하며, 공중에서 사라져 홀연히 땅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며, 땅속에 들어가기를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고 물 위에서 걷고 가기를 땅을 밟고 걷는 것과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왕인 아버지가 마음이 청정해져서 부처님을 믿게 하였느니라."

〈법화경〉의 특징은 과거 구원 겁 전의 부처님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운뢰음수왕화지 부처님 명호가 나왔다. 일월등명여래, 대통지승왕불 등 품(品)에 따라 등장하는 부처님 명호가 다양하다. 이 부처님들은 시간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부처님들이다. 이 부처님들이 모두 〈법화경〉을 설했다고 밝히고 있다. 〈법화경〉 법문이 일승(一乘) 법문이고 이 일승이 곧 불승(佛乘)이다. 부처가 되는 도리를 설한 법문이라는 뜻이다. 〈법화경〉에서는 성문, 연각의 이승법(二乘法)은 진실이 아니고 오직 일승만이 진실한 법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경전을 두고 한 말에 "도를 깨닫는 데는 〈능엄경〉이 으뜸이고, 부처를 이루는 데는 〈법화경〉이 으뜸이다."고 했다.

묘장엄왕과 왕비, 그리고 두 아들의 한 가족이 아들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외도를 믿던 부왕을 설득하여 다 같이 부처님을 찾아가 〈법화경〉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묘장엄왕본사품〉의 주 내용이다. 묘장엄왕도 출가하여 수기(授記)를 받는다. 〈법화경〉의 중요한 키워드는 일승묘법(一乘妙法), 구원실성(久遠實成), 보살만행(菩薩萬行)의 세 가지다. 묘장엄왕의 정장, 정안 두 아들이 육바라밀과 사섭법을 닦아 삼매를 얻어 통달했다는 말에서 바라밀행이 삼매로 연결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천태지의(天台智顗)는 법화의 수행법으로 마하지관(摩訶止觀)을 제시하였다. 그는 〈법화현의〉를 저술하여 경의 제목만 해설하는데 〈법화경〉 경문보다 많은 20권에 달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생명 존중 원칙, 어디까지 적용해야…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㊹ 안락사와 존엄사

울긋불긋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던 나무가 어느새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채 우두커니 서 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왠지 모를 쓸쓸함과 아쉬움이 느껴진다. 이런 변화는 해마다 반복되는데, 왜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아마도 아름다웠던 단풍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것이 못내 아쉬웠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삶의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당혹감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이렇듯 우리에게 죽음은 안타깝고 슬픈 일, 또는 위로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죽음이 최선의 결정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진통제 없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 또는 의료장치에 의해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삶을 기약도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마도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다. 물론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나 상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고통스러운 삶보다는 편안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이 편안한 죽음, 또는 평화로운 죽음을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라고 하며, 한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위(行爲) 또는 무위(無爲)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인위적인 죽음이라는 점에서 종교계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회복 가능성은 없지만 수많은 의료기기에 의존한 채 생명을 연명하는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서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빙자해서 연명 치료를 지속하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치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 본인이 생명을 연명하는 처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고통과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만 해서 온화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 소극적 안락사로 여겨질 수 있는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안락사는 당사자의 의사와 시술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인 안락사, 비자의적인 안락사, 반자의적인 안락사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술 방법에 따라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로 구분할 수 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자의적이고 적극적인 안락사'이다. 다시 말해 당사자가 안락사를 요청하거나 동의할 경우, 그의 생명을 단축시킬 의도로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취하는 것이다. 반면에 소극적 안락사로 여겨지는 존엄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할머니의 판결로 불리는 존엄사 판결이 2009년에 있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한 존엄사법인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무론적 관점을 가진 이들은 안락사라는 개념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며,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들은 존엄사라는 용어 대신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 장치 제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죽이는 것'과 '죽음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명 치료 중단'이라는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 생명 존중의 원칙론을 고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불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⑳ 성불을 이루는 지관수행

차별없는 진여본성 회복해야

진여본성(眞如本性)의 의미

불자 여러분!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은 우주만유의 근원이며 일체 중생들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진여본성은 일체의 차별상을 떠난 모든 중생들의 동일한 하나의 근본마음 평등심입니다. 그래서 '일심' 또는 '한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무명으로 인해 평등한 진여본성과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분별 망상을 지으며 그 망념의 업력에 따라 갖가지 차별적 경계상을 만들어서 그 망경계를 집착하고 갈애를 일으켜 업을 짓고 괴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괴로움에 빠지는 이유가 진여본성에 상응하지 못하고 생멸하는 오염심으로 망념과 허망한 망상을 일으켜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망념과 망상분별을 끊고 진여본성에 상응할 수 있다면 일체의 망상경계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체의 차별적 경계상이 모두 사라진 그 자리에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본체인 진여본성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불교수행을 하는 궁극적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망념으로 인해 일어난 일체의 차별상과 분별망상을 멈추고 일체의 차별상이 없는 진여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불교수행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음은 인식과정에서 오염된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생존을 위한 삶을 영위할 때 인식 과정에서 오염되고 탁해집니다. 또한 심층의식인 무의식 역시도 마음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된 업식들로 인해 내면에서 번뇌와 분별망상을 한량없이 일으킵니다. 따라서 인식 활동을 통해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 정보들에 대한 집착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망상분별의 망경계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번뇌와 갈애를 일으키며 업을 짓고 그 과보로 괴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진여본성에 상응하면 일체망상 사라져
육근통해 외부서 들어오는 인식정보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분별망상 끊어야

그러므로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근을 통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인식정보들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와 분별망상 역시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망념과 분별망상을 끊고 진여본성과 상응할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상락아정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깨달음

불교를 수행하는 궁극적 목적은 진여본성과 상응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다. 환언하면 진여본성과 상응하게 되면 중생심이 곧 진여본성임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곧 참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동치는 자신의 마음바탕이 곧 진여본성임을 믿고 생멸하는 중생심을 제어하여 멈추고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과 계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위한 수행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깨달음이란 분별하는 마음을 제어하여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이루어서 자신의 마음바탕이 곧 진여본성임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분별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이루고, 그 다음은 분별을 통한 자세한 지혜의 관찰로 후득지(後得智)를 이루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66호 | 17 | 전면광고

어리석음이 더욱 미련해지지 않게 하며 성을 내며 억지로 원수를 짓지 않게 하며 다섯 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나쁜 것에 물들지 않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취득 동참 안내

◆ 포교사, 전문포교사 ◆ 법사, 전문법사
◆ 법계분야 – 대종(선율)사, 종사, 율사, 선사, 종법사, 종무사
◆ 제출된 서류로 평가심사 취득가능

교육부 상학인가 **만대 불교학대학원**
한국불교수행자연합회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010-5412-8040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 작법무, 화청, 살풀이, 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한마음으로
오래 계실분

010-4766-3200

사찰 처사(운전가능)님

모십니다.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도)

010-9157-2276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제주도(육각사)

010-3753-7844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경주

010-8908-0488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아미타삼존불과 지장보살 모셔갈분

불상높이 좌대포함 4자

❊ 12월25일이후 ❊
무속인은불가

010-6534-5835

뭐든지 성취되는

기도비법을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스님 무속인 환영·성실지도 ◈

문의전화 010-6284-617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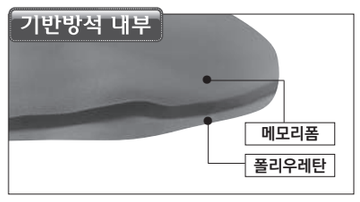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66호 | 18 | 전면광고

어진 이는 진리를 이해해서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운 이, 분별할 줄 아는 이, 현명한 이가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까지 홍보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 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아름다운 사찰 안내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3×5)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대지 300평(정원조성 잘되어있음)
- 진주, 의령, 합천 중간지점(각20분 소요)
- 삼존불, 영당, 신중당,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전체),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와서 보시고 협의(가액), 언제든 양도가능

010-2607-7114

토 굴 안 내

- 위치 : 서울 삼각산자락
- 약 13평, 인법당, 기도 (수행자)적합, 교통편리
- 꼬옥 필요하신 분만 연락 주시고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 3천만원

010-8754-7855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부지 : 5,823평(종교용지, 대지 1,700평 포함) 건물 : 3개동(대웅전, 요사채, 극락전)
- 토지, 건물 : 분할가능
- 가액 : 21억(분할시 상단 15억, 하단 7억)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4225-001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 2층 42평, 시설금 1천2백만, 보증금 3백 합 1천 5백만, 월세 30만
- 법당, 요사채(2), 공양간, 시설완비(에어컨 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및 공사, 판넬, 도배, 기타 시설은 무료)
- 5년전 인수금액 그대로임

주지 무진 010-3049-5816

포 교 원 안 내

- 부산 수영구 광남로 (50평 이상)
- 3층 건물 / 2층(큰방 2, 화장실 2, 넓은 거실) / 약사부처님 3자반/일광월광 / 호신불 약사 관음 108불/영단/지장 108불 영단 잘 되어 있음
- 보 1천만원 / 월 70만원(시설비 2천5백만)
- 스님 건강상으로 양도함

010-3700-3628
010-7476-989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정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 대지 : 360평(국유지 1만평 사용)+사유지 500평 무상사용 ● 법당 : (요사채+최신형 인테리어), 극락전(목조기와신축)
- 가액 : 1억 2천만원(3억 5천 대출승계안고)
- 조건 : 모든석불포함(석불조성 1억 5천만원)
-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장, 편백나무숲 5천그루 ●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 공사 전주시장 승인 준공예정

010-9647-07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 건평 :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 가액 : 절충

010-3714-10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독채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5만원
- 시설금 1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 찰 안 내

- 위치 :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 법당 목조 25평, 요사채 콘트리트슬라브 53평, 대지 약 400평, 심야전기
- 가액 : 3억 5천
- 요양원 하실분

010-5780-141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건평 7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010-9015-4040
010-2077-78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영천 시내 멋진 법당
- 2층 72평, 완벽한 시설, 방3칸, 주방, 화장실, 넓은 옥상, 앰프시설 완비, 방음 완벽, 민원도 없음
- 보 5백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377-2279

사찰 안내

- 대지 1,700평, 법당 60평
- 관음전 60평, 약사전 100평 기도원 40평, 공양실 100평
- 납골당, 지장전, 원두막, 종무소
- 폭포가 있는 절(김천지역)
- 가액 : 23억(대출 5억)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 휴천 남호리 1002, 1005 2필지(관리지역), 총456평
- 가액 : 3천만원
- 위같은리 1000, 1001 논밭 총794평, 2필지(관리지역)
- 가액 : 4천만원

010-9393-4965

고성사찰(급)안내

- 종교용지, 대지634평 불교재단 법천사
- 1층 슬라브 36평, 화장실 및 창고 3평, 법당 24평, 산신각 3평
- 절앞에 저수지 있음, 수도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
- 가액 : 1억5천만원, 절충가능
- 별도 : 대지 177평, 답 917평 합계금액 2억 7천만

010-3553-278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 가액 : 6억 5천
-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5371-5567

예쁜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 대지 : 약 200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평
- 요사채 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 가액 : 2억 8천(절충가능)

010-4999-562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대이로
- 4층(65평)남향, 엘리베이터 사용
- 법당, 방2개, 상담실, 부엌, 화장실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010-7219-0079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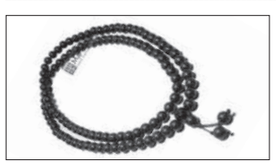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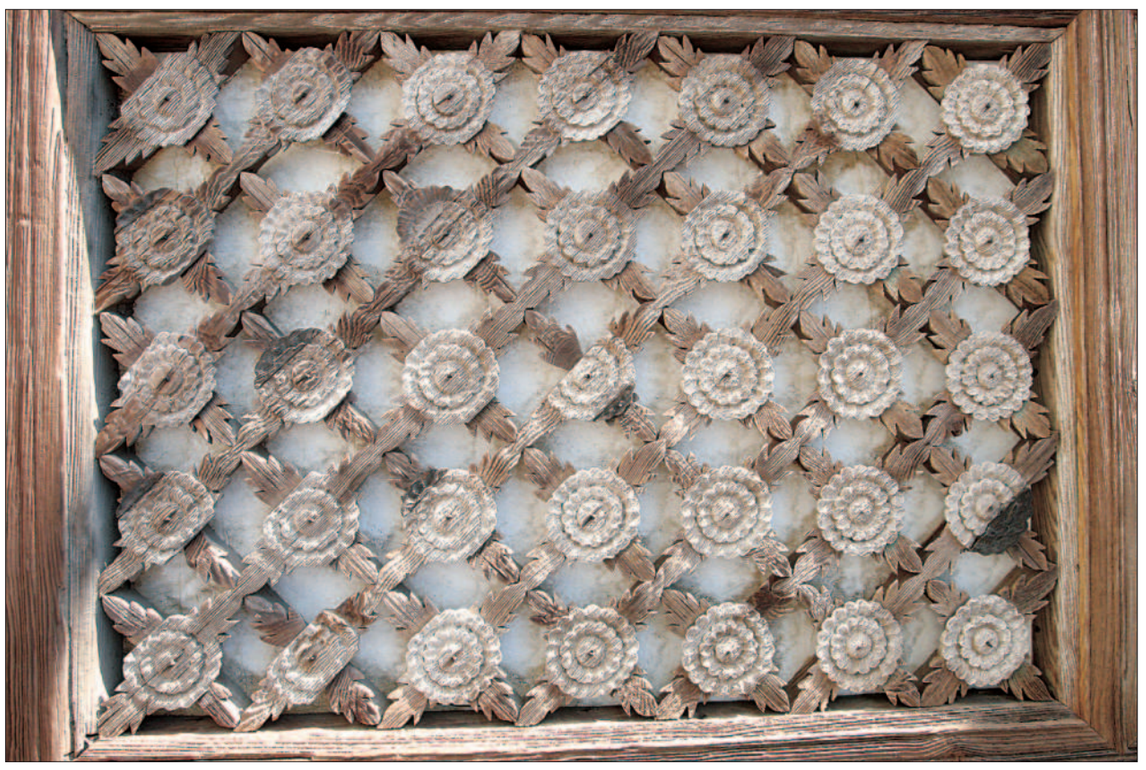
아집

우리가 가장 주의 할 것은 아집, 자기집착 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 입니다. 아집 때문에 불행하고 모든 장애가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상황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아집 때문입니다.

아집이 얼마나 자신과 남들에게 해로운 줄 모르고 마음에 자리 잡게 방치합니다. 아집의 정체를 모르고 무심코 함께합니다. 사기꾼을 못 알아보면 우리도 몰래 해를 끼치는 것처럼 아집이 늘 우리를 속이고 평화를 훔쳐가요.

아집의 본색을 알아보고 주의해야 합니다. 아집을 아집으로 더 많이 알아볼수록 아집의 힘이 약해져요. 속지 않고 함께하지 않아요.

원수는 밖에 있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자기를 집착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이어가지 않도록 아집을 더 확고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행은 아집을 해체 하는 일입니다.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집착하는 '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도 없고 너도 없는 마음자리는 대자유, 대평화입니다.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㉑ 충시차와 쇄동차

낮 짧아진 만큼 더욱 행복하게 차 마셔야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나태주, 〈11월〉)"

낮이 짧아진 만큼 더욱 사랑을 많이 해야겠다는 시인의 감성을 보면서 낮이 짧아졌으니 차를 더욱 많이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재밌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차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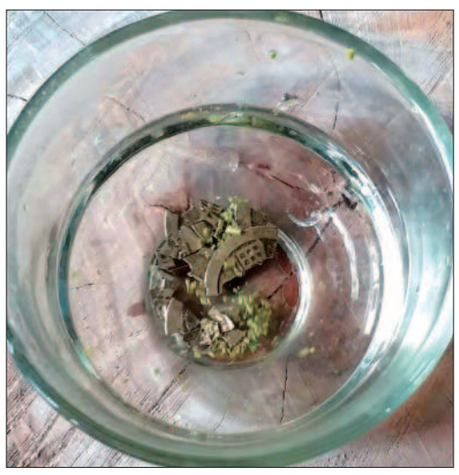
첫 번째는 충시차(蟲屎茶), 벌레 충, 배설물 시, 차 차, 우리말로 벌레똥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에도 루왁커피라고 사향주머니가 있는 사향고양이의 배설물로 만드는 커피가 있습니다. 고양이 배설물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 속에 포함된 커피 원두를 이용해 만드는 것인데요, 사향고양이가 원두를 먹으면 커피열매의 겉껍질과 내용물은 소화하는 반면 딱딱한 씨는 그냥 배설하는데 그 딱딱한 씨가 바로 원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이 체내의 효소분해과정에서 많은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원두에 특유의 향과 맛을 나게 해서 루왁커피가 희귀한 고가의 커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에도 루왁커피와 똑같이 차벌레가 찻잎을 먹고 남긴 배설물로 만든 차가 바로 충시차입니다. 차벌레를 다충(茶蟲)이라고 하는데, 공장에서 대규모로 만드는 차는 재배과정에서 약도 치고 고온열풍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다충이 생기지 않지만, 농약을 치지않고 수공으로 만드는 차는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가 충족되면 다충이 생길 수 있겠지요. 충시차는 일부러 다충이 생기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중국이 차가 발달했다고 해도 사실 처음 차를 재배하고 음용해 온 사람들은 운남성 광서성 귀주성 등의 소수민족인데요, 그들이 오랫동안 차 생활을 해오면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다방면의 차 제다법 차 음용법이 발달했겠지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실크를 오랫동안 재배하면서 뽕나무 누에벌레 껍질인 번데기를 먹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충시차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윈난 광시 등의 소수민족들이 만든 충시차입니다. 그 지역에 화향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봄에 곡우절 전에 햇차가 날 때에 화향나무 잎과 야생 등나무 줄기와 거친 찻잎을 섞어서 대광주리에 쌓아놓고 덮어 놓으면 여기서 찻잎을 먹고 자라는 다충이 생기고,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찻잎과 다충이 다 사라지고 배설물 즉 충시만 남게 되는데, 그것을 체로 쳐서 곱게 걸러냅니다. 여기에 찻잎, 꿀, 충시(배설물)를 1:1:5의 비율로 섞어서 불에 덖는데, 완성된 형태가 마치 커피가루와 같은 암갈색의 과립 형태의 차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충시차는 보이차를 30년 이상 오래 보관한 홍콩 광둥 등지의 보이차 창고에서 처음에



쇄동차.

찻잎벌레의 배설물로 만드는 충시차
효소분해과정 거쳐 아미노산 등 분비
찻잎이 구리동전을 녹인다는 쇄동차
혈관청소 · 고혈압 · 담석증 등 효과

발견된 것인데요 농약 친 차는 다충이 없다, 천연의 오래된 노차에서 발견된다고 해서 귀한 대접을 받았지요. 보이차 다충은 태어나서 일생 동안 찻잎만 먹고 자라서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차를 만드는데 동글동글한 모양이 구슬 같기도 하고 또 매우 소량으로 귀한 차라서 여의주와 같다, 용의 구슬과 같다라고 해서 용주차라고도 부릅니다.

충시차는 다충의 배 안에서 찻잎이 효소분해과정을 거치면서 아미노산 등 항산화물질이 다량 분비되어 차향이 진하고 맛도 농밀합니다. 명나라 때 저술된 〈본초강목〉에도 이미 충시차가 소개되었는데, '차도 되고 약도 되며 차와 비슷하나 차가 아니다.' 다른 잡균의 번식을 막는 효소와 천연 항생물질이 함유되어 특히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고, 해독작용이 우수하고 소화를 돕고 비위를 튼튼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차는 쇄동차(碎銅茶)입니다. 분쇄 쇄, 구리 동, 차 차, 구리동전을 녹이는 차입니다. 찻잎을 잘근잘근 씹은 후 구리동전을 함께 물고 있으면 구리 동전이 얇아지면서 구멍이 납니다.

쇄동차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원나라 명나라 때의 일입니다. 도교 무당파의 창시자 장산펑이 산길을 가다가 동전을 잘못 삼켜 죽을 뻔 한 아이를 만났는데, 마침 근처에 차나무가 있어서, 장산펑이 찻잎을 입안에서 잘근잘근 씹어 아이에게 먹였더니 얼마 후 동전을 뱉어내고 살아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장산펑은 무협소설의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는 도가 수련자, 김용의 무협소설 주인공으로도 나오고 만화나 영화로도 많이 그려진 유명한 도사입니다. 그의 고향이 랴오닝성이라는 연구도 있는데, 쇄동차의 전설은 장산펑이나 도교 수련자들이 차를 많이 마시고 차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구리를 녹이는 찻잎은 복건성 관성산의 유선봉과 무양봉 두 곳의 차나무에서만 나는데, 이곳은 천혜의 기후와 토질이 찻잎에 특정한 영양성분을 증가시켜 구리를 녹이는 쇄동의 특징을 띠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쇄동차 찻잎은 아미노산 함량이 2.9 (현지의 일반차는 1), 티폴리페놀 함량이 46.5 (현지의 일반차는 15)이며 미량원소의 함량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찻잎의 항산화성분이 사람의 타액과 섞여 구리를 녹이는 특이한 성질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쇄동차는 특히 혈관청소 고지혈증 고혈압 담석증 폐와 기관지를 깨끗이 하는 청폐기능 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쇄동차는 별칭이 신선차입니다. 쇄동차를 오래 마시면 무병장수하고 신선처럼 된다고 합니다. 1800년대 청나라 함풍 연간에 쇄동차가 나는 지역을 기록한 〈소무부지〉라는 지방지에 의하면, 당시 인구조사를 했는데 유선봉 주변의 쇄동차를 마시는 마을에는 150세, 129세, 90세 이상의 노인이 7분이 계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잇다it茶 대표〉

일일시호일

유방암이 앗아간 소박한 꿈…
치료만이 희망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우샤니씨 유방암으로 가슴 절제
전이 가능성 높아 항암치료 필수지만 매회 120만원은 부담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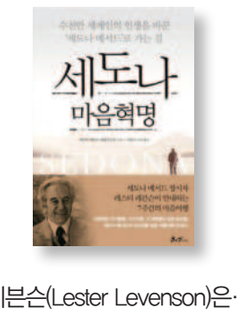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21 레스터 레븐슨의 '세도나 마음혁명'



▶ **한줄 요약**
나를 버리면, 우리 속에서 더 큰 나를 느끼고 무한의 에너지를 느끼게 된다.

'나'란 칸막이 제거, 에너지 원천



레스터 레븐슨(Lester Levenson)은…

1909년 뉴저지주에서 태어나 루트거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여파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는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들었고,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다 뉴욕 펜트하우스에서 지낼 만큼 큰 부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1952년 심장질환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그 직후부터 그는 필사적으로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3개월간 은둔생활 끝에 인생의 모든 의문이 일시에 해소되는 깨달음을 경험했다. 병이 나은 것은 물론이고 실험 삼아 손댄 부동산사업도 대성공이었다. 1958년, 애리조나 세도나로 이주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했다. '흘려보내기 기법(Release Technique)'과 '세도나 메서드(Sedona Method)'의 창시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1994년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가르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창문이 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댐이 무너지듯

레스트 레븐슨은 물리학자이자 엔지니어로서 레스토랑 경영, 목재상, 건축업, 석유 사업 등, 여러 사업에 손을 댔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근본적인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 그런 결핍감 때문인지 우울증이 깊어졌고, 다른 질병들도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일년에 서너 번씩 황달에 걸렸고, 신장결석이 와서 모르핀을 처방받기도 했다. 위산과다에 위궤양을 앓았고, 거의 10년 동안 편두통으로 시달렸다. 1952년, 두 번째 심장발작으로 병원에 실려간 그는 의사로부터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이 배운 온갖 지식들과 화려한 이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실감하고는, 자기 자신을 향해 속삭인다. '레스터, 너는 사실 조금도 영리한 게 아니었어. 실상은 바보, 바보, 바보였어. 네가 머릿속에 열심히 집어넣었던 철학, 심리학, 사회과학, 경제학…, 그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 모든 지식을 던져버리자. 바닥부터 시작하자.'

그는 죽고 싶지 않다는 극도의 절망감과 격렬한 탈출 욕구 속에서, 스스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나와 세상은 어떤 관계인가?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결국 자신이 행복한 삶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는, 스스로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지를 물어 보았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가 그래도 행복한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실감했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니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할 때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랑을 줄 때가 행복했지만,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실로 놀라운 발견이었다. 그는 사람들과 세상을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위궤양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과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노예로 묶어놓는다는 것 또한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반대 방향으로 되돌리기로 작정한다. 자기 자신에게 가했던 모든 압박들을 풀어버리기로 하자마자 그는 자신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향이 제대로 잡힌 것을 알게 된 그는 '파이 한 조각이 이렇게 좋다면 파이 한 판을 전부 먹어야겠다' 고 결심한다. 행복 파이를 전부 먹을 때까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와 삶의 관계는?"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 때까지, 그 방법을 놓지 않겠다고 작정한다. 이 결정 덕분에 그는 정확히 3개월 이내에 자신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3개월 후엔, 그동안 앓았던 모든 병들이 다 나았고, 자신의 비참함까지도 모두 떨어져 나갔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레스터 레븐슨이 3개월 만에 병마를 떨치고 일어난 것은 물론이고 '언제나 슬픔 없이 행복한 지점' 에 도달한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3개월 동안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 **존재에 대한 압박 떨쳐내면**
> **외로움, 고통 설 자리 없어**
> **모든 한계 놓아버리기 필요**

모든 한계를 놓아버리기

이제 곧 죽는 것밖에 다른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을 때, 그는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렸다.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순수한 의문부호 뿐이었다. 그 어떤 원망도 없었고, 어떠한 기대도 없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 충동이나 억압이 없었고, 그동안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콤플렉스 같은 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자기도 모르게 그를 그답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댐 같은 것을 무너뜨리게 됐다. '있음(being)' 자체가 되자, 그동안 흐르지 못하고 있었던 우주의 무한 에너지가 그에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놓아버림에 따라, 통나무를 하나씩 치우면 댐의 물이 흘러가듯이, 마음의 통나무들이 제거되면서 무한한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더 많은 통나무를 빼어내 버릴수록 에너지는 더 많이 흐른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이 통나무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무한한 에너지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나의 마음 뒤에 감추어져 있던 그 힘, 이전에는 전혀 흘러본 일이 없던 그 힘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 자신이 무엇인가?' 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던 그 즈음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쏟아 부어져서 나는 의자에서 공중으로 튀어 오르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곧바로 문밖으로 달려나가 걷고, 걷고, 또 걸었다. 어떤 때는 몇 시간, 어떤 때는 며칠을 걸었다! 내 몸이 이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덜어내기 위해 걷거나 뛰어야 했다. 아주 이른 아침 뉴욕 시내를 걸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저 좀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있었을 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기에! 난 그렇게라도 그 에너지를 소진시켜야만 했다. 그것은 그 정도로 굉장했다."

그가 한 일의 전부는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존재' 라는 개념의 담벼락을 자기도 모르게 무너뜨린 것뿐이었다. 스스로 세워놓고 있었던 담벼락이 무너뜨려지자마자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왔고,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슬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설 자리가 남아 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나 인생이 그를 결핍과 외로움의 상태로 몰아 세웠던 것이 아니었다.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성공과 실패의 줄타기를 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스스로 칸막이를 한 것뿐이었다. 이 칸막이를 허물어뜨리는 것만이 해야 할 일의 전부였다. 칸막이를 무너뜨리고 전체가 되는 것만이, 그래서 본래의 '나' 를 회복하는 것만이 온전한 행복 속에서 영원히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은, 흔들림 없는 완전한 자유와 '한계 없음' 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총체적 존재성의 자연스런 원래 상태를 배우기 위함 혹은 다시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자연적 상태를 한번 맛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모든 한계를 '놓아버리기' 시작한다."

놓아버리고 흘려버리면 인생이라는 낮꿈에서 비로소, 홀연히 깨어날 수 있다.

포괄적 흘려버리기 기법

훗날 그가 낮꿈에 취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창안한 '세도나 메소드' 의 핵심적인 기법인 '포괄적 흘려버리기(Holistic Releasing)' 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놓아버릴 것을 결정하기 또는 선택하기.

2. 이 순간의 상태가 그 무엇이든 허용하고, 수정이나 변화, 수선이 필요없는 있는 그대로 온전히 환영하면서,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보면서 놓아버리기.

3. 그것이 어떤 것이든 느낌의 핵심 속으로 파고들면서 놓아버리기. 느낌의 핵심으로 파고들 때 우리는 그것이 텅 빈-또는 좋은 것으로 가득 찬-것을 발견한다. 거기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추측하는 것처럼 어둠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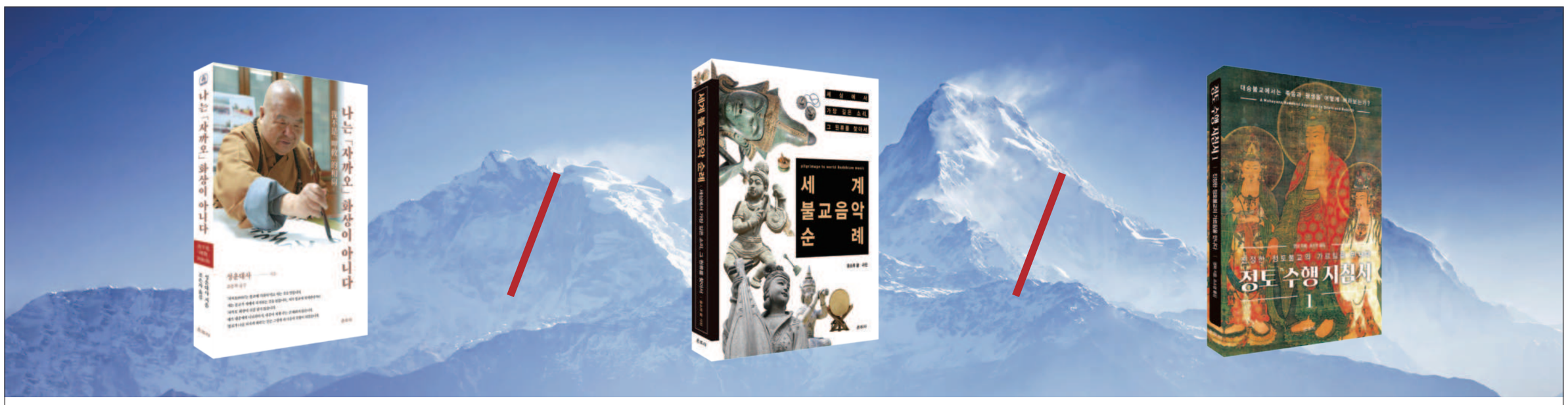
'포괄적 흘려버리기' 과정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마련인 모든 한계를 놓아버리고, 분해하고, 붕괴시켜 준다. 우리가 스스로 막고 있었던 온갖 개념들과 판단들을 흘려버릴수록 우리는 더욱 더 유연해지고, 더욱 더 열리고, 인생이 우리를 대하는 그 어떤 대접이라도 잘 다루어낼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생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흘려버리기' 를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개념이나 판단의 댐에 가로막혀서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결과를 낳게 마련이다. 어떤 갈망을 성취했을 때라도, 그 행복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새 장난감' 은 길어야 며칠 정도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과 성취들을 더 많이 놓아버릴수록, 지금 그리고 늘 누릴 수 있는, '절대적 자유' 라는 파이 전부를 가지도록 자신을 더 많이 열 수 있다.

레스터 레븐슨은, '나는 누구인가?' 를 알기 원하면서, 그리고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한계 없는 존재' 를 찾아 헤매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이 한계 없는 어머어마한 존재라는 통찰에 이르게 된다. 자기 몸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쌓아올리고 있었던 댐을 무너뜨림으로써 '있음(Being)' 자체의 바다가 된다. 그는 자신이 '몸이라는 물방울' 로 방울방울 잘게 쪼개져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원래의 '거대한 대양 자체' 로 존재하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나' 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함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이 곧 '나' 이며, 여기 이렇게 오직 '큰 하나' 가 있음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 는 늘 그랬듯이 지금도 거룩하고 무한한 존재, 그 하나다.

〈작가〉



불교에 기대지 말고 기여하라!
나는 자까오 화상이 아니다
'자까오'는 '불교에 기대어 먹고 사는' 것을 말한다.
'내가 불교에 의지하지 말고, 불교가 나에게 의지하게 하자'를 평생 지켜온 성운대사의 삶을 만날 수 있다.
성운대사 지음, 조은자 옮김/신국판/380쪽/값 18,000원

불교음악 범패의 원류를 찾아서!
세계 불교음악 순례
세계 곳곳을 누비며 찾아 기록한 20년 여정의 대기록!
왜 불교음악은 나라마다 다른가? 세계 불교음악의 현장을 생생한 기록과 풍부한 사진으로 보여준다.
윤소희 글, 사진/사륙배판/440쪽/값 28,000원

진정한 정토불교의 가르침을 만나다!
정토 수행 지침서 1
정토불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정토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왜 정토수행이 최고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영화 지음, 조소영 옮김/국판/328쪽/값 15,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대행 스님

죽고 사는 걸 떠나야만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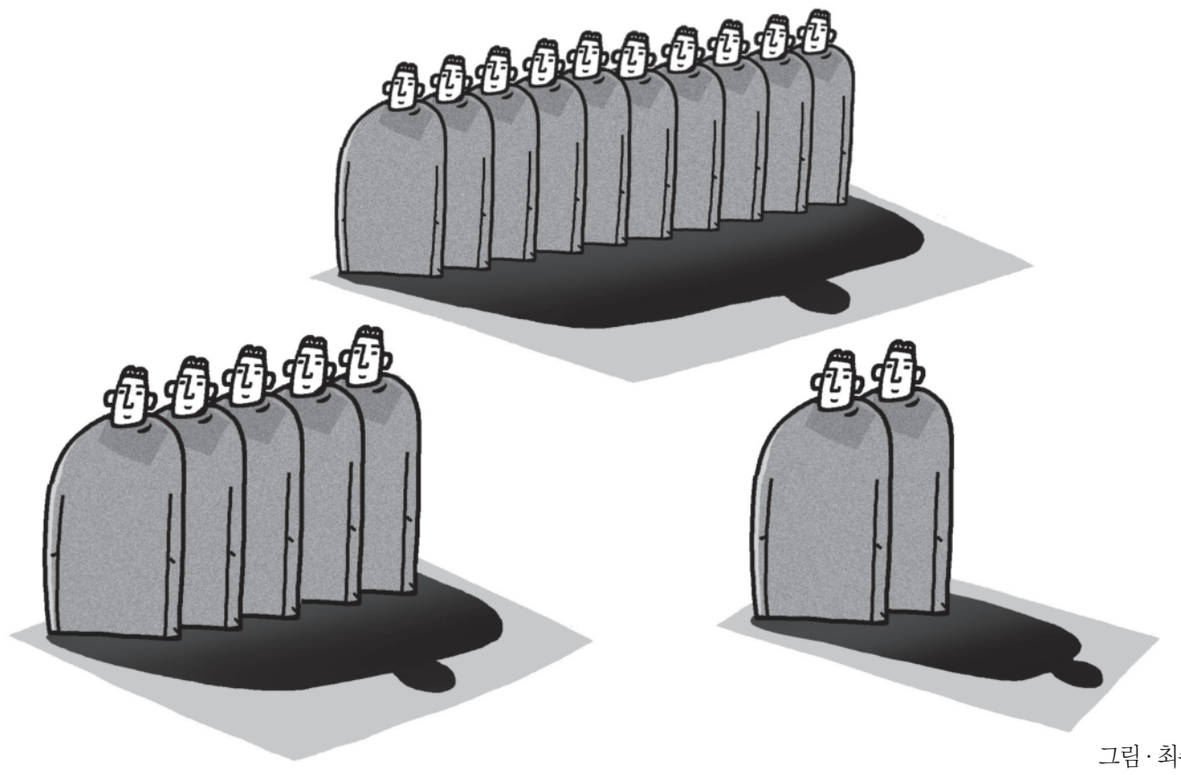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마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인간의 생명도 바로 한데 뭉쳤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생물이 생긴 것도 역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생명체가 생기듯이, 우리 한 몸뚱이가 나오려면 양 부모의 뜻과 내 영혼의 뜻과 그 형체가 형성되면 작용해 줄 수 있는 그 업식, 그 의식들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자기가 지은 대로 다 합쳐서 이 세상에 형성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인간이 살 수도 없고 또 최고의 동물로서 활동도 못 할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본다면 우리 이 지수화풍이 바탕이 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도 내 마음을 떠나서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두뇌로 해서 연구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구가 돼서 지금 세계적으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물질이 개발되고, 지금 현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죠.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았더라면 뭐, 고체니 기체니 액체니 이러한 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여 또 레이저 광선이 개발이 됐죠? 그 레이저 광선을 지금 얼마나 유리하게 세상이 다 쓰고 있습니까? 병원이라면 병원, 떠다니는 비행기 또는 하늘 꼭대기로 쏘는 거, 일거일동입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전화까지도. 그것뿐이 아니죠? 일체가 지금은 그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속에 병이 들어도 거기다 광선을 쬐야 하고, 또는 재는 거라든가, 쏘는 거라든가 아주 일품으로 쓰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앉아서 공부하는 거…,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죠. 레이저 광선은 어디나 쓰여지는 겁니다. 멀리도 갈 수 있고 가깝게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한번 그걸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과거로 돌아갔다가 올 수도 있고, 미래로 갔다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업식이라도 녹일 수 있고, 즉 말하자면 윤회성이나 또는 어떠한 거든지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를 녹일 수가 있는 공부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내가 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만 명이다 하면 숫자를 놓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거든지 나투어서 응신이 돼서 내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둘이겠느냐.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공부는 과거로 돌아갔다가 미래로 돌아갔다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도 있거니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찰나찰나에 지금 생활 속에서 나오는 모든 업보 그 자체를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깝든지 멀든지 그걸 불문에 부치고 끌어다 보려면 끌어다 보고, 놓고 보려면 놓고 보고, 갖다 먹을 수 있으면 갖다 먹고, 갖다 줄 수 있으면 갖다 주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공부입니다. 날아가는 새나 비행기나 뭐가 다릅니까? 뭐든지, 로켓이 올라가는 것도 멈추게 하려면 멈추고 없애려면 없애고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이건 엄청난 공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자유대권을 갖는데, 이 우주 천지의 모든 대권의 소유자인데….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도 근기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요만큼 얘기를 하시고, 이만큼 가진 자에게는 이만큼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줘도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말로, 지식으로, 학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 유마힐 거사가 같이 도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방편으로 보여 주신 거는 어느 누구도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동물로서 어떤 때 생각을 하면, 이 모두가 아픔을 껴안고 먹고 또는 먹히면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해야 하는 이런 판국에서 하치않게 생각이 되면서도 그 생명의 존엄성은 엄연합니다. 이 인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인간까지 말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입니까? 꼭 칼을 들어야만이 싸움이 아닙니다.

뼈저린 아픔을 견디면서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좁게만 보지 마시고 넓게 한번 펼쳐서 봐 보십시오, 어떠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육체적 장애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장애자도 장애자인 것입니다. 정신장애자도 장애자인 것이고요.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살다가도 병신이 되고, 이것이 누가 뒤에서 쫓아오고 쫓는 게 아니라 쫓아가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또 잡아먹히는 이러한 세상을 모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 사는 게 쓸데없이 생각이 되고요. 허! 기가 막혀서 하늘을 쳐다보고 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 내 몸, 내 가정만 생각하고 모든 걸 아주 좁게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더 막막하단 말입니다. 어떤 땐 기가 막혀서 그저 나갈이 바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먹고 먹히는 그런 항아리 속에서 쫓고 쫓기지는 않겠죠.

이 불교에서 불법이다, 불교다, 사찰에 가면은 그저 부처님 믿는 걸로 이렇게 생각들 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당당하게 "너부터 알라." 그랬습니다. 네 몸뚱이가 내 몸뚱이하고 다른 게 있느냐.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른 게 있느냐. 생명도 다른 게 없고 마음도 다른 게 없고 몸도 다른 게 없다. 그러나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항상 말하지마는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뭐, 알라신교니 원불교니 불교니, 이렇게 모두 방방곡곡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면 전부 기복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앞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하게 막아 놓고는 어쩌면 그렇게 상대로만 믿고 가요? 상대를 믿고 그렇게 가다 보면 세세생생을 두고 항상 노예밖에 더 되겠습니까? 종노릇밖에 더 하겠습니까? 종노릇하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너는 땅을 짚고 일어나거라. 절름발이가 되지 말고, 눈 뜬 장님이 되지 말고, 귀머거리가 되지 말아라. 이 우주 천하 모든 도리천은 너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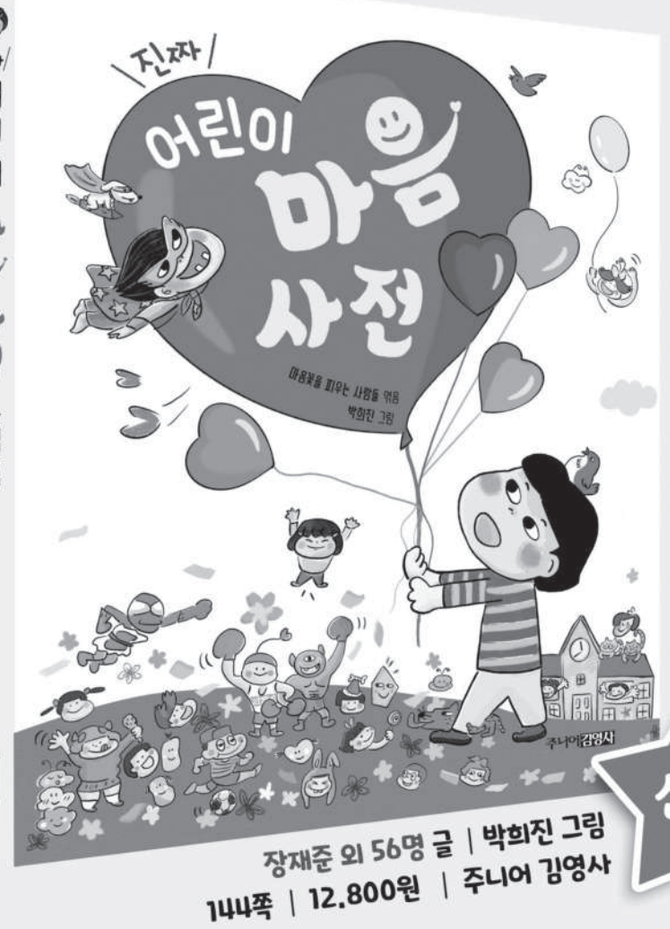
유마힐 거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님네들이 앉아서 좌선하고 있는 걸 보면 "좌선을 했다 일어나면 끊어지지 않느냐." 하고 충고도 했고,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또 "내 몸이 나으려면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몸이 낫지 않느냐." 하기도 했고요. 그것을 얼른 생각해서 내 내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모두 바깥으로 그 말씀만 받아들여서, 이 바깥의 중생들을 다 거둬야 자기 몸이 낫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몸속의 중생들이, 그 생명의 의식들이 작용을 해서 그 모든 의식들이 병이 나아야 나도 낫는 거 아닙니까? 각자 여러분 말입니다. 얼마나 현명합니까? 몸속의 그 생명의 모습, 의식들이 바로 나와 너가 둘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만들어 주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죠,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노라고. 모든 오장육부의 생명들, 생명체는 우리 인간이 부산으로 가는지 서울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걸 알게 해 줘야죠. 내가 마음먹는 대로 같이 뭉쳐서 같이 한마음을 내서 들일 건 들이고 낼 건 내고 자유자재권을 형성시켜서 나가야 그것이 천백억화신으로 화(化)하죠. 나의 그 모든 수십억의 의식들은 바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바로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심력이 길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고 믿질 못해서 의식들은 의식들대로 놀고, 즉 말하자면 위 공장은 위 공장대로 따로 놀고, 장 공장은 장 공장대로 따로 놀고, 방광 공장, 척수 공장, 척추 공장, 콩팥 공장, 심장 공장 죄 따로 노는 겁니다. 죄 따로 노니까,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가 선생이라고 그러죠. 내가 제일이라고 하거

☞ 22면으로 계속

월간 어린이잡지 「마음꽃」 인기코너
〈아무나 쓰는 이야기〉 모음집



우리가 잘 몰랐던
어린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까요?

장재준 외 56명 글 | 박희진 그림
144쪽 | 12,800원 | 주니어 김영사

신간!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
월요일에는 놀랴,
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
수요일에는 책 읽으랴,
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
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
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
-본문 중에서

인터넷 판매중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구매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나고 죽고 생활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대로 불법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든요, 모두가. 그러니 내 마음을 따라 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에 어떠한 용도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건 대치를 못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잡을 것도 없고 쥘 것도 없고 빛깔도 없는데 그렇게 역력하게 빛깔이 있고 잡을 수 있다면, 이 삼천대천세계를 집어삼킬 수 없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러한 대권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많은 여건에 따라서 내가 이거는 꼭 필요하다 할 때, 괜히 장난으로 하는 것 말고요. 이게 필요하다 할 때 그거는 틀림없이 레이저 광선이 쏴 들어가듯이, 그것보다도 더 빨리 한 찰나에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들…, '옛날의 선지식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자신들을 믿지 못해요.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우주 천지를 다스리겠습니까? 우주 천지를 다스리는 것도 내가 높아서 다스리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불에 들어가면 불덩어리로 하나가 되고, 물에 가면 물로 하나가 되고, 공기로 가면 공기로 하나가 되고, 흙으로 가면 흙으로 하나가 되고, 어떠한 보이지 않는 영계로 가면 영계로 하나가 되고, 산 사람으로 가면 산 사람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내가 될 수 있어야만이 그런 여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몸뚱이 속의 자기와 동료로서 같이 움죽거리는 그것도 못 믿으니 어떡합니까, 예? 그것부터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회초리가 가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한데 합쳐서 이렇게 뭉쳐 놓으면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 몸뚱이 속의 그 수십억 의식들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데 어찌 그걸 꺾겠습니까? 이것부터 아셔야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프니까 아픈 것이 낫지 않으면 '에이, 주인공도 쓸데없어!' 이렇게 일축해 버리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거 맡기는 것이 안 되면 또 '에이그', 그렇게 '에이그' 하고 버릴 사람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요. 저 충주 시멘트 공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부인이 백혈병에 걸려서 왔습니다. 구박이 자심하고 그래서 왔다고 울면서 그때 25만 원인가 정성을 들이면서 쌀 한 말과 초를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소저 할머니가 여관 하실 때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마음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성과로 아주 들어갔죠. 마음공부는 못 시킬망정 그 애로점을, 그 울고불고하는 거나 없애 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병이 나아서 갔습니다. 그 여관에서 며칠 있으면서 아주 그냥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해 보니까 이거 오진을 했다고 하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말입니다, 오진이라는데 왜 그런 돈을 없앴느냐 하면서 돈을 찾으러 왔습니다, 허허허. 그때 찾으러 오기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이소저 할머니더러 "그 쌀하고 초하고, 꼭 그 보따리를 놔두십시오. 그 봉투도 건드리지 말고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것을 꼭 두시라고 합니까? 신도들 오는데 밥이라도 해 주지." "그냥 놔두십시오. 쓸 데가 있습니다." 이랬는데 아, 찾으러 왔답니다. 찾으러 왔으니 안 줄 장비(張飛)가 없죠, 하하하. 무슨 그거를 탐내고 그러는 사람 같으면 "부처님 앞에 정성 들이고 간 거를 왜 되찾으러 왔느냐?" 이러겠지만, "가지러 올 줄 알고 여기 놔두었다." 그러고 보냈단 말입니다. 보냈는데, 그 부인은 나았는데 반대로 본인이 암에 걸렸단 말입니다. 하하하.

그러니까 그 업식이라는 거를, 그 업보라는 거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하나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없애면 저게 생기고, 저거를 없애면 이게 생기고 이러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찾아가고는 염치가 없으니까 못 오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딱하다고, "하이고, 그렇게 그 부인도 어린애 못 낳는 것 어린애 낳게 해 주시고, 미친 것도 낫게 해주시고 또 백혈병도 낫게 해 주셨다는데 그것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에 "아이, 내가 뭐, 병원의 의사입니까?" 이럭하고선 그래도 마음으로 안됐어서, 그저 근근이 감자 물이라도 해 잡수라고 했는데, 그 감자 물이 낫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살아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죽고 사는 걸 떠나야만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고, 죽는 게 두렵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건 부처님이 있으면 살려야지 죽이는 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니깐 주인공도 쓸데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올팡갈팡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주인공은, 수억겁 광년을 거쳐 미생물에서부터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나를 형성시키고 진화시키고, 쫓고 쫓기면서 형성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등 동물까지 이끌고 온 장본인을 믿지 않는다면 그걸 어떡합니까? 거기서만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서만이 그 해결을 하지, 마음으로 병난 거는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육신이 병난 거는 육신으로 대치를 해서 병원에서 고쳐 나가는 거죠? 이 물질적인 문제도 또 없어서는 안 되죠. 일체 만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염파가 걸러 걸러 돌아가면서 이것이 확립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찰나에 쏜살같이, 한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 그대로 그냥 한꺼번에 전달이 되는 거니까요. 하나가 이렇게 섰다면…, 이 자가발전소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발전소에서 전력이 나갈 때는 그냥 동시에 쫙 전력이 나가듯이, 마음에서 한 번 생각하면 이 두뇌로 해서 사대(四大)로 그냥 전파가 되고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되면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이 따라 주니까, 그냥 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의식도 체가 없어서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주위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그래서 내 신장이 내 부처를 동시에 적절히 모시고 다니는 거죠.

이 모두가 옛날이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어느 청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가방을 메고 어느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한 열댓 명이 착 나서더니만 그냥 칼을 들고 위협을 하더랍니다. 그 순간 급하니까 내가 일러 준 생각이 났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거 이럭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 순간 '아이고, 주인공! 아이고, 스님! 주인공!' 급하니까요. 그러고는 그냥 거기다가 전념을 다하느라고 그 열다섯 명이 칼을 들었는지 뭐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멍청이처럼 우두커니 쳐다보고 서 있으니까, 오더니만 아래 위로 딱 전부 뒤지더니 돈 만 원이 나오니까 돈 만 원만 가지고선 "에이, 여기 이 새끼는 속에 시계도 차고 그랬지만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 그러고선 아, 그대로 가더랍니다.

발길질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 간 뒤에 벌컥 주저앉아서 '야,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런 거로구나!' 하고. 여기다가 그렇게 급하게 맡기니까 급하게 조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의식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점령을 해 가지고, 그 악하게 마음이 됐던 것을 선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냥 갈 수밖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알고 모르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경전을 달달 외우고, 학술적인 지식적인 뭐를 가지고 거기에 그냥 딱 죄여서 머리가 굳어 가지고는 옴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살아오면서 그것이 관습이 돼서 아주 인이 박혔으니까요. 사람이 너무 약아서 요건 요렇다, 요건 못 한다 한다, 이럭하면 잘되겠고 이럭하면 못되겠고, 이것이 아주 뚜렷하니까 거기에 딱 틀이 박혀서 믿음이라는 게 확실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좀 무식하고 바보 같아야 더 빠르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아는 게 많으면 망설이는 게 많거든요. '이게 정말인가? 이게 거짓 아니야?' 거짓이고 잘못이고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믿으라는데. 타의의 어떤 형상을 믿으래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살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중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으래야 살펴볼 수도 있는 거지, 이름을 믿으라나 허공을 믿으라나? 아이, 이러니까 살펴볼 것도 없지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 믿으라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고통도 없을 거고 즐거움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좌선하던 사람은 좌선만 해야 하는 줄 알고, 또 좌선하면 무슨 큰 불법을 깨닫는 도리나 얻을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 자체, 이렇게 우리가 나고 죽고 생활하는 게 그대로 불교고 그대로 불법이고 그대로 참선이고 그대로 공안(公案)이고 그대로 여여함입니다. 그거를 아시고 생활 속에서, 내가 가고 오는 데서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이 주인공이라 하는 거, 이 '공(空)' 자가 들어간 거는 뭐냐? 고정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정되게 한 가지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그저 요것 보면 마음이 달라지고 조것 보면 또 달라지고, 요것 들으면 달라지고 조것 들으면 달라지고 이게 그냥, 아주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죠. 그러니 그 도리를 그대로 여여한 줄 알고, 그대로 참선인 줄 알고, 그대로 불교인 줄 알고, 살림살이하는 게 종교인 줄 아시고 돌아가야만이 이게 진실히 믿어지고 '죽는 것도 네가 죽게 하는 거고 살게 하는 것도 형성시키는 것도 네가 하는 거다.' 그렇게 믿게 되죠. 그런데 어디다가 생사를 붙일 겁니까? 그 생과 사의 가운데에 마음이, 움죽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형성이 돼서 그저 사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도, 한번 병들고 쓰러지니 그뿐입니다. 보잘것없죠.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를 볼 때에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루살이를 볼 때. 저 산천초목이, 저 산봉우리가 또는 큰 돌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강원도 금강산의 일만 이천 봉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루살이로 보겠죠? 그러니 일만 이천 봉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뜻이 있는 겁니다. 팔만 구 암자 하는 것도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옛날에 있었던 얘기도 현실 얘기고요, 미래의 얘깃거리가 오는 것도 바로 오늘 얘깃거립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가는 현생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이렇게 좋은 세상을 못 보고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살았는데…." 하지만 그 조상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여러분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 조상들은 못살았느니 못 먹었느니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 하려면 생활 속에서 근면하고 착실하고 진실하게, 내가 지금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 믿음, '네가 형성시킨 거니까 네가 없애려면 없애고 좀 더 살게 하려면 더 살게 하고 마음대로 해라.' 하면 좀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 번 갈 거라면 그렇게 믿어 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뜻으로 항상 이 몸뚱이 속에 사는 그 중생들이 전부 한마음이 돼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게끔 한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건강하고 좋을까요?

(다음 호에 계속)

나의 모든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바로 갈이해 줄 수 있는
그런 심력을 길러야 합니다.

※위 법문은 92년 12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현불 논단 |

위드코로나와 三學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험난한 위드코로나로 가는 길
제약들 풀리며 3000명대 확진
격변기, 이기적 행동은 위험해

계 · 정 · 혜 가르침 필요한 시기
배려하고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
바른 지혜는 자연스럽게 생겨나

위드코로나 상황서 삼학 가르침
행복, 희망의 피안으로 이끌 것

도심의 길가와 산사의 도량을 온통 노란 빛으로 물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안겨주던 가을이 어느새 지나가고 삼동의 추위를 맞이할 동안거가 입재했다. 언제나 그렇듯 시간의 무상함과 속도는 우리를 아쉬움에 빠지게 한다.

이번 동안거는 여느 때와는 다르다. 지난해 동안거는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어수선한 분위기였다면, 이번 안거는 코로나를 포용하기 위한 새로운 분위기이다. '위드코로나', 표현 그대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이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코로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일상으로의 첫걸음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위드코로나가 발표되고 여러 제약들이 풀리면서 그동안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 결과 현재 하루 확진자수가 3000명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가고 있다. 그렇기에 일부에서는 다시 봉쇄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격변기에 자신만을 생각하는 행동은 무엇보다 위험하다. 우리 모두는 아직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의 모습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인과응보와 유사하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어 병들고 죽지만 누구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저지른 행동과 말과 생각이 그대로 업이 되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신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진 우리를 이끌어주시기 위해 바로 '나' 자신을 다스리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가르침이 다시금 절실한 시기이다. 팔만사천의 가르침 중 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해 설하신 것이 바로 계(戒) · 정(定) · 혜(慧)의 '삼학(三學)'이다. 계는 바른 계율과 도덕, 정은 선정과 집중, 혜는 지혜로운 삶을 말한다. 이 삼학은 단순히 배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습관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물들여 어떤 상황이든 그 행동이 무의식중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지금에 활용할 때 먼저 '계'는 개인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주변을 배려하며 함께 이 시기를 극복하려는 바른 생각과 행동인 것이다. 즉 배려하며 착하게 살자는 의미이지만,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세 살짜리 아이도 알지만 팔십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의 하루 속에 항상 발밑을 바라보듯 주변을 살펴보고 자신으로 인해 불편함을 주는 일은 없는지 확인하는 일만 하더라도 이 '계'를 바르게 행한 것이다. 그리고 '정'은 바른 집중이란 의미로, 바로 자신의 직업과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상당히 어그러졌다. 많은 분들이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젊은 세대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 그 일에 집중하여 매일을 보낼 때 비로소 작은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다시금 희망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혜'는 '계와 정'을 바르게 실천할 때 자연스레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즉 지혜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위로부터 인정되고 존중받을 때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힘들게 한걸음을 내딛어 일상으로 나오게 된 지금 어리석게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보낸다면 스스로에 의해 다시금 기약 없는 외로운 현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충분히 힘들고 외로운 2년을 견뎌왔다. 간신히 내딛은 한걸음에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함께 화합하여 큰 한걸음을 내딛으며 내일로 나가야 한다. 위드코로나라는 안개길 속에서 삼학의 가르침은 바른 나침반이 되어 우리를 행복과 희망의 피안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社 說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미루지 말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이다. 그러나 이 헌법은 조항에만 머물러 있다.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제정되지 않았기에 더욱 씁쓸하다. 2007년 처음 제출된 이래 수차례 무산됐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심사기간이 2024년 5월29일까지 연장됐다. 14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나중에'의 연장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온 조계종은 11월24일, 종단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성명은 심사기간 연장 이후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라 더욱 의미 깊다.

조계종은 지난 수년간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되지 않는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격주 기도회, 국회 둘레길 오체투지 등을 진행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왔다.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성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조계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금도 이미 늦었다. 누군가에게 절박한 오늘에 언제까지 정치권은 '나중'이라고만 할 것인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평등을 차별하는 것이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에 마음을 모아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할 것이다.

'대청봉' 경계 논쟁 당장 멈춰야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소유부지이자 설악산국립공원 상징인 '대청봉'의 경계를 두고 속초시와 인제군, 양양군 세 곳 지자체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황당함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땅주인을 배제한 채 권한 없는 자들이 땅을 두고 싸우는 꼴과 다르지 않다. 대청봉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지자체 세 곳이 대청봉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를 보는 불자들의 심경은 말 그대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법적으로 부지의 경계정정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강원도 역시 이번 논란에 대해 같은 절차로 지적공부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신흥사를 제외한 논쟁은 어떤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불법 혹은 무효가 되는 셈이다. 이토록 명확한 경계 정정기준이 있음에도 왜 지자체들은 토지소유권자인 신흥사를 배제한 채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다.

우선 지자체들이 설악산국립공원 내 부지라는 이유로 대청봉을 국가소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립공원에 편입됐다고 해서 신흥사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신흥사는 되레 국립공원 부지로의 강제편입으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감내하고 있다. 조계종이 세 곳 지자체에 "신흥사 소유지인 대청봉을 둘러싼 논쟁을 멈추고 신흥사에 참회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속초시와 인제군, 양양군은 "지자체라면 무의미한 경계논쟁보다 국립공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과 불편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공력을 쏟아야 한다"는 조계종의 일침을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이주노동자 건강에 관심을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모국에서 건강 검진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후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과거 질병이 없는 '정상', 즉 건강한 분들만 한국에 들어옴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열악한 숙소 환경과 과도한 업무 등에 장기간 노출되다보면 건강에 서서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영양, 휴식의 결핍은 결국 질병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다행히 한국은 보건의료 체계가 비교적 잘 돼 있어 질병에 걸린 이주노동자가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은 지당한 일이지만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아파도 병원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로 파악됩니다. 하나는 병원에 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또 다른 하나는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의 의료제도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스리랑카의 국립병원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술과 검사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더욱 길게 만듭니다.

이러한 긴 기다림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병원에 가는 횟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모국의 상황에 익숙해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한국에 나와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들의 '병원에 안 가는, 병을 참는 습관'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의료 교육 안내와 공지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몇몇 회사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소주 먹어", "네가 고기를 잘 안 먹어서 그래" 등의 반응을 보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나 치료를 권유하는 회사들이 드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병원에서조차 무시와 차별,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가슴 아프게도 코로나19 확산 후 또 다른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지방 병원에서 쉽게 외국인들이 접근하여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젊은 나이에 타국에 와서 모두가 꺼리는 3D업종에 종사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생활과 건강에 대한 교육은 필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갖게 되는 최고의 이득은 건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잃는다면 다른 어떤 이득이나 이익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이가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양심층수 100%
해양 高 미네랄
MQ 눈소금

瞬間空中結晶製鹽技術
동해바다 수심 605m
청정 해양심층수를 길어 올려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로
찰라의 순간에 수분을 증발
소금을 공중에서 눈처럼 내려
쌓이게 하는 첨단기술로 만든
깨끗한 미네랄 엠큐눈소금







深層水의 미네랄을 가득담은
기적의 소금
(순간공중결정제염)



엠큐 눈소금의 특징
- 해양심층수 100%로 만들어진 해양미네랄 100% 소금입니다.
- 청정 해양심층수를 마이크로필터로 걸러서 만들어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확인 소금입니다.
- 골다공증 예방,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칼슘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 신경전달의 핵심 미네랄인 마그네슘,칼륨,칼슘,나트륨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화와 영양흡수를 돕는 나트륨, 염소 성분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십가지 미네랄이 미네랄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건강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나트륨 성분의 체내 배출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나트륨 축적의 위험성이 없는 소금입니다.

※500ml 생수에 소금3g을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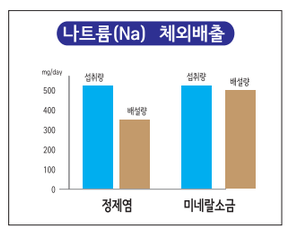
구분	일반정제염	엠큐눈소금 (100g 당)	차이점
염화나트륨	99.52%	75.39%	24.13% 낮음
나트륨	38.99g	29.64g	9.35g 적음
마그네슘	10mg	3,893mg	389배 많음
칼슘	30mg	988mg	32배 많음
칼륨	20mg	992mg	49배 많음
기타	표층수	해양심층수	

■ 자료 출처 명기
나트륨배출 촉진 : 출처 : KBS 생로병사의 비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출처 : 한국 분석과학연구소
소금성분 출처 : 한국기능식품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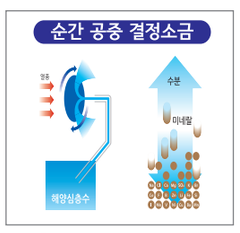
수상 경력
- 2019년 9월 대평남종현 발명문화상 수상
- 2019년 10월 GTI국제투자무역박람회 금상 수상
- 2020년 6월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수상
- 2021년 7월 2021년 대한민국을 이끈 혁신리더 50인에 선정

특허
- 10-1844017 : 해수에서 미네랄 분리추출
- 10-0885175 : 미네랄 워터와 미네랄 소금 제조기술
- 10-1681672 : 나무의 유용물질 함유 미네랄 소금제조기술
- 10-0548295 : 미네랄 해수소금제조장치 및 방법


미세플라스틱불검출 인증



나트륨배출 촉진확인



최첨단 특허제조기술

엠큐눈소금 W 스틱
"물에 타먹는 건강소금"
~~₩ 60,000~~ → ₩48,000



3g 스틱(60포)
건강용 제품 (3g 한 포 500ml 에 타 드세요)

엠큐눈소금 W 세트
~~₩ 150,000~~ → ₩120,000



엠큐눈소금 W 스틱 엠큐눈소금 W 굵은소금 1병
고운소금 1병으로 구성 건강고급제품

엠큐눈소금 세트
~~₩ 45,000~~ → ₩40,000



고운 소금 2병 굵은소금 1병으로 구성된 세트제품 요리등에 적합

문의 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전 제품 롯데택배 무료배송 (도서산간, 오지 등 일부지역은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BTN 불교라디오

24시간 힐링 하고 싶다면?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21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YESGOOD.CO.LTD

21년 불교성지순례 노하우로 더 특별한 순례가 됩니다. 문의전화 02-365-7747 www.mahayeon.com